



정답과 해설

고등학교

화법과 언어

이관규 외

1. 언어와 의사소통

01 언어와 삶

탐구 언어와 사고·사회·문화

본책 009~012쪽

* 확인 문제

01 ② 02 언어 03 ③ 04 ⑤ 05 ⑤ 06 ① 07 ④

01 이 글에서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필수 조건이자 인류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 사회 구성원과 의사소통하며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고 발전시킨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언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필수 조건이라고 하였지 나라와 나라를 구분 짓는 조건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02 **새싹형** 이 글에서 고양이, 꿀벌, 돌고래와 같은 동물도 나름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인간은 특히 언어를 통해 사회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하며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고 발전시킨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를 구분 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언어’임을 알 수 있다.

03 이 글은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는 사례(㉠ 오늘날)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 사례(㉡ 색종이 실험)를 제시하여, 언어와 사고가 긴밀하게 상호 작용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와 인간의 사고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오늘날’은 가까운 것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된 결과이므로,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②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도 하고,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언어와 사고는 상호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고 볼 수 있다.

④ “언어와 사고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이라고 하였으므로, 언어와 인간의 사고의 선후 관계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인간은 언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언어가 아닌 그림이나 음악, 몸짓, 표정 등으로도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04 <보기>는 과거에 쓰이던 고유어인 ‘온’과 ‘즈믄’이 한자어인 ‘백’과 ‘천’으로 대체된 사례와, 기술의 발달이라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공 지능’,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말이 만들어진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전에 쓰던 말이 다른 말로 대체되거나 새말이 생겨나는데, 이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사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05 ①은 학생이 색깔의 이름을 명확히 알고 있을수록 해당 색깔의 이름이 붙은 색종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과 같은 실험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언어가 사물을 인식하거나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6 이 글은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곧 그 언어에 담긴 문화까지 배우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언어와 문화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를 배우기 위해 무엇을 먼저 배워야 하는지 그 선후 관계를 밝히고 있지는 않으므로 언어를 배우기 전에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볼 수 없다.

07 우리말에 ‘고모, 이모, 당숙’과 같이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발달한 이유는, 유교적 전통과 가족 공동체를 중시해 온 우리 민족의 문화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른 것은 지역 방언의 사례로 문화적 특성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여 준다.

②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③ 새로운 현상에 따라 새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회 변화와 언어의 관계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⑤ 세대별로 언어 사용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는 사회 방언의 사례이다.

본책 013쪽

탐구 활동 학습

01 ② 02 ②

01 이 글은 스페인어와 독일어에서 ‘다리’라는 단어의 성별이 그 나라 사람들이 다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언어가 사물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 스페인어와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대상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스페인어에서는 ‘다리’가 남성 명사, 독일어에서는 ‘다리’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으로 모든 언어가 보편적인 체계를 갖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속을 어긴 사례는 나와 있지 않다.

④ 독일 사람들과 스페인 사람들은 동일한 ‘금문교’를 보고 서로 다른 표현을 했을 뿐이지, 이를 잘못된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

⑤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가 언급되고는 있지만, 이는 단어 자체의 문법적 성별을 말하는 것이지 말하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 언어 사용이 달라짐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 참고 자료

인구 정책에 따른 출산 관련 표어

과거 우리나라 정부는 식량난 해결을 위해 가족 구성원 수와 출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는 자녀를 둘만 낳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1980년대에는 한 아이만 낳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서는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산아 제한 정책 관련 표어	• 둘만 낳아 식량 조절 •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출산 장려 정책 관련 표어	•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 결혼은 행복의 시작, 출산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 02 ㉠에서 ‘둘도 많다!’라는 표어는 인구 증가 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인구 증가가 안정화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단원 평가 문제

본책 014~015쪽

- 01 ㉠ 02 ㉢ 03 ㉤ 04 ㉥ 05 가까운 것에서 먼 것으로 대상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06 ㉦ 07 ㉧

- 01 (가)에서 색종이 실험 사례를 보면 학생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색종의 색종이를 가장 쉽게 알아보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름을 붙이기 쉬울수록 정보를 파악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 02 아빠가 말한 ‘통닭’은 오래전부터 기성세대가 사용하던 말인 반면에, 딸이 말한 ‘치킨’은 외래어가 유입되면서 젊은 세대가 ‘통닭’ 대신에 사용하는 말이다. 따라서 ‘통닭’과 ‘치킨’을 통해 연령별로 언어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를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 ‘치킨’과 ‘통닭’은 사회 방언에 해당한다.

㉡ ‘통닭’과 ‘치킨’은 <보기>에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 ‘통닭’이 특정 세대의 생활상을 반영하지만, 전통적인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는 말은 아니다.

㉤ ‘통닭’과 ‘치킨’은 세대에 따른 어휘 사용 양상의 차이를 드러낼 뿐, 둘 다 여전히 쓰이는 말이다.

- 03 가 김치라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식생활이 언어에 반영된 사례이므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다)와 관련이 있다. 나 은 연령, 계층에 따라 ‘강아지’의 표현이 달라지는 현상

을 보여 주므로,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나)와 관련이 있다. 다 은 금기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불쾌함을 덜기 위해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므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가)와 관련이 있다.

➤ 참고 자료

금기어와 완곡어

금기어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하는 말. 관습, 신앙, 질병, 배설 따위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음.
완곡어	말하는 투가,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말.

- 04 이누이트의 언어에 눈에 관한 단어가 많고 호주의 원주민어에 다양한 모래 명칭이 발달한 것에는 각 지역의 기후나 자연환경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을 통해 언어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환경과 문화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5 ❶ 사실형 ㉠ ‘오늘내일’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고 ㉡ ‘내일오늘’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과 더 가까운 대상을 먼저 인식하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보편적인 사고 습관이 언어의 구조와 순서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❷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썼다.	☐
㉠에 담겨 있는 인간의 사고를 밝혀 썼다.	☐

- 06 <보기>는 나라별로 형제자매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의 구분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어는 형제자매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를 구분하며, 부르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어에서는 부르는 사람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남동생을 부를 때 동일하게 ‘弟弟(dìdì)’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 오답 풀이 ❏ ㉠ 여동생을 부를 때, 부르는 사람이 여성이면 ‘동생’이라고 하며, 부르는 사람이 남성일 때는 여동생을 ‘누이’라고 한다.

㉡ 손윗사람인 형제를 부를 때는 ‘哥哥’, 손아랫사람인 형제를 부를 때는 ‘弟弟’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어는 형제자매의 나이에 따라 형제자매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를 구분한다.

㉢ 한국어에서는 형제자매의 성별, 나이, 부르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 형제자매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를 구분한다. 이러한 어휘의 구분에는 형제자매 간에도 성별과 상하 관계를 구분하는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 영어에서는 형제자매의 성별에 따라서만 형제자매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를 구분하므로, 부르는 사람의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형제는 ‘brother’라고 부르고 자매는 ‘sister’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아우와 누이

아우	-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형렬이 같은 남자들 사이에서 손아랫사람을 이르는 말. - 주로 남동생을 이룰 때 씀.
누이	-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형렬이 같은 사이에서 남자가 여자 형제를 이르는 말. - 흔히 손아래인 여자를 이름.

07 '미역국을 먹다'는 집단이나 조직, 단체를 해체하여 없어지게 한다는 의미의 '해산(解散)'이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표현이다. 지금은 '시험에서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이 표현에 무력에 대한 저항이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군대의 해산은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산(解散)'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해산(解散)'이 금기어였음을 알 수 있다.

② '해산(解散)'과 '해산(解産)'은 발음이 같을 뿐 의미는 전혀 다른 동음이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④ '미역국을 먹다'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관용어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미역국을 먹다'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⑤ 시간이 흐르면서 '미역국을 먹다'가 시험에서 떨어진다는 의미로 변화하였으므로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탐구

담화 관습과 의사소통 문화

본책 017~020쪽

확인 문제

01 담화 관습 02 ④ 03 ③ 04 ④ 05 ④ 06 아들, 방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지 않니?

01 **새술형** 개인은 가족, 학교, 지역, 국가 등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 이러한 공동체 중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언어 공동체라고 한다. 언어 공동체는 세대, 성별, 직업, 지역, 다문화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언어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담화 관습은 여기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02 우리말의 담화 관습 중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너무 솔직하거나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 ① 우리말의 담화 관습 중 완곡 표현, 즉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②, ⑤ 우리말의 담화 관습 중 겸양 표현, 즉 겸손하게 말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겸손하게 말하기는 상대방과의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사회적 질서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③ 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전제와 금기 등과 관련이 있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03 <보기>에서 '학생'은 자신을 칭찬하는 '교사'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이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인 겸손하게 말하기에 해당하는 예이다.

04 <보기>에서 '고객'은 맛이 없는 음식을 거절하기 위해 입맛이 없다고 돌려 말하고 있다. 이는 '직원'이 상처받을 것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인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에 해당하는 예이다.

05 다른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라도 그 담화 관습이 바람직하다면 개방적인 태도로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런 비판이나 검증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는 오히려 위험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06 **새술형** '엄마'의 '이제 그만하고 청소해!'는 아들이 스마트폰을 그만 보고 청소했으면 한다는 엄마의 바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부드럽게 돌려 말한다면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거나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아 눈이 아플 것 같다거나 하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엄마의 말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려 표현했다.	☐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돌려 표현했다.	☐

탐구

활동 학습

본책 021~022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⑤

01 <보기>의 속담은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 '아무리 비밀히 한 말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으로 말조심과 관련이 있다.

02 면접관의 말로 보아 면접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두 지원자 모두 면접관에게 예의를 지키며 말하고 있으며, 여성 지원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남성 지원자는 자신의 자격증과 실무 경험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여성 지원자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은 겸손함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지 실제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④ 남성 지원자는 면접관에게 자신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 궁금하다면 뽑아 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채용을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⑤ 남성 지원자는 면접관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어 면접에서 자기를 뽑아 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 면접관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을 뽑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03 한국에서는 한쪽에서 말하는데 다른 쪽에서 말을 자르는 경우 예외에 어긋난다고 본다. 이는 한국의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중재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말이 정리가 된다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04 언어 공동체에는 그 언어 공동체만의 고유한 담화 관습이 있고 이를 어느 쪽이 우등하거나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하는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순서와 예의를 지키며 말하는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다. 한편 각각의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각각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모단원 평가 문제

본책 023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③ 05 ⑤

01 한 사람은 세대, 성별, 직업, 다문화 등 다양한 언어 공동체에 속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언어 공동체에만 속한다고 할 수 없다.

02 <보기>에서 '여성'은 '남성'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어 같이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아 한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저녁 식사 생각이 없다며 부드럽게 돌려 말하며 '남성'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여성'은 '남성'의 질문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돌려 대답하고 있으므로 대화의 주제를 전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여성'은 예의를 갖추어 말하고 있으나, 자신을 낮추어 말하고 있지는 않다.

③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날로 약속을 잡고 있지는 않다.

④ '여성'은 부드럽게 돌려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03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라는 뜻이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는 말을 삼가야 한다.'라는 뜻이다. 이 속담들은 공통적으로 신중하게 말하기와 관련된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보여 준다.

04 '윤희'는 여러 권의 책을 들고 가는 '찬희'를 보고 도와주려고 했으나 '찬희'의 '일없어.'라는 대답을 듣고 '할 일이 없다.'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어휘 차이에서 오는 이질화로 상대방이 속한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고려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상황으로 보아 '윤희'가 '찬희'가 들고 가는 책을 나누어 들려고 '도와줄까?'라고 물은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찬희' 입장에서는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표현한 것이므로 이를 '윤희'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대답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서로 말을 놓고 편하게 대화하는 것으로 보아 친분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⑤ '찬희'는 '윤희'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엉뚱한 대답이라고 볼 수 없다.

05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는 지원자들이 면접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거나 마지막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말을 하고 싶을 경우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여성 지원자'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함으로써 자신을 뽑아 달라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남성 지원자'는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면접관에게 자신을 뽑아 달라고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024~025쪽

01 ⑤ 02 ① 03 손님, 화장실, 교도소, 개발 도상국 04 ③
05 ③ 06 ① 07 ⑤ 08 ② 09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도 자유롭게 끼어들어 말한다.

01 언어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언어가 한 번 형성되었다고 해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언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02 언어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언어를 지역 방언이라고 하는데, '새우'를 지역에 따라 '새뱅이, 새비, 새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언어는 연령, 성별, 계층, 직업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

| 오답 풀이 | ② '오늘내일'이 '내일오늘'보다 자연스러운 까닭은 가까운 것에서 먼 것으로 표현하려는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무지개 색을 일곱 빛깔이라고 하거나 두 가지나 다섯 가지로만 구별하는 것은 정보나 지식을 파악하는 데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④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의 언어에 눈에 관한 단어가 많은 것이나, 바다로 둘러싸인 호주의 원주민어에 다양한 모래 명칭이 발달한 것은 언어가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 ⑤ 우리말에서 '모', '벼', '쌀', '밥'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우리 문화가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03 **새술형** 우리말에서는 관습적으로 금기시되는 말을 부드러운 말로 돌려 말하곤 한다. 이는 언어와 사고가 상호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한다.

04 1990년대의 인구 정책 포스터의 내용은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궁 시켜 주나요? - 아들 바람 부모 세대 / 짝궁 없는 우리 세대'이고, 포스터 그림에는 남학생들끼리 짝궁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로 보아 지속된 남아 선호 사상으로 남학생들끼리만 짝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포스터의 내용을 짝궁 없이 혼자 앓는 것이 인기였다고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 오답 풀이 |** ① 아들만 바랐던 부모 세대로 인해 여자 짝궁을 만나지 못하는 남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성비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부모 세대가 아들만 바랐다는 점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2000년대의 포스터에는 임부를 끌어 안고 있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또한 문구는 '아이는 미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이므로 출산을 장려하는 포스터임을 알 수 있다.
- ⑤ 포스터의 모습으로 보아 임부를 안고 있는 여자아이가 첫째이고, 엄마인 임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저출산 현상으로 둘째 이상 낳기를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보기>는 한국에서 먹는 다양한 김치의 종류를 그림과 명칭으로 표기한 것이다. <보기>에 제시된 종류 외에도 한국에는 다양한 김치 종류가 있는데, 이를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게 발달한 것은, 김장 문화가 발달된 한국의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 오답 풀이 |** ① 한국에서 김장을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담그는 것은 맞지만, <보기>에는 김장을 담글 때 사용하는 다양한 채소의 명칭만 나와 있을 뿐 김장을 담그는 시기는 나와 있지 않다.
- ② <보기>의 그림만으로 지역마다 즐겨 먹는 김치를 확인할 수 없다.
- ④ 김치의 장점이지만, <보기>의 그림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 ⑤ 한국에서 농경 문화와 관련된 용어가 발달된 것은 맞으나, <보기>는 김장과 관련된 용어이지 벼농사와 관련된 용어가 아니다. 벼농사와 관련된 용어로는 '모', '벼', '쌀', '밥' 등이 있다.

06 <보기>에서 '친구 1'은 '친구 2'에게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건네면서도 변변치 않다며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변변하다'는 '제대로 갖추어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이라는 점에서 '친구 1'이 준비한 선물은 결코 변변치 않은 선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 오답 풀이 |** ② '친구 1'은 자신의 성의라며 '친구 2'가 선물을 받아 주기를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 ③ '친구 1'은 '친구 2'에게 선물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준비한 선물을 건네고 있다.
- ④ '친구 2'는 선물을 주는 '친구 1'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 ⑤ '친구 2'는 선물이 마음에 든다고 밝히고 있으며, 고맙다는 감사의 말 역시 전하고 있다.

07 <보기>의 (나) 상황에서 '한국인'이 식당 주인에게 '이모'라고 부르는 것은, 식당 주인을 친근하게 부르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친척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다. '외국인'은 이러한 한국인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당 주인이 친척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 | 오답 풀이 |** ① '외국인'은 '이모'의 사전적인 의미인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으므로 (나)와 같이 반응한 것이다.
- ② (가)에서 '외국인'은 '한국인'의 말을 알아듣고 '이모'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외국인'이 인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 ③ 식당 주인에게 '이모'라고 호칭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관습이므로 '한국인'이 적절하지 않은 호칭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 ④ 영어의 'aunt'가 '이모'와 '고모'를 모두 가리키는 것은 맞지만, 이는 <보기>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08 언어와 문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맞지만, 특정한 문화나 특정한 담화 관습이 우월하거나 혹은 열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탈리아에서는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자유로운 반면, 한국에서는 차례를 지켜 말하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의사소통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 | 오답 풀이 |** ① (가)의 실험 결과에서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고, (나)로 보아 언어와 문화가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 ③ (가)로 보아 '다리'를 남성 명사로 보는 스페인 사람들은 그와 어울리는 수식어로 '금문교'를 표현하고, '다리'를 여성 명사로 보는 독일 사람들은 그와 어울리는 수식어로 '금문교'를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가)와 (나)로 보아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한국 등 같은 국가 언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저마다 공통된 가치관과 관습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나)로 보아 토론 중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끼어드는 것이 이탈리아에서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9 **새술형** (나)에서 이탈리아에서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끼어드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 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말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탈리아 사람들의 대화 방식을 정확하게 밝혀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2. 언어의 탐구와 실제

01 발음

탐구 1 표준 발음과 음운 체계

본책 032~037쪽

확인 문제

01 ④ 02 ② 03 ③ 04 ① 05 ① 06 ⑤ 07 ④
08 ②

01 파찰음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릴 때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이다.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즉각적으로 터뜨려 내는 소리는 파열음이다.

| 오답 풀이 | ① 표준 발음법 제2항에 따르면 자음은 ‘ㄱ, ㅋ, ㆁ, ㄷ, ㅌ,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ㅊ, ㅋ, ㅌ, ㅍ, ㅎ’의 19개이다.

② 조음 방법은 자음을 발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며, 자음은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뉜다.

③ 파열음과 파찰음에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구별이 있고, 마찰음에는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구별이 있다.

⑤ 자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양순음), 잇몸소리(치조음), 혀입천장소리(경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 목청소리(후음)로 나뉜다.

02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나눌 수 있다. ‘ㄱ’은 조음 위치에 따라서는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 여린입천장소리이며, 조음 방법에 따라서는 파열음이다.

| 오답 풀이 | ① ‘ㅎ’은 목청소리이자 마찰음이다.

③ ‘ㅅ’은 잇몸소리이자 마찰음이다.

④ ‘ㅇ’은 여린입천장소리이자 비음이다.

⑤ ‘ㄷ’은 잇몸소리이자 파열음이다.

03 표준 발음법 제4항에 따르면 국어의 단모음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가 있으며, 이 가운데 ‘ㅓ’와 ‘ㅕ’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 오답 풀이 | ① 국어의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로 10개이고, 이중 모음은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ㅢ’로 11개이다.

②, ④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모음과 단모음을 이어 발음하는 과정에서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 이와 달리 단모음을 발음할 때에는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⑤ 단모음은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혀의 최고점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입술의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ㅓ’의 발음

‘ㅓ’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ㅘ’와 발음이 동일하다.

예) 과일[과:물/꺄:물]

04 ‘ㅏ’는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위치를 가장 낮추어서 발음하는 모음이므로 저모음에 해당한다.

05 **새소식** 혀의 최고점이 입안의 앞쪽에 위치하는 전설 모음이면 서, 혀의 위치를 높여서 발음하는 고모음이고, 발음할 때 입술을 자연스럽게 펴서 내는 평순 모음은 ‘ㅣ’이다.

06 ‘ㅘ’는 반모음 ‘ㅚ’와 단모음 ‘ㅓ’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며, 나머지는 반모음 ‘ㅟ’와 단모음이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 오답 풀이 | ① ‘ㅘ’는 반모음 ‘ㅟ’와 단모음 ‘ㅏ’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② ‘ㅙ’는 반모음 ‘ㅟ’와 단모음 ‘ㅙ’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③ ‘ㅚ’는 반모음 ‘ㅟ’와 단모음 ‘ㅚ’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④ ‘ㅛ’는 반모음 ‘ㅟ’와 단모음 ‘ㅛ’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07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ㄴ’은 [ㄴ]로 발음한다. 따라서 ‘무늬’는 [무니]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③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각각 [저, 쨌, 처]로 발음한다. 따라서 ‘가져와’는 [가져와], ‘가르쳐’는 [가르쳐]로 발음한다.

② 관형격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나의’는 [나에]로 발음할 수 있다.

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지 않은 ‘ㄴ’은 단어의 첫음절에서 [ㄴ]로 발음하므로 ‘의견’은 [의견]으로 발음한다.

08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를 뜻하는 ‘말(言)’은 음절을 길게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말과의 포유류를 뜻하는 ‘말(馬)’은 짧게 발음하며, 또한 말소리의 길이는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구별된다.

③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를 뜻하는 ‘눈(雪)’은 길게 발음해야 한다. 단, 말소리의 길이는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구별되므로 ‘함박눈’의 ‘눈’은 짧게 발음한다.

④ 해가 저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을 뜻하는 ‘밤(夜)’은 짧게 발음한다.

⑤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뜻하는 ‘눈(眼)’은 짧게 발음한다.

본책 038~039쪽

탐구 1 활동 학습

01 ② 02 ⑤ 03 ③ 04 ④ 05 ④ 06 웬만하면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오늘은 웬지 밖에 나가기 싫다.

01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ㅘ’와 ‘ㅙ’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지만, 표준 발음법에서는 ‘ㅘ’와 ‘ㅙ’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ㅘ’와 ‘ㅙ’가 오랜 기간 별개의 단모음으로서 그 지위가 확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국어의 전통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현실 발음에서는 모음의 장단이 정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음의 장단은 이전부터 오랜 기간 구별되어 왔으며 단어의 의미 변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서는 모음의 장단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두었다.

③, ⑤ ‘니, 귀’를 단모음과 이중 모음 모두로 발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이중 모음 ‘니’의 여러 발음을 허용한 것 등 하나의 단어에 원칙 발음과 허용 발음이 공존하게 된 것은, 실제 발음에서 보이는 다양한 발음상의 변이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표준 발음법에서는 실제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하도록 하였다. 즉 전통성과 합리성에 위배된다면 실제 나타나는 발음이라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02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지 않은 ‘니’는 첫음절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니]로 발음하지만 [니]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정의’는 [정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참고 자료

단모음 ‘이’로 발음되는 이중 모음 ‘니’

이중 모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 모음이 아닌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표기된 ‘의’는 [니] 이외에 [이]로 발음하는 것도 인정한다. 그래서 ‘주의’와 같은 단어는 [주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이]로 발음해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03 <보기>는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의 의의]로 읽는다. 다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지 않은 ‘니’는 첫음절이 아닌 경우 [니]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며, 관형격 조사 ‘의’는 [니]로 발음하되 [네]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의’는 [민주주의의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민주주의에], [민주주의의]로도 읽을 수 있다. 또한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지 않은 ‘니’는 첫음절이 아닌 경우 [니]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의의’는 [의의]뿐만 아니라 [의이]로도 읽을 수 있다. ③은 ‘의의’를 [이이]로 잘못 발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 ‘껍질째로’는 모음의 발음을 혼동한 경우가 아니라 자음의 거센소리인 ‘ㄷ’과 된소리인 ‘ㅌ’를 혼동한 경우이다. ‘껍질째로’가 아니라 ‘껍질째로’가 올바른 발음과 표기이다.

05 나무를 커서 넓고 얇게 만든 판을 뜻하는 ‘널판지’를 ‘널판지’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널판지’가 올바른 표기이다.

| 오답 풀이 | ① ‘주꾸미’가 올바른 표기이다.

② ‘뿌리째’가 올바른 표기이다.

③ ‘어차피’가 올바른 표기이다.

⑤ ‘먼지떨이’가 올바른 표기이다.

06 **새선행** 이중 모음 ‘내’와 ‘네’의 발음을 혼동하여 ‘웬지’를 ‘웬지’로 잘못 표기하거나 ‘웬만하다’를 ‘웬만하다’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평가 기준	확인 ☒
‘웬만하면’을 ‘웬만하면’으로 바르게 고쳐 썼다.	☐
‘웬지’를 ‘웬지’로 바르게 고쳐 썼다.	☐

탐구 2 표준 발음과 음운 변동

본책 040~047쪽

★ 확인 문제

- 01 ③ 02 ⑤ 03 ① 04 ④ 05 ① 06 ④ 07 ②
08 ② 09 ㉢: 탈락, 자음군 단순화, ㉣: 교체, 된소리되기
10 ② 11 ② 12 ②

01 음운 변동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인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인 ‘탈락’, 두 음운이 합해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인 ‘축약’,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인 ‘첨가’가 있다.

02 된소리인 ‘ㄱ’과 ‘ㅈ’이 받침으로 오면 ‘깁대[깁따]’, ‘있대[임따]’와 같이 ‘ㄱ, ㄷ’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그러나 나머지 된소리인 ‘ㅌ, ㅍ, ㅊ’은 받침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⑤의 ‘된소리 5개가 받침으로 올 때’라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제8항에서 받침으로 발음되는 자음을 보면 비음 ‘ㄴ, ㄹ, ㅇ’과 유음 ‘ㄹ’이 모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파열음에서 예사소리는 ‘ㄱ, ㄷ, ㅂ’이고, 거센소리는 ‘ㅋ, ㅌ, ㅍ’, 된소리는 ‘ㄱ, ㄷ, ㅌ’이다. 이중 예사소리만 받침소리로 발음된다.

③ 제8항으로 보아 받침으로 발음되는 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이지만, 제9항에서 보면 이 외의 소리들도 받침으로 올 수 있다. 따라서 단어의 받침으로 오는 자음은 7개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

④ 제8항과 제9항으로 보아 ‘부엌[부엌], 뱀[뱀], 각[각]’처럼 각 단어의 받침은 모두 다르더라도 대표음인 [ㄱ]으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03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짚’은 [집]으로 발음되며, ②, ③, ④, ⑤는 각각 [넌], [단], [뭉], [반]으로 발음된다.

04 ‘굳이’는 ‘ㄷ’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ㄷ’이 ‘ㅌ’으로 바뀌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된 것이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낮이’는 [나치]로 발음되는데 받침 ‘ㅌ’이 그대로 연음된 것이다.

② ‘먹는’은 [멍는]으로 발음된다. ‘ㄴ’ 앞에서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었으므로 비음화에 해당한다.

③ ‘신라’는 [실라]로 발음되므로 유음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⑤ ‘꽃다발’은 ‘꼇다발’ → [꼇따발]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나타난 것이다.

05 '인력'은 'ㄹ'의 앞에 있는 'ㄴ'이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나 [일력]으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② '집념[집념]'은 비음화, ③ '달나라[달라라]'는 유음화, ④, ⑤ '해돋이[해도지]'와 '금불이[금부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06 '굉한루[굉:할루]'는 발음할 때 둘째 음절의 끝소리 'ㄴ'이 뒤 음절의 첫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 나머지 단어들은 모두 발음할 때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 오답 풀이 | ① '담는'은 '담'의 받침 'ㄷ'이 뒤에 오는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어 [단느]으로 발음된다.

② '장려'는 '장'의 받침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이 [ㄴ]으로 바뀌어 [장:녀]로 발음된다.

③ '국물'은 '국'의 받침 'ㄱ'이 'ㅁ'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궁물]로 발음된다.

⑤ '공신력(공신+력)'은 'ㄴ'과 'ㄹ'이 다른 형태소에 속하면서 앞의 형태소가 자립성을 지니므로 비음화가 일어나 [공신녁]으로 발음된다.

07 한자어에서 끝소리 'ㄹ' 뒤에 이어지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그러나 같은 한자어라 하더라도 끝소리 'ㄹ' 뒤에 이어지는 'ㄱ, ㅂ'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으므로 '발부(發付)'는 표기대로 [발부]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① '젊고'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참:꼬]로 발음된다.

③ '발전'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발쩍]으로 발음된다.

④ '갑자기'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갑짜기]로 발음된다.

⑤ '걷다가'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걷:따가]로 발음된다.

08 '억다'의 쌍받침 'ㅂ'은 자음 앞에서 대표음 [ㄱ]으로 바뀐 뒤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억따]로 발음된다. 즉 자음군 단순화가 아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 오답 풀이 | ① '뿔'은 겹받침 'ㅂ' 중 'ㅅ'이 탈락해 [뿔]으로 발음된다.

③ '여덟'은 겹받침 'ㅂ' 중 'ㅂ'이 탈락해 [여덜]로 발음된다.

④ '진흙'은 겹받침 'ㄹ' 중 'ㄹ'이 탈락해 [진흑]으로 발음된다.

⑤ '넙둥글다'는 겹받침 'ㅂ' 중 'ㄹ'이 탈락한 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넙뚱글다]로 발음된다.

09 **ㅅ술형** '맏다'가 '막다'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겹받침 'ㄹ' 중 'ㄹ'이 탈락하고 'ㄱ'만 남으므로, ㉠에는 탈락과 자음군 단순화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막다'는 다시 [막따가]로 발음되는데, 끝소리 'ㄱ' 뒤에 이어지는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에는 교체와 된소리되기가 들어가야 한다.

10 '쌍애[싸아]', '많이[마:니]'는 어간의 끝소리 'ㅎ(ㅅ)'이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접미사 '-이'를 만나 탈락하는 ㅎ 탈락이 일어난다.

| 오답 풀이 | ① '좋고'와 '놓기'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각각 [조:코]와 [노:키]로 발음된다.

③ '놓은'은 ㅎ 탈락이 일어나 [노은]으로 발음되고, '달고'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달코]로 발음된다.

④ '좋아'는 ㅎ 탈락이 일어나 [조:아]로 발음되고, '어떻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어떡케]로 발음된다.

⑤ '맞히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마치다]로 발음되고, '노랗다'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노:라타]로 발음된다.

11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따라서 '숨이불'은 [숨:니불]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① '서울역'은 ㄴ 첨가와 유음화가 일어나 [서울력]으로 발음된다.

③ '소독약'은 ㄴ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나 [소동낙]으로 발음된다.

④ '집안일'은 ㄴ 첨가와 일어나 [지반닐]로 발음된다.

⑤ '한여름'은 ㄴ 첨가가 일어나 [한녀름]으로 발음된다.

12 '싫어서'는 'ㅅ'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된 경우이므로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이처럼 ㅎ 탈락이 일어난 것은 맞으나 [시러서]로 최종적으로 발음되는 것은 연음 현상에 의한 것이지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어떡해'는 [어터케]로 발음되므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③ '우는'은 어간 '울-'과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는'이 만나 ㄹ이 탈락한 것이다.

④ '굵길'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앞의 자음 'ㄹ'이 탈락하여 [궁길]로 발음된다.

⑤ '없잖아'에서 '없-'의 겹받침 'ㅂ'은 자음군 단순화로 앞의 'ㅂ'만 소리 나며, 'ㅂ' 뒤에 'ㅈ' 소리가 이어지므로 'ㅈ'은 된소리 [ㅈㅈ]으로 발음된다. 또한 '잖-'의 받침 'ㅅ'은 어미 '-아'와 만나 ㅎ 탈락이 일어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업:짜나]로 발음된다.

탐구 2 활동 학습

본책 048~049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② 05 ⑤

01 '슬픈 얘기'는 ㄴ 첨가가 일어나 [슬픈네기]로 발음된다. '옳다'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옴따]로 발음된다.

참고 자료

소리의 측면에서 ㄴ이 첨가되는 조건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이때, 소리의 측면에서는 이중 모음의 종류가 '야, 여, 요, 유'로 국한되지 않고 '애, 예'와 같이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모든 이중 모음 앞에서 'ㄴ'이 첨가된다.

예 종합 예술 → [종합네술]

오답원 평가 문제

01 ④ 02 ⑤ 03 통채로 → 통째로, 깨끗히 → 깨끗이
04 ③ 05 ② 06 ③ 07 ③ 08 ④ 09 ① 10 ③
11 '색연필'은 ㄴ 첨가가 일어나 '색년필'이 되고, 이어서 비음화가 일어나 최종적으로 [생년필]로 발음된다. 12 ⑤ 13 ④

02 <보기>의 '박하사탕'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바카사탕]으로 발음된다. ④의 '좋다' 역시 'ㅎ'과 'ㄷ'이 결합하여 거센소리 'ㅌ'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조타]로 발음된다.

- | 오답 풀이 |** ① '맑아서'는 ㅎ 탈락이 일어나 [마나서]로 발음된다.
② '곡물'은 비음화가 일어나 [궁물]로 발음된다.
③ '걸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거치]로 발음된다.
⑤ '피붙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피부치]로 발음된다.

03 '물난리'는 유음화가 일어나 [물랄리]로, '수확량'은 비음화가 일어나 [수향량]으로, '감수하였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감수하엿따]로 발음된다. 그러나 이러한 음운 변동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물난리', '수확량', '감수하였다'로 적는다.

- | 오답 풀이 |** ① '유기물이 부패 세균에 의하여 분해됨으로써 원래의 성질을 잃어 나쁜 냄새가 나고 형체가 뭉개지는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를 지닌 것은 '썩다'이다. 따라서 '썩는'을 '썩는'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③ '구지'의 올바른 표기는 '굳이'이다. '굳이'가 구개음화에 의해 [구지]로 발음된다.
④ '하루의 영업이 끝나다.'의 의미를 지닌 것은 '달하다'이다. 따라서 '달쳤을'을 '달혔을'로 고쳐 써야 한다.
⑤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ㄴ'은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빠'를 '바'로 고쳐 써야 한다.

04 '꺼억'은 앞 음절의 끝소리 'ㄱ'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되어 [꺼꺼]로 발음된다. 이때, 발음되는 위치만 바뀔 뿐 음운 자체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연음 현상은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오답 풀이 |** ①, ⑤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된 경우로, 뒤엿것만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달글'은 [달글]로 발음해야 한다. 다만 겹받침 중 뒤엿것이 'ㅅ'인 경우에는 'ㅅ'을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뿔글'은 [뿔글]로 발음해야 한다.
③ 받침 뒤에 모음 'ㅏ'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된 경우로, 'ㅌ'을 대표음 [ㄷ]으로 바꾼 뒤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술 안'은 [소단]으로 발음해야 한다.
④ 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된 경우로, 'ㄷ'을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꽃에'는 [꼬체]로 발음해야 한다.

05 '직행열차'는 거센소리되기와 ㄴ 첨가가 일어나 [지깡널차]로 발음된다. 즉 발음할 때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 | 오답 풀이 |** ①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따라서 공깃밥은 [궁기뽕/궁깡뽕]으로 발음된다.
②, ③, ④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따라서 봄비, 문고리, 신바람은 각각 [봄뽕], [문고리], [신뽕바람]으로 발음된다.

01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말미암아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다. 이 개념을 적용하여 <보기>의 고유어에서 찾을 수 있는 최소 대립쌍은 '구실 - 구슬', '쉬리 - 소리', '마루 - 머루', '모래 - 모레'이다. 그러나 ④ '마루-모래'는 모음 'ㅏ'와 'ㅓ' 및 모음 'ㅜ'와 'ㅡ'처럼 두 개의 소리가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으로 볼 수 없다.

02 '자꾸'의 'ㅈ'은 파찰음, 예사소리, 쉼입천장소리이다. 'ㅈ'은 파열음, 된소리, 여린입천장소리이다. 따라서 '자꾸'에는 거센소리가 쓰이지 않았다. '소화'의 'ㅅ'은 마찰음, 예사소리, 잇몸소리이고, 'ㅎ'은 마찰음, 목청소리이다. 따라서 '소화'에도 거센소리가 쓰이지 않았다.

- | 오답 풀이 |** ① '부모', '자꾸', '소화'에는 유음인 'ㄹ'이 사용되지 않았다.
② 입술소리는 'ㅂ, ㅍ, ㅃ, ㅍ'으로 세 단어 중에서 '부모'에만 쓰였다.
③ 파열음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즉각적으로 터뜨려 내는 소리로 'ㅂ, ㄷ, ㄱ, ㅍ, ㅌ, ㅋ, ㅃ, ㅆ, ㅈ'을 이른다. '부모'에 'ㅂ'이, '자꾸'에 'ㅈ'이 쓰였다.
④ 목청소리는 'ㅎ'을 가리킨다. '소화'에는 'ㅎ'이 있으나 '부모'에는 없다.

03 **새소형** '통채로'는 거센소리 'ㄷ'과 된소리 'ㅈ'의 발음을 혼동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통째'는 '통'에 '그대로',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째'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명사이다. 따라서 '통째'에 조사 '로'를 붙여 쓸 경우 '통째로'라고 써야 한다. '깨끗이'는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소리 나는 경우이므로 '-이'로 적어야 한다.

04 '여기'와 '과거'에 쓰인 모음 중 'ㅣ'와 'ㅏ'는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 모음이다. 반면, 'ㅣ'와 'ㅓ'는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단모음이다.

05 우리말에서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은 감각 기관인 '눈'을 의미하므로 짧게 발음하고, ㉡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의미하므로 길게 발음한다. 소리의 장단은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구별되고,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항상 짧게 발음되므로, ㉢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의미하지만 짧게 발음한다.

06 연음 현상은 ‘입에’가 [이베]로 발음되는 것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발음되는 것을 말한다. 연음 현상은 음운 자체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음운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

07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현상 등이 있다. ‘국화’의 표준 발음은 [구과]로, 앞 음절의 끝소리 ‘ㄱ’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 ‘ㅎ’과 만나 ‘ㄱ’으로 줄어드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 오답 풀이 | ① ‘갓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에 따라 [가꺄/간꺄]로 발음된다.

② ‘같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가치]로 발음된다.

④ ‘갓는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에 따라 [간는다]로 발음된다.

⑤ ‘광안리’는 유음화가 일어나 [광알리]로 발음된다.

➤ 참고 자료

‘갓길’의 표준 발음

사이시옷은 [ㄷ]으로 발음하는 경우와 사이시옷을 발음하지 않는 경우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되, 발음하지 않는 쪽을 원칙으로 삼고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즉 ‘갓길’의 경우 [가꺄]가 원칙이고 [간꺄]도 허용하는 것이다.

08 ‘앉히는’은 ‘ㅈ’과 ‘ㅎ’이 결합하여 거센소리 ‘ㅊ’으로 줄어드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나 [안치는]으로 발음된다. 나머지는 발음 과정에서 ‘ㄷ, 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ㄷ, ㅌ’이 [ㅈ, ㅊ]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 오답 풀이 | ① ‘끝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꼬치]로 발음된다.

② ‘잔디밭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잔디바치]로 발음된다.

③ ‘미담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미다지]로 발음된다.

⑤ ‘검힌’은 구개음화가 일어나 [거친]로 발음된다.

➤ 참고 자료

‘ㄷ’과 접미사 ‘히’가 만나는 경우의 발음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이 경우 먼저 ‘ㄷ’과 ‘히’의 ‘ㅎ’이 [티]으로 축약되는데, 이는 ‘티’ 뒤에 ‘ㅣ’가 결합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치]이 된다.

09 겹받침 ‘ㄹ’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된다. 또한 받침 ‘ㄱ’ 뒤에 오는 ‘ㄷ’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굶다’는 [국:따]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② 겹받침 ‘ㄹ’은 일반적으로 [ㄱ]으로 발음되지만, 용언의 어간 끝소리 ‘ㄹ’이 ‘ㄱ’ 앞에 올 때에는 [ㄹ]로 발음된다. 따라서 ‘맑고’는 [말꼬]로 발음된다.

③, ⑤ 겹받침 ‘ㅃ’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보통 [ㄹ]로 발음되지만, 동사 어간 ‘뵤-’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에는 [ㅃ]으로 발음되고, ‘뵤-’이 포함된 복합어에서도 [ㅃ]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뵤다’는 [뵤:따], ‘뵤적한’은 [뵤찌칸]으로 발음된다.

④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겹받침 가운데 뒤엿것만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때 뒤엿것이 ‘ㅅ’이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없이’는 [업:씨]로 발음된다.

10 ‘햇웃음[허두슴]’은 ‘햇’의 끝소리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되고, ‘웃’의 끝소리 ‘ㅅ’은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다. 따라서 ‘햇웃음’을 발음할 때는 한 가지의 음운 변동 현상만 일어난다.

| 오답 풀이 | ① ‘공권력’은 된소리되기와 비음화가 일어나 [공뀐력]으로 발음된다.

② ‘서울역’은 ㄴ 첨가와 유음화가 일어나 [서울력]으로 발음된다.

④ ‘지신밧기’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지신밧끼]로 발음된다.

⑤ ‘호젓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에 따라 [호저타다]로 발음된다.

11 **새술형** ‘색연필’은 받침 ‘ㄱ’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음절이 이어지면서 ㄴ 첨가가 일어나 ‘색년필’이 된다. 이후 비음 ‘ㄴ’의 영향으로 앞의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생년필]로 발음된다.

평가 기준	확인 ☑
‘색연필[생년필]’이 발음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썼다.	☐
‘색연필[생년필]’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순서대로 밝혀 썼다.	☐

➤ 참고 자료

‘색연필’의 발음

‘색연필’을 [새견필]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틀린 발음이다. 연음은 받침을 가진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적용되는데, 합성어인 ‘색연필’의 ‘연필’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연음이 적용되지 않는다.

12 합성어인 ‘눈인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로 시작하기 때문에 ‘ㄴ’이 첨가되는 환경을 충족하지만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이다. 따라서 [누닌사]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물약’은 ㄴ 첨가에 따라 ‘물낙’이 되고, 이어서 유음화가 일어나 [물락]으로 발음된다. ‘소독약’은 ㄴ 첨가에 따라 ‘소독낙’이 되고, 이어서 비음화가 일어나 [소동낙]으로 발음된다.

④ ‘기념일’은 ‘ㄴ’이 첨가되는 환경을 충족하지만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로 [기녀밀]로 발음된다.

13 ④ ‘맑아’는 받침 ‘ㄹ’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제12항 4.에 의해 [마:나]로 발음한다. 제12항 3. [붙임]에 해당하는 예로는 ‘얹네[안네]’ 등을 들 수 있다.

2 단어

탐구 1 단어의 분류와 특성

본책 055~063쪽

* 확인 문제

- 01 ② 02 ④ 03 ② 04 ③ 05 ④ 06 ③ 07 ④
08 ② 09 ④ 10 ③ 11 ⑤ 12 ② 13 ③ 14 ⑤

01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그런데 ②의 문장 ‘저 공책은 내 동생의 것이다.’에서 ‘저’는 뒤에 오는 ‘공책’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언(관형사)에 해당하므로 체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비행기’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③ ‘권’은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의존 명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④ ‘그것’은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⑤ ‘첫째’는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02 ‘시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므로 고유 명사이고, ‘나무’는 공통된 특성을 지닌 대상에 두루 붙이는 이름인 보통 명사이다. 그리고 ‘저기’는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고유 명사는 ‘영희’가 쓰였고, 보통 명사로 ‘오늘’, ‘교실’, ‘책’이 쓰였으나 대명사는 쓰이지 않았다.

② 보통 명사로 ‘집’, ‘키’, ‘사람’, ‘막내’가 쓰였고, 대명사로 ‘우리’가 쓰였으나 고유 명사는 쓰이지 않았다.

③ 보통 명사로 ‘선생님’이 쓰였고, 대명사로 ‘저분’, ‘제’가 쓰였으나 고유 명사는 쓰이지 않았다.

⑤ 보통 명사로 ‘어머님’, ‘존재’가 쓰였고, 대명사로 ‘내’, ‘당신’이 쓰였으나 고유 명사는 쓰이지 않았다.

03 <보기>에서 ‘삼’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가 아니라 뒤에 오는 체언인 의존 명사 ‘년’을 꾸미고 있는 관형사로 수 관형사에 해당한다.

04 ‘이렇게 멋진 글을 쓴 사람은 누구니?’에서 ‘누구’는 의문문에 쓰여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르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미지칭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부정칭 ‘누구’가 쓰였다.

④, ⑤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르는 상황에서 미지칭 ‘누구’가 쓰였다.

05 ① ‘와’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며, ⑤ ‘가’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주어의 자격을 갖도록 해 주는 주격 조사이다. ③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즉 ④는 접속 조사, ⑥는 격 조사, ⑦은 보조사에 해당한다.

06 ‘끓고’의 기본형인 ‘끓다’는 ‘액체가 몹시 뜨거워져서 소리를 내면서 거품이 솟아오르다.’라는 뜻의 자동사이다. 그러므로 ‘국이 끓다.’처럼 목적어 없이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문장이 성립한다.

| 오답 풀이 | ① ‘먹는다’의 기본형인 ‘먹다’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뱃속에 들여보내다.’라는 뜻의 타동사이다.

② ‘널어’의 기본형인 ‘널다’는 ‘사이에 어떤 것을 끼우거나 위에 어떤 것을 입혀 서로 어우러지게 하다.’라는 뜻의 타동사이다.

④ ‘주워다’의 기본형인 ‘줍다’는 ‘바닥에 떨어지거나 흩어져 있는 것을 집다.’라는 뜻의 타동사이다.

⑤ ‘주었다’의 기본형인 ‘주다’는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라는 뜻의 타동사이다.

07 보조사 ‘는’은 문장에서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거나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거나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영수는’이 주어라고 해서 무조건 주격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격 조사에는 ‘이/가’가 있다.

| 오답 풀이 | ① 뒤의 문장에 쓰인 ‘영희와’의 ‘와’는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이 외에도 ‘와’가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 또는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도 격 조사이다.

② 앞 문장에 쓰인 ‘영희와’의 ‘와’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이때 ‘와’는 경우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며, 생략된 자리에는 심표를 찍는다.

③ ‘를’은 동작이 미친 직접적 대상을 나타내거나 행동의 간접적인 목적물이나 대상임을 나타내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격 조사이다. 다만, ‘너는 어찌자고 혼자 시장을 갔니?’처럼 일부 부사에 붙어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이때 조사 ‘를’을 없애도 문장이 성립하면 보조사로 쓰인 것이다.

⑤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거나 양보하여도 마찬가지로 허용됨을 나타내는 등의 보조사이다.

08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로 ‘-시-’, ‘-았/었-’ 등이 있다. 반면, ‘-고’는 단어의 끝에 오는 어말 어미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이어 주는 연결 어미에 해당한다.

09 ‘치르다’는 ‘치르-+-어 → 치리’와 같이 활용하는데, 여기서 ‘-’가 탈락한다. 이것은 일정한 환경에서 예외 없이 ‘-’가 탈락하는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반면 ‘흐르다’는 활용할 때 ‘흐르-+-어 → 흘리’와 같이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르’가 ‘ㄹ’ 형태로 변하는 ‘르’ 불규칙 활용이므로 ①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낫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ㅅ’이 탈락하는 ‘ㅅ’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② ‘엷든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뀌는 ‘ㄷ’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③ ‘하다’는 어간 ‘하-’ 뒤에 어미 ‘-아’ 대신에 ‘-여’가 붙는 ‘여’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⑤ ‘하얗다’는 ‘ㅎ’으로 끝나는 어간 ‘하얗-’에 어미 ‘-아’가 올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해 ‘하애’가 되는 ‘ㅎ’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10 '싫다'는 보조 형용사이고, '보다'는 보조 동사이다. 이들은 다른 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용언으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본용언) 뒤에 붙어서 사용된다.

| 오답 풀이 | ①, ② 보조 형용사 '싫다'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는/ㄴ-'이 결합할 수 없다. 반면, 보조 동사 '보다'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이 결합할 수 있다.

④, ⑤ 보조 용언은 다른 용언 뒤에 붙어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다'는 '시도', '싫다'는 '희망'과 같은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낸다.

11 ㉠, ㉢, ㉣는 모두 관형사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언으로 기능한다. 문장에서 주성분으로 쓰이는 것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 오답 풀이 | ① ㉠는 '신발장'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지시 관형사이다.

② ㉢는 '신발'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성상 관형사이다.

③ ㉣는 신발의 수량이라는 수 개념을 나타내므로 수 관형사이다.

④ ㉠, ㉢, ㉣가 각각 꾸미고 있는 '신발장', '신발', '컬레'는 모두 명사로 체언에 속한다.

12 <보기>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부사'이다. ②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에 쓰인 품사를 살펴보면, '꽃'은 명사, '이'는 조사, '아름답게'는 형용사, '피었다'는 동사로, 문장에 부사는 쓰이지 않았다. 이때 '아름답게'는 어간 '아름답-'에 부사형 전성 어미 '-게'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인 말이다.

| 오답 풀이 | ① '매우'는 뒤에 오는 용언 '맵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③ '너무도'는 부사 '너무'에 보조사 '도'가 결합한 부사어로, 뒤에 오는 용언 '아팠다'를 꾸며 주고 있다.

④ '과연'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⑤ '바로'는 뒤에 오는 체언 '당신'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13 '설마'는 부사로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반면 나머지는 모두 관형사로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한다.

| 오답 풀이 | ① '저'는 뒤에 오는 체언 '사람'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이다.

②, ④ '새'와 '온'은 각각 뒤에 오는 체언 '가방'과 '세상'을 수식하는 성상 관형사이다.

⑤ '한'은 뒤에 오는 체언 '친구'의 수를 나타내는 수 관형사이다.

14 <보기>에 쓰인 '왜'는 '무슨 까닭으로, 또는 어째서.'라는 뜻의 부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아이고'는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내는 소리로 감탄사이다.

② '어디'는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여 딱한 사정이 있는 형편을 강조할 때 쓰는 말로 감탄사이다.

③ '네'는 뒷사람의 말을 재우쳐 물을 때 쓰는 말로 감탄사이다.

④ '에이'는 실망하여 단념할 때 내는 소리로 감탄사이다.

+ 참고 자료

'어디'의 품사

'어디'는 '어디 가 볼 데가 있다.'에서와 같이 어느 곳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 대명사이지만, 감탄사로도 쓰인다. '어디 두고 보자.'와 같이 버르거나 다짐할 때, 또는 되물어 강조할 때나 '어디, 네가 이번 시험에서 일 등을 한 학생이냐?'와 같이 남의 주의를 끌 때의 '어디'는 감탄사이다. 또한 '그런다고 어디 가망이 있는 일인가.'와 같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여 딱한 사정이 있는 형편을 강조할 때 쓰는 '어디' 역시 감탄사이다.

본책 064~065쪽

탐구 1 활동 학습

01 ③ 02 ④ 03 ⑤ 04 ④

01 ㉠의 '오늘'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을 뜻하는 부사로, 뒤에 오는 용언 '할'을 꾸며 준다.

| 오답 풀이 | ①, ② ㉠의 '오늘'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을 뜻하는 명사로 문장에서 주로 주어로 쓰이는 체언에 해당한다.

④ ㉠의 '오늘'은 부사로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에 해당한다.

⑤ ㉠의 '오늘'은 부사이므로 관형사와 달리 보조사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도', '오늘은'과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품사의 통용

하나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품사 부류에 속한다. 그런데 두 가지 품사 부류에 소속되고, 사전에서도 두 가지 품사를 지닌 것으로 처리하는 단어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품사의 통용(通稱)'이라고 한다.

02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덧붙여 주는 조사이다. 이때 '은'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며,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는 '까지'이다.

03 <보기>의 '찾다'는 '현재 주변에 없는 것을 얻거나 사람을 만나려고 여기저기를 뒤지거나 살피다. 또는 그것을 얻거나 그 사람을 만나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반면 '아프다'는 '몸의 어느 부분이 다치거나 맞거나 자극을 받아 괴로움을 느끼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따라서 '찾다'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고,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찾다'는 주어에 해당하는 '아이'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② '아프다'는 주어에 해당하는 '발'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③ '찾다'는 동사이므로 관형사형 어미 '-는'을 결합해 '찾는'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아프다'는 형용사이므로 관형사형 어미 '-ㄴ'을 결합해 '아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 의도나 목적을 뜻하는 어미 '-러/려'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예 먹으려, 먹으려(○) → 동사 / 예쁘려, 예쁘려(×) → 형용사

•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또는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예 먹어라, 먹자(○) → 동사 / 예쁘라, 예쁘자(×) → 형용사

04 ④에 쓰인 '떠'는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오르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 오답 풀이 | ①에 쓰인 '사뭇'은 '내내 끝까지.'라는 뜻의 부사이다.

②에 쓰인 '완전'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이.'라는 뜻의 부사이다.

③에 쓰인 '과연'은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주로 생각과 실재가 같음을 확인할 때에 쓴다.'라는 뜻의 부사이다.

⑤에 쓰인 '다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라는 뜻의 부사이다.

탐구 2 단어의 짜임과 의미

본책 066~072쪽

★ 확인 문제

01 ⑤ 02 ③ 03 을, 신-, -고, 뛰-, -었-, -다 04 ④
05 ① 06 ① 07 ⑤ 08 ⑤ 09 ① 10 ④ 11 ①
12 ⑤

01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가리켜 자립 형태소라고 한다. 실질 형태소는 형태소를 의미의 유형에 따라 나눌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말한다.

| 오답 풀이 | ① 형태소란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의미한다.

②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므로, 더 이상 나누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③ 형태소를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의존 형태소는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없어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형태소이다.

④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인 형식 형태소는 혼자서는 쓰일 수 없고 앞뒤 말과 함께 쓰일 수 있다. 따라서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가 될 수 없다.

➤ 참고 자료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

실질 형태소를 '어휘 형태소'라고도 하고, 형식 형태소를 '문법 형태소'라고도 한다.

02 '잡았다'는 자립하여 쓸 수 있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잡-', '-았-', '-다'와 같이 세 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는 '고양이, 가, 쥐, 를, 잡았다'와 같이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② <보기>는 '고양이, 가, 쥐, 를, 잡-, -았-, -다'와 같이 7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④ <보기>는 '고양이, 가, 쥐, 를, 잡-, -았-, -다'의 형태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 중 '고양이'와 '쥐'는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다.

⑤ '가'와 '를'은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인 '고양이'와 '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조사이다.

03 **새술형** '을, 신-, -고, 뛰-, -었-, -다'와 같이 혼자 쓰일 수 없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 이 중 용언의 어간인 '신-, 뛰-'는 실질 형태소이고, 용언의 어미인 '-고, -었-, -다'와 조사 '을'은 형식 형태소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인 용언의 어간을 찾아 썼다.	☐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인 조사와 용언의 어미를 찾아 썼다.	☐

04 '의'는 조사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에 붙어 비교적 쉽게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어로 인정된다. 이러한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사용되는 의존 형태소이며,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다.

05 단어에는 '밤', '나무', '높다' 등과 같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도 있다.

06 접두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 '넓이'는 형용사 '넓다'의 어근 '넓-'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다.

| 오답 풀이 | ② 접두사 '맨-'과 어근 '다리'(명사)가 결합한 말로 품사는 바뀌지 않았다.

③ 접두사 '날-'과 어근 '달걀'(명사)이 결합한 말로 품사는 바뀌지 않았다.

④ 접두사 '뜻-'과 어근 '사랑'(명사)이 결합한 말로 품사는 바뀌지 않았다.

⑤ 어근 '웅기(명사)와 접미사 '-장이'가 결합한 말로 품사는 바뀌지 않았다.

07 '높푸르다'는 형용사 어간 '높-'과 '푸르-'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이다. 일반적으로 용언의 어간은 '뛰어가다'와 같이 어미에 의해 결합되는데, '높푸르다'는 이러한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 방식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위질'은 어근 '가위'에 접미사 '-질이 결합한 접미파생어이다.

② '무사히'는 명사 어근 '무사'에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부사로 품사가 바뀐 접미파생어이다.

③ '밤낮'은 어근 '밤'과 어근 '낮'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④ '헛수고'는 접두사 '헛-'과 어근 '수고'가 결합한 접두파생어이다.

➤ 참고 자료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

통사적 합성어의 유형	• 명사 + 명사 ㉠ 밤낮 • 관형사 + 명사 ㉠ 새해 •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 큰집 • 주어 + 서술어 ㉠ 낮설다 • 목적어 + 서술어 ㉠ 본받다 • 부사 + 서술어 ㉠ 잘되다 • 용언의 연결형 + 용언 ㉠ 뛰어가다 • 부사 + 부사 ㉠ 곧잘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	• 어간 + 명사 ㉠ 덮밥 • 부사 + 명사 ㉠ 산들바람 • 부사성 어근 + 명사 ㉠ 부슬비 • 어간 + 어간 ㉠ 뛰놀다

08 <보기>의 ㉠은 '액체가 열을 받아 기체로 변한 것'을 의미하며, 사전에서 김의 '1'에 제시된 의미이다. 한편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김에 당장 합시다.'에 쓰인 '김'은 사전에서 김에 제시된 의미로 '어떤 일의 기회나 계기'를 뜻한다. 즉 <보기>의 ㉠과 의미상 아무런 연관이 없으므로 ㉠에 쓰인 '김'은 ㉠의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④ 제시된 문장에 쓰인 '김'은 '수증기가 찬 기운을 받아서 엉긴 아주 작은 물방울의 집합체'를 뜻하며, 김의 '2'에 제시된 의미이다.

② 제시된 문장에 쓰인 '김'은 '맥주나 청량음료 속에 들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뜻하며, 김의 '4'에 제시된 의미이다.

③ 제시된 문장에 쓰인 '김'은 '입에서 나오는 더운 기운'을 뜻하며, 김의 '3'에 제시된 의미이다.

➤ 참고 자료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다의어는 사전에서 한 표제어 아래에 '1', '2', '3'과 같이 표기하여 단어의 뜻을 제시하는데 중심적 의미에서 주변적 의미 순서로 제시한다. 이와 달리 동음이의어는 사전에서 '김', 김2, 김3과 같은 순서로 제시하는데 각각의 단어는 별개의 단어이다.

09 '순서'는 '1. 정하여진 기준에서 말하는 전후, 좌우, 상하 따위의 차례 관계. 2. 무슨 일을 행하거나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차례.'를 뜻하는 단어이고, '질서'는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를 뜻하는 단어이므로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 경우에는 '순서' 대신 '질서'가 들어가면 어색한 문장이 되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10 단어의 상하 관계는 상대적이어서 '연예인'은 '직업'에 대해서는 하의어이지만, '배우'나 '가수'와 같은 단어에 대해서는 상의어가 된다.

| 오답 풀이 | ① '집'은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을 뜻하고, '한옥'은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즉 '집'은 '한옥'의 상의어로, 두 단어는 상하 관계에 있다.

② '여자'와 '남자'는 다른 의미 요소는 모두 같으면서 오직 '성별'이라는 점에서 대립하는 반의어 쌍이다.

③ 유의 관계란 말소리는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끼리 맺는 의미 관계를 말한다. '마음이 향하는 바. 또는 무엇을 하려는 생각'을 뜻하는 '의향'과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생각'은 유의 관계에 있다.

⑤ '오다'와 '가다'는 다른 의미 요소는 모두 같으면서 오직 '이동 방향'이라는 점에서 대립하는 반의어 쌍이다.

11 '친목질'은 '친목+질'의 구성으로 여기서 '친목'은 '서로 친하여 화목함.'이라는 뜻의 명사이고, '-질'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주로 좋지 않은 행위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그리하여 '친목질'은 온라인 커뮤니티 따위에서 일부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쓰인다.

12 '바리스타'는 '커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즉석에서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주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영어를 그대로 빌려 쓴 차용어이다. 나머지는 이미 있는 단어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이다.

| 오답 풀이 | ① '금손'은 어근 '금'과 어근 '손'이 결합한 합성어로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빨래방'은 어근 '빨래'와 어근 '방'이 결합한 합성어로 세탁기에 빨래감을 넣고 동전을 넣어 빨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뜻한다.

③ '꽃미남'은 어근 '꽃'과 어근 '미남'이 결합한 합성어로 얼굴이 곱고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반려동물'은 어근 '반려'와 어근 '동물'이 결합한 합성어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뜻한다.

탐구 2 활동 학습

본책 073쪽

01 ㉠ 02 ㉠

01 '밝다'의 형태소 중 어간 '밝-'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다. 그러나 어미 '-다'는 의존 형태소인 것은 맞지만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이다.

02 '찬란하다'의 뜻을 보면 빛이 매우 밝고 강렬하거나 빛깔, 모양 따위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울 때 쓰이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①의 밑줄 친 '요란하게'의 경우 '시끄럽고 떠들썩하게.'라는 의미이므로 이를 '찬란하게'로 바꾸어 쓰면 의미가 달라진다.

교단원 평가 문제

본책 074~075쪽

01 ③ 02 ② 03 '있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으므로 동사이고, '없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04 ⑤ 05 ⑤ 06 ② 07 ① 08 ⑤ 09 ⑤ 10 ③ 11 ④ 12 ②

01 단어를 의미에 따라 유사한 의미적 특성을 지닌 것끼리 분류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와 같이 모두 아홉 개로 나눌 수 있다. 여덟 개의 품사로 분류하는 것은 영어이다.

02 '대로'는 앞에 오는 체언 뒤에 붙어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것'은 꾸미는 말과 함께 쓰이는 의존 명사이다.

③ '자기'는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이다.

④ '무엇'은 특정한 지시 대상이 없을 때 사용하는 부정칭 대명사이다.

⑤ '한강'은 특정한 하나의 개체에만 붙인 이름인 고유 명사이다.

03 **새술형**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과 결합할 수 있다. 반면,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평가 기준	확인 ☒
각 단어의 품사를 바르게 밝혀 썼다.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여부를 기준으로 각 단어의 품사를 판단하였다.	☐

04 '나라'는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을 뜻하는 명사이다. '어디'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꼭 집어 댈 수 없는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그러나 '열'은 수사가 아니라 체언 '곳'을 수식하는 수 관형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와'는 뜻밖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는 소리로, 문장 속 다른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는 감탄사이며 독립언에 해당한다.

② '가'는 앞말이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이고, '라고'는 앞말이 직접 인용 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인용격 조사이다. 이러한 조사는 문장 성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언에 해당한다.

③ '훨씬'은 '정도 이상으로 차이가 나게.'를 뜻하는 부사이고, '이'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 관형사이다.

④ '여행한'의 기본형은 '여행하다'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아름다운'의 기본형은 '아름답다'로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05 '승호는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에서 '자기'는 '승호'를 가리키는 재귀칭이다. 따라서 '자기'가 청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6 '집어 먹었다'는 '집다'와 '먹다'의 뜻이 모두 살아 있는 '본용언+본용언'의 관계이다. '먹었다'는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으로 쓰인 것이다.

참고 자료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구별

용언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 앞선 용언 어간에 '서'를 넣어 본다. 이때 보조 용언 앞에는 '서'를 넣을 수 없다.

예 • 책을 들고서 갔다. (○)

• 아침을 든든히 먹어서 두었다. (×)

07 ①의 '큰'은 형용사 '크다'의 어간 '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활용형이다. 따라서 '큰'의 품사는 형용사이며,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 오답 풀이 | ②, ③ '단'은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관형사이고, '한'은 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수 관형사이다.

④, ⑤ '더'와 '체대로'는 부사로 각각 용언 '걸리더라도'와 '고치겠습니다'를 수식한다. 부사는 수식언에 해당하며 문장에서 주성분은 아니지만 표현을 보다 풍부하게 한다.

08 '싫어한다'의 형태소는 '싫-', '-어', '하-', '-ㄴ-', '-다'로 분석되며, 모두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동생, 은, 오이, 를, 싫-', '-어, 하-, -ㄴ-, -다'의 아홉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② 실질 형태소는 '동생, 오이, 싫-', '하-'로 네 개이다.

③ '은'은 보조사이고 '를'은 격 조사이다. 이러한 조사는 자립하여 쓰이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말로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이며 하나의 단어로 인정된다.

④ 명사 '동생'과 '오이'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며,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다.

09 '풍요롭다'는 어근 '풍요'와 접미사 '-롭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롭다'는 일부 어근에 붙어 '그려함' 또는 '그럴 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10 '사이좋다'는 '사이'와 '좋다'가 결합한 단어로, 이는 '사이(가) 좋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같은 방법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반면, '덮밥'은 동사의 어간 '-덮-'에 관형사형 어미 '-은' 없이 바로 명사 '밥'이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 방식과 어긋난 방법으로 형성된 단어이므로 이는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날뛰다'는 동사 '날다'의 어간 '날-'과 동사 '뛰다'가 연결 어미 없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굳세다'는 형용사 '굳다'의 어간 '굳-'과 형용사 '세다'가 연결 어미 없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물고기'는 명사 '물'과 명사 '고기'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잘되다'는 부사 '잘'과 동사 '되다'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잡아먹다'는 동사 '잡다'의 어간 '잡-'과 동사 '먹다'가 연결 어미 '-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첫날'은 관형사 '첫'과 명사 '날'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오르내리다'는 동사 '오르다'의 어간 '오르-'와 동사 '내리다'가 연결 어미 없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작은아버지'는 형용사 '작다'의 어간 '작-'과 명사 '아버지'가 관형사형 어미 '-은'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11 '생물'은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현상을 유지하여 나가는 물체'를 뜻하는 말이다. 이는 동물·식물·미생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동물'의 상의어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닭'과 '오리'는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포함되는 관계로 보기 어렵다. '닭'과 '오리'의 상의어로는 '새'를 들 수 있다.

② '꽃'은 '장미'의 하의어가 아니라 상의어로 보아야 한다.

③ '보리'는 '곡식'의 하의어는 맞으나 '쌀'의 하의어로 볼 수 없다.

⑤ '악기'의 하의어이면서 '바이올린'의 상의어로는 '현악기'가 적절하다.

12 <보기>의 '아점'은 '아침과 점심 사이의 식사'라는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뇌피셜'은 '뇌(腦)'와 '오피셜(official)'이 합성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이다. 이는 주로 인터넷상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이나 주장을 이르는 말을 뜻한다.

| 오답 풀이 | ① '사바사'는 '사람 바이(by) 사람'을 줄여 이르는 말로 사람에 따라 다름을 이르는 말이다.

③ '워라밸'은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줄여 이르는 말로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이르는 말이다.

④ '할많하않'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를 줄여 이르는 말이다.

⑤ '좋댓구알'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을 줄인 말로 미디어 시청자에게 사용하는 말이다.

문장

탐구 1 문장의 구조

본책 080~083쪽

확인 문제

01 ② 02 ① 03 ③ 04 ②

01 '민서는 늘 학교에 가장 빨리 온다.'는 주어인 '민서는'과 서술어인 '온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늘'과 '가장'은 부사어 '빨리'를 수식하는 부사어이고, '학교에'와 '빨리'는 서술어 '온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비가 와서 길이 질다.'는 홑문장 '비가(주어) 오다(서술어)'와 '길이(주어) 질다(서술어)'가 연결 어미 '-아서'에 의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③ '날씨가 추우면 호수가 얼어붙는다.'는 홑문장 '날씨가(주어) 춥다(서술어)'와 '호수가(주어) 얼어붙는다(서술어)'가 연결 어미 '-면'에 의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④ '영수는 누나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영수는(주어) 기다렸다(서술어)'라는 문장에 '누나가(주어) 집에(부사어) 오다(서술어)'가 명사절로 안겨 문장 내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⑤ '나는 책을 읽었고 동생은 음악을 들었다.'는 홑문장 '나는(주어) 책을(목적어) 읽었다(서술어)'와 '동생은(주어) 음악을(목적어) 들었다(서술어)'가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02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연결 어미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문장이다. 한 절이 다른 절의 문장 성분으로 자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장은 안은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② 이어진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③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고', '-지만', '-아서/어서', '-(으)면' 등과 같은 연결 어미로 이어져 있다.

④, ⑤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나열, 대조, 선택 등 서로 대등한 문장이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 원인, 조건, 의도 등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이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연결 어미

연결 어미는 어말 어미 중 비종결 어미에 해당하며, 대등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로 나뉜다.

대등적 연결 어미	'-고', '-(으)나' 등
종속적 연결 어미	'-(으)니', '-면' 등
보조적 연결 어미	'-아/어/여', '-게', '-지', '-고(야)' 등

03 ㉠에서 '지나가는'은 관형어가 맞지만 명사 '우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수식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기쁨을 숨기기'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하여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은 '기쁨을 숨기다.'와 '(무엇이) 어려웠다.'가 결합된 문장이다. 홀문장 '기쁨을 숨기다.'에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결합되어 명사절 '기쁨을 숨기기'가 된 것이다.

④ ㉡은 '(사람들이) 지나가다.'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가 결합된 문장이다. '지나가다'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결합되어 관형사절 '지나가는'이 된 것이다.

⑤ ㉢은 '나는 우리 반을 응원했다.'와 '(나는) 목이 쉬다.'가 결합된 문장이다. '목이 쉬다.'에 부사형 전성 어미 '-도록'이 결합되어 부사절 '목이 쉬도록'이 된 것이다. '목이 쉬도록'은 뒤에 오는 서술어 '응원했다'를 수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전성 어미

전성 어미는 어말 어미 중 비종결 어미에 해당하며, 명사형 전성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부사형 전성 어미로 나뉜다.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 '-기' 등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 '-는', '-(으)ㄹ', '-던' 등
부사형 전성 어미	'-게', '-도록' 등

04 '향이 좋은 꽃이 예쁘다.'에서는 '(꽃이) 향기가 좋다.'라는 홀문장의 서술어 '좋다'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어 뒤에 오는 명사 '꽃'을 꾸미는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안겨 있는 절은 관형사절인 '향이 좋은'이다.

| 오답 풀이 | ① '그 일을 하다.'라는 홀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실현된 명사절이다.

③ '집이 참 예쁘다.'라는 홀문장에 인용격 조사 '고'가 붙어 실현된 간접 인용절이다.

④ '내가 (책을) 읽다.'라는 홀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을'이 붙어 실현된 관형사절이다.

⑤ '그림이 아름답다.'라는 홀문장에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 실현된 부사절이다.

본책 084~085쪽

탐구 1 활동 학습

01 ③ 02 ② 03 ⑤ 04 ⑤

01 ㉠ '승점이 동점인 우루과이를 누르고 조 2위가 확정되면서 우리 선수들은 포효하며 눈물과 환호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라는 문장은 여러 겹문장이 중첩된 겹문장이다. 먼저 해당 문장은 '승점이 동점인 우루과이를 누르고 조 2위가 확정되었다.'라는 문장과 '우리 선수들은 포효하며 눈물과 환호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라는 문장이 연결 어미 '-면서'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먼저 앞의 문장인 '승점이 동점인 우루과이를 누르고 조 2위가

확정되었다.'라는 문장은 '(우리 선수들이) 승점이 동점인 우루과이를 누르다.'와 '조 2위가 확정되었다.'라는 문장이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때 '승점이 동점인 우루과이를 누르다.'라는 문장은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승점이 동점이다.'라는 문장의 서술어 '동점이다'에 관형사형 어미 '-니'이 붙어 뒤에 오는 체언 '우루과이'를 수식하고 있다. 뒤의 문장인 '우리 선수들은 포효하며 눈물과 환호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는 '우리 선수들은 포효하다.'와 '(우리 선수들은) 눈물과 환호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가 연결 어미 '-며'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 오답 풀이 | ① 문장이 연결되면서 주어 '우리 선수들이'와 주어 '우리 선수들은'이 생략되었다.

② 부사절은 절 전체가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으로, 부사형 어미 '-도록', '-어서/아서', '-게' 등이 붙어서 만들어지는데, 해당 문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④ 연결 어미는 '-고', '-면서', '-며'가 사용되었다.

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은 홀문장이다. 해당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02 ㉠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에서 앞 절과 뒤 절을 연결할 때 사용한 연결 어미 '-면'은 조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은 앞 절과 뒤 절이 서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의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의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서로 대등하다고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와 ㉡ '농부들은 비가 옴을 기다린다.'에서 명사절인 '비가 오기'와 '비가 옴'은 모두 서술어 '기다린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문장의 차이는 문장 성분의 기능 차이가 아니라, 명사형 어미 '-(으)ㄴ'과 '-기'가 가진 의미적 특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기'는 주로 미래의 일이나 일반적인 습관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되며 '-(으)ㄴ'은 주로 이미 일어난 개별적인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04 ㉠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에서 '제가 이 자리에 오기'는 '제가 이 자리에 오다.'라는 홀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이다. 따라서 ㉠은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 '먼저 주연상을 받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는 원인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서'에 의해 두 절이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② ㉡ '그런데 어떤 작품은 호평을 받았지만 어떤 작품은 냉대를 받더군요.'는 대조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두 절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③ ㉢ '그때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세상이 참 야속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에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세상이 참 야속하지 않느냐'는 간접 인용절로, 인용격 조사 '고'가 붙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④ ㉔ '저는 인복이 참 많습니다.'에서 '인복이 참 많습니다'는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로, 앞에 있는 주어인 '저는'을 풀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탐구 2 문법 요소

본책 086~095쪽

★ 확인 문제

01 ㉔ 02 ㉔ 03 ㉔: 아버지, ㉔: 어머니 04 ㉔ 05 ㉔
06 ㉔ 07 ㉔ 08 ㉔ 09 ㉔ 10 ㉔ 11 ㉔ 12 동생은 책을 읽지 않았다. 13 ㉔

01 종결 표현은 문장을 끝맺는 표현으로 주로 종결 어미에 의해 결정되며, 종결 어미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뉜다. 또한 종결 표현은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통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실제 국어 생활에서는 종결 표현의 형식과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들, 오늘 설거지 좀 할래?"라는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아들에게 설거지를 하라는 요청 혹은 명령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02 ㉔ '다 같이 선물 사러 가자.'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청유문이다.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평서문과 감탄문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3 **서술형** <보기>에 제시된 문장 "어머니께서 나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말씀하셨다."에서 ㉔ '모시다'는 '데리다'의 높임 표현, 곧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로서 문장에서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또한, ㉔ '말씀하시다'는 '말하다'의 높임 표현인 '말씀하다'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04 ㉔ '형은 어머니께 과일을 드렸다.'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고, '주다' 대신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㉔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신다.'에서는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③ ㉔ '형은 어머니께 과일을 드렸다.'에서 높이고 있는 대상은 문장의 객체인 '어머니'이다. 이 문장의 주체는 '형'이다.

⑤ ㉔ '여러분, 어서 자리에 앉아 보아요.'는 격식을 덜 차리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05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는 미래 시제이다. ②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다.'에서 '될'은 동사 어간 '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① '바람이 몹시 차가웠다.'에서 '차가웠다'는 형용사 '차가다'에 선어말 어미 '-었-'이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이다.

③ '지혜는 열심히 훈련을 한다.'에서 '한다'는 동사 '하다'에 선어말 어미 '-ㄴ-'이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이다.

④ '나는 어린 시절 폐렴을 앓았었다.'에서 '앓았었다'는 동사 '앓다'에 선어말 어미 '-았-'이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 많다.'에서 '많다'는 형용사로,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06 '내일 오겠습니다.'는 시간 부사어 '내일'을 사용하고, 동사 '오다'에 선어말 어미 '-겠-'을 결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① '예쁘다'는 형용사이므로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② '갈'은 미래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표현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③ 동사 '자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을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⑤ 시간 부사어 '어제'를 사용하고, 선어말 어미 '-었-'을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07 완료상은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표시하는 시간 표현으로 '-어 있다', '-어 버리다' 등을 통해 실현된다. ④ '장작이 잔뜩 쌓여 있다.'에서 '쌓여 있다'는 '-어 있다'를 통해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③은 '-아/어 가다', ②는 '-ㄴ 중이다', ⑤는 '-고 있다'를 통해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에 해당한다.

08 ① '동생이 종이를 구겼다.'는 주어가 제힘으로 동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능동문이다. 피동문에는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문장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종이가 동생에 의해 구겨졌다.' 정도가 된다.

| 오답 풀이 | ② '그의 부탁은 거절당했다.'에서 '거절당했다'는 명사 '거절'에 접미사 '-당하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③ '이름다운 경치가 보였다.'에서 '보였다'는 '보-+-아-+-었-+-다'로,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아-'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④ '웃이 반듯하게 개어졌다.'에서 '개어졌다.'는 '개-+-어지-+-었-+-다'로 능동사의 어간에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⑤ '차가 나뭇가지에 굼혔다.'에서 '굼혔다'는 '굼-+-하-+-었-+-다'로,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하-'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09 ㉔을 ㉔으로 바꾸어 쓸 때, ㉔에서 주어였던 '다툼 친구들이'는 ㉔의 목적어 '다툼 친구들을'이 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② ㉔은 주어가 시키는 사람 없이 제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주동문이고, ㉔은 ㉔을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으로 바꾸어 쓴 사동문이다.

③ ㉠을 ㉡으로 바꾸어 쓸 때, '선생님께서'라는 새로운 주어가 도입되었다.

⑤ ㉠을 ㉡으로 바꾸어 쓸 때, '화해했다'라는 주동사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여 사동 표현을 만들었다.

10 주동사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로 실현되는 사동문을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하고, 어미 '-게'에 보조 용언 '하다'가 결합한 '-게 하다'로 실현되는 사동문을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한다. ⑤는 '치다'에 '-게 하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통사적 사동문이다.

| 오답 풀이 | ① 명사 '복직'에 사동 접미사 '-시키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적 사동문이다.

② '얼다'에 사동 접미사 '-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적 사동문이다.

③ '읽다'에 사동 접미사 '-하-'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적 사동문이다.

④ '먹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적 사동문이다.

11 명령문은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으로 부정을 표현하지 않고, '-지 마/마라'로 부정을 나타낸다. '-지 말자'로 부정을 나타내는 것은 청유문이다.

12 **새선행** <보기>는 '-지 않다'를 사용하여 부정을 표현한 부정문이다. 그런데 '-지 않다'가 부정하는 대상이 '동생'인지 '책'인지 '읽지'인지 모호하다. 이렇게 부정문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부정하는 대상에 간제(가)를 사용하거나 보조사를 붙여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조건>에 맞게 행위의 주체인 '동생'을 부정하는 의미가 되도록 보조사를 사용하여 <보기>를 고쳐 쓰면 '동생은 책을 읽지 않았다.'가 된다.

평가 기준	확인 ☑
보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했다.	☐
행위의 주체인 '동생'을 부정하는 의미가 되도록 고쳐 썼다.	☐

➤ 참고 자료

전체 부정과 일부 부정에서 비롯된 부정문의 중의성

- '다, 모두, 전부' 등의 전칭 표현과 부정어가 어울리면 모두를 부정하는 전체 부정의 의미와 일부를 부정하는 부분 부정의 의미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예 모임에 회원들이 다 안 왔다(오지 않았다).

① 모임에 오기로 한 회원들이 전부 오지 않음.

② 모임에 오기로 한 회원들이 일부만 오지 않음.

- 이러한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부정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하려면 '하나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예 회원들이 하나도 안 왔다. / 회원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

② 부분 부정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하려면 보조사 '은/는'을 사용한다.

예 회원들이 다는 안 왔다. / 회원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 회원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

13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인용격 조사, 인칭 표현, 지시 표현,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종결 표현 등을 상황이나 화자의 관점에 맞게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직접 인용 표현의 "내일 만나자."라는 인용절은 어제 말한 것이므로,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시간 표현을 현재의 시점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어제의 시점에서 '내일'이므로 이는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오늘'이 된다. 따라서 '현영이는 아영이에게 어제 "내일 만나자."라고 약속했다.'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현영이는 아영이에게 어제 오늘 만나자고 약속했다.'가 된다.

➤ 참고 자료

간접 인용절에서 일어나는 어미의 변동

간접 인용절의 경우 평서문은 '다고', 의문문은 '-(느)냐고/-(으)냐고', 명령문은 '-(으)라고', 청유문은 '-(으)라고'로 표현된다. 다만 평서문이 '이다'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다'를 '이라'로 바꾼 뒤 인용격 조사 '고'를 붙여 '이라고'로 표현한다. 또한, 감탄 의미의 '-구나'나 약속 의미의 '-(으)마' 등은 평서문으로 인용된다.

본책 096~097쪽

탐구 2 활동 학습

01 ③ 02 ① 03 ⑤ 04 ①

01 ㉠은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화자가 사건의 내용을 특별한 의도 없이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평서문이다. 종결 어미 '-습니다'는 하오체가 아니라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이다.

| 오답 풀이 | ① ㉠은 해요체의 종결 어미 '-나요'를 사용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는 의문문이다.

② ㉡은 해라체의 종결 어미 '-자'를 사용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청유문이다.

④ ㉢은 해체의 종결 어미 '-아'를 사용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명령문이다.

⑤ 상대 높임법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고, 높임의 정도에 따라 다시 격식체는 '하십시오체(아주높임)', '하오체(예사 높임)', '하게체(예사 낮춤)', '해라체(아주낮춤)'로, 비격식체는 '해요체(두루높임)', '해체(두루낮춤)'로 나뉜다. 따라서 '해요체'와 '해체'를 사용한 ㉠과 ㉢은 비격식체, '해라체'와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과 ㉣은 격식체에 해당한다.

02 이 글은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적은 기행문으로 주로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밑줄 친 부분에서는 과거의 일임에도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을 마치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전체 여정 중 해당 부분의 경험이 인상 깊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밑줄 친 부분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의 선후 관계나 인과

관계 등 논리적인 관계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며,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03 이 글은 ○○ 쇼핑몰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고객에게 쓴 사과문이다. 특히 ‘유출당했음’, ‘감촉될 수밖에’ 등 ‘-당하다’, ‘-되다’와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이 글을 쓴 쇼핑몰 측도 행위를 당한 입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완화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04 이 글은 기사형 광고로, 기사문의 형식을 빌려 광고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인용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오인을 유도하고 있는데, 먼저 □ □ 영양제 협회의 말을 인용한 뒤 ○○ 제품에 관한 정보들을 덧붙임으로써 ○○ 제품이 마치 영양제 협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 즉 인용 표현을 사용하여 기업의 이익을 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모단원 평가 문제

본책 098~099쪽

01 ② **02** ② **03** ⑤ **04** ④ **05** ①은 의문문인데, <보기>에서는 동생에 대한 청유 혹은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06 ③ **07** ③ **08** ⑤ **09** ② **10** 농부가 노새에게 짐을 지웠다. / 농부가 노새에게 짐을 지게 했다. **11** ③ **12** ②

01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은 겹문장이고, 겹문장에는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이 있다. ② ‘이웃집 강아지는 털이 부드럽다.’에서 ‘털이 부드럽다’는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로, 앞에 있는 주어인 ‘이웃집 강아지’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②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① ‘돈이(주어) 인생의(관형어) 전부는(보어) 아니다(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③ ‘아이코(독립어), 이계(주어, ‘이것이’의 준말) 대체(부사어) 무슨(관형어) 일이냐(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④ ‘우리(관형어) 아빠가(주어) 세상에서(부사어) 제일(부사어) 멋있다(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⑤ ‘선생님(주어) 운동장에서(부사어) 아이들과(부사어) 눈싸움을(목적어) 한다(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02 ②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가는 말이 곱다.’와 ‘오는 말이 곱다.’라는 두 개의 홑문장을 연결 어미 ‘-아야’를 사용하여 ‘조건’의 의미 관계로 연결한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

장이다. ‘조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다른 연결 어미 ‘-으면’을 결합해도 의미가 통한다.

| 오답 풀이 | 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사공이 많다.’와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두 개의 홑문장을 연결 어미 ‘-으면’을 사용하여 ‘조건’의 의미 관계로 연결한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③ ‘시험공부를 하려고 일찍 일어났다.’는 ‘시험공부를 하다.’와 ‘일찍 일어났다.’라는 두 개의 홑문장을 연결 어미 ‘-려고’를 사용하여 ‘의도’의 의미 관계로 연결한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④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낮말은 새가 듣는다.’와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두 개의 홑문장을 연결 어미 ‘-고’를 사용하여 ‘나열’의 의미 관계로 연결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⑤ ‘내일 뮤지컬을 보거나 놀이동산을 가자.’는 ‘내일 뮤지컬을 보자.’와 ‘내일 놀이동산을 가자.’라는 두 개의 홑문장을 연결 어미 ‘-거나’를 사용하여 ‘선택’의 의미 관계로 연결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03 ⑥ ‘내가 어제 읽은 책이 더 재미있다.’에서 ‘내가 어제 읽은’이라는 절은 ‘내가 어제 (책을) 읽었다.’라는 홑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어 만들어진 관형사절이다. 관형사형 어미 ‘-는’은 ‘오다’처럼 동사 어간의 말음이 모음이거나, ‘떠들다’처럼 동사 어간이 ‘르’ 받침으로 끝날 때 결합한다.

| 오답 풀이 | ① ⑤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 ‘코가 길다’는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로, 주어진 ‘코끼리는’을 풀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서술절은 다른 절들과 달리 절의 표지가 없고, 대체로 ‘주어+주어+서술어’의 구조를 보인다.

② ① ‘민지는 너무 춥다고 말했다.’에서 ‘너무 춥다’는 간접 인용절로 인용격 조사 ‘고’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직접 인용절인 경우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③ ③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에서 ‘그림 그리기’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뒤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 안은문장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④ ④ ‘나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에서 ‘발에 땀이 나도록’은 ‘발에 땀이 나다.’라는 문장에 부사형 어미 ‘-도록’이 결합하여 뒤에 오는 용언 ‘뛰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다.

04 <보기>의 ‘그 책 좀 이리 줘 봐.’는 해체 종결 어미 ‘-아’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명령문이다. ④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 보아라.’ 또한 해라체 종결 어미 ‘-아라’를 사용한 명령문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이제 곧 점심시간이야.’는 해체 종결 어미 ‘-야’를 사용한 평서문이다. 평서문은 화자가 사건의 내용을 특별한 의도 없이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문장이다.

② ‘자, 이제 다시 돌아갈까?’는 해체 종결 어미 ‘-ㄹ까’를 사용한 의문문이다. 의문문은 대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는 문장이다.

③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는 해라체 종결 어미 ‘-는구나’를 사용한 감탄문이다. 감탄문은 화자가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에 초점을 둔 문장이다.

⑤ ‘계산이 정확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해라체 종결 어미 ‘-자’를 사용한 청유문이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문장이다.

05 **서술형** <보기>의 ㉠은 해체 종결 어미 ‘-ㄴ까’를 사용하여 청자인 동생에게 질문을 하는 의문문이다. 그러나 이 문장은 동생에게 텔레비전을 보기 말고 청소를 하라는 명령 혹은 같이 청소를 하자는 청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청자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형의 발화에 쓰인 종결 표현의 종류를 정확히 썼다.	☐
형의 발화 의도를 포함하여 썼다.	☐

06 <보기>에서 ‘택’은 문장에서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주체인 ‘큰아버지’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 오답 풀이 | ① 상대 높임법과 주체 높임법을 사용하여 청자인 ‘아버지’와 서술의 주체인 ‘큰아버지’를 모두 높이고 있다.

② ‘-습니다’는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이다. 상대 높임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는데, 하십시오체는 격식체의 아주 높임에 해당한다.

④ ‘큰아버지’ 뒤에 주격 조사 ‘께서’를 붙여 주체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⑤ ‘돌아가셨습니다’는 ‘돌아가-+-사-+-았-+-습니다’로, 선어말 어미 ‘-사-’를 사용하여 주체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07 ③은 ‘따님’과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는 올바른 문장이다. ‘있다’의 주체 높임 표현은 ‘계시다’인데, 간접 높임에서는 ‘있으시다’로 쓰인다.

| 오답 풀이 | ①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지 않고 있으므로, ‘엄마, 할머니께서 오셨어요.’로 고쳐야 한다.

②, ④ 물건인 ‘상품’과 ‘커피’를 높이고 있으므로 잘못된 표현이다.

⑤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지 않고 있으므로, ‘오늘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로 고쳐야 한다.

08 ⑤ ㉠ ‘행복하다’에는 선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 ‘행복하다’와 같은 형용사 또는 서술격 조사 ‘이다’는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① ㉠ ‘사용한’은 ‘사용+-하-+-ㄴ’으로, 관형사형 어미 ‘-ㄴ’을 사용하여 뒤에 오는 노트북을 꾸며 주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② ㉡ ‘나 버렸다’는 ‘나-+-아 버리-+-았-+-다’로, 어미 ‘-아’와 보조 용언 ‘버리다’를 사용해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이다.

③ ㉢ ‘내일’은 시간 부사어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④ ㉤ ‘했다’는 ‘하-+-았-+-다’로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하다’가 붙는 용언 어간 뒤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 대신 ‘-였-’이 붙는다.

09 ‘손주에게 한복을 입혔다.’는 누군가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입었다’에 사동 접미사 ‘-히-’를 붙여 만든 사동 표현이다.

| 오답 풀이 | ① ‘밀렸다’는 ‘밀-+-리-+-었-+-다’로,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이때 능동문의 목적어 ‘나를’은 피동문의 주어 ‘내가’로, 능동문의 주어 ‘그가’는 피동문의 부사어 ‘그에게’로 바뀌었다.

③ ‘쫓기고’는 ‘쫓-+-가-+-고’로 피동 접미사 ‘-가-’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이때 능동문의 목적어 ‘도둑을’은 피동문의 주어 ‘도둑이’로, 능동문의 주어 ‘경찰이’는 피동문의 부사어 ‘경찰에게’로 바뀌었다.

④ ‘건설했다’는 ‘건설+-되-+-았-+-다’로, 피동 접미사 ‘-되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이때 능동문의 목적어 ‘다리를’은 피동문의 주어 ‘다리가’로 바뀌었다.

⑤ ‘정해졌다’는 ‘정하-+-여지-+-었-+-다’로, ‘-여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이때 능동문의 목적어 ‘장소를’이 피동문의 주어 ‘장소가’로 바뀌었다. ‘하다’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는 ‘-여지다’가 붙는데, 흔히 줄여서 ‘-해지다’로 쓴다.

10 **서술형**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꾸어 쓸 때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 또는 부사어가 되고,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사동문의 목적어가 된다. 또한 사동문에는 새로운 주어가 도입된다. 그리고 주동문의 서술어에 사동 접미사 또는 ‘-게 하다’ 등을 붙여 사동 표현으로 만든다. 따라서 <보기>의 주동문 ‘노새가 짐을 졌다.’를 <조건>에 따라 ‘농부가 노새에게 짐을 지웠다.’(사동 접미사 ‘-우-’ 사용) 또는 ‘농부가 노새에게 짐을 지게 했다.’(‘-게 하다’ 사용)로 바꿀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농부’가 주어인 문장으로 바꿔 썼다.	☐
사동 접미사와 ‘-게 하다’를 활용한 문장을 모두 썼다.	☐

11 부정 부사 ‘안’은 의지를 부정하는 표현이다. ③ ‘배가 아파서 일 부러 안 먹는 거예요.’에서 ‘일부러’는 ‘어떤 목적이나 생각을 가지고, 또는 마음을 내어 굳이.’라는 의미로, 주어의 의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의지를 부정하는 부정 부사 ‘안’이 쓰이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④ 명령문은 ‘-지 마/마라’, 청유문은 ‘-지 말자’를 사용하여 부정 표현을 나타낸다. 따라서 ①, ④는 각각 ‘앞으로 그를 만나지 마/마라.’ ‘우리 오늘날만큼 교실에서 떠돌지 말자.’로 써야 한다.

② ‘배가 아파서 도저히 잠을 안 잔다.’는 상황에 의해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지를 부정하는 ‘안’ 부정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어색하다. 주체의 능력 부족이나 상황에 의한 부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못’ 부정문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배가 아파서 도저히 잠을 못 잔다.’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⑤ ‘덥다’와 같은 형용사의 경우 능력이나 의지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태를 부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단순 부정이나 상태 부정을 표현할 때는 ‘안’ 부정문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계절이 가을에 접어들니 날씨가 덥지 않다.’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12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큰따옴표를 없애고, 종결 어미를 적절한 형태로 바꾼 뒤 인용격 조사 '고'를 붙인다. 또한 인용절 속의 시간 표현이나 높임 표현, 대명사 등을 화자의 관점이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보기>의 '지혜는 나에게 어제 "내일 나는 책을 읽겠어."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지혜가 나에게 말한 것은 어제이므로 직접 인용절의 '내일'은 어제를 기준으로 '오늘'이 된다. 또한 직접 인용절에서 '지혜'를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나'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자기'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종합하면 '지혜는 나에게 어제, 오늘 자기가 책을 읽겠다고 말했다.'로 바꾸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4 답화

탐구 1 답화의 응집성과 응결성

본책 102~105쪽

* 확인 문제

- 01 ⑤ 02 ③ 03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 알려 주세요. / 가까운 지하철역에 가는 길을 알려 주세요. 04 ③ 05 ①

01 맥락은 답화를 구성하는 외부적 요인이며 답화의 구조는 내부적 요소들에 의해 구성되는 열개를 말한다. 맥락과 답화의 구조를 반대로 설명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답화의 유형이나 종류에 따라 답화는 특정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지글'에서는 '수신인 이름, 인사말, 용건, 마무리 인사, 일시'와 같은 답화 구조가 존재한다.

② 답화는 보통 한 가지 주제에 대한 하나 이상의 발화들이 모여 답화의 의미를 구성한다.

③ 답화의 구성 요소로는 화자, 청자, 맥락, 그리고 그 속에서 문장 단위로 실현된 말인 발화가 있다.

④ 답화를 통해 의사소통할 때에는 단순히 발화의 합만 따져 볼 것이 아니라 답화를 구성하는 상황 맥락 및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답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02 두 사람의 대화는 맥락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 의문문인 형의 발화에는 날씨가 더우니 선풍기 바람을 자신도 쐬게 해 달라는 요청의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간접 발화로 볼 수 있다. 이에 동생은 선풍기를 회전으로 바꾸겠다고 요청에 응하고 있으므로, 형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다.

03 **시술형** 답화의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화자는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가고자 하나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보기>의 발화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 알려 달라는 요청의 기능을 담은 발화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직접 발화	발화의 형식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는 발화 예 창문 좀 닫아 줘.
간접 발화	발화 의도와 관련된 언어 형식을 쓰지 않고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발화 예 바람이 들어와 너무 춥지 않아? → 창문을 닫아 달라는 간접적인 표현일 경우

04 ①의 모든 문장은 '어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문장과 문장이 어떠한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없다. ①은 각각의 문장이 서로 다른 요소들을 다루고 있지만, 처음 문장이 다음 문장들의 이유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①은 내용적으로 짜임새 있는 답화라고 볼 수 없다. 반면 ②은 답화의 부분들이 하나의 주제 아래에 통일성 있게 연결되어 있어 응집성이 높은 답화라고 할 수 있다.

05 답화의 응결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크게 어휘와 문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어휘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는 같거나 비슷한 어휘를 반복하거나 유의 관계나 반의 관계, 상하 관계 같은 어휘의 의미 관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같거나 비슷한 어휘의 반복을 피해야 답화의 응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본책 106~107쪽

탐구 1 활동 학습

- 01 ② 02 ⑤ 03 ⑤ 04 ⑤ 05 ④

01 ㉠과 ㉡의 대화에서 외국인인 제이슨은 설에 떡국을 먹지 않으면 자신에게 누나라고 부르라는 말과, 뜨거운 것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인 제이슨이 한국에는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이 나이를 먹는 것을 상징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과, 한국어의 '시원하다'가 뜨거운 음식이 속을 후련하게 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02 답화의 유형이나 종류에 따라 답화는 특정한 구조를 가질 수 있고, 단락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답화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제시된 글의 [A] 단락에서는 전 지구 해수면 평균 온도와 우리나라 바다의 평균 수온이 상승했음을 서술하고 있고, [B] 단락에서는 앞서 언급한 평균 수온 상승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답화는 어떤 현상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 즉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이 답화는 보고서의 개념과 유형,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보고서를 쓸 때의 한계나 제약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찰 및 실험을 하고, 그 절차와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쓴 글'이라는 보고서의 개념과, '조사 보고서, 관찰 보고서, 실험 보고서 등' 보고서의 유형을 밝히고 있다.

②, ④ 2문단과 3문단에서 효과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방법을 설명할 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줌으로써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③ '그, 이, 이러한' 등의 지시 표현과 '그리고, 또한' 등의 접속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답화의 응결성을 높이고 있다.

04 이 답화의 1문단에서는 보고서의 개념과 유형을 밝힌 후에 보고서의 효과적인 작성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2문단에서는 탐구 활동의 절차가 잘 드러나게 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3문단에서는 탐구 활동의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2문단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에 대한 설명이므로 '먼저, 우선, 일단' 등의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3문단의 빈칸 앞과 뒤의 맥락을 살펴보면 앞에서는 일반적인 진술을, 뒤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으므로 '가령, 예컨대, 예를 들면, 말하자면, 이를테면' 등의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05 지시 표현이 가리키는 내용은 대개 지시 표현의 앞에서 찾을 수 있다. 3문단의 '그'는 뒤에 오는 결과를 꾸며 주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결과'는 앞에 나온 '설문 조사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다.

탐구 2 언어의 공공성 본책 108~109쪽

★ 확인 문제

01 ①

01 넓은 의미의 언어의 공공성은 모든 발화가 갖는 공적 책임과 가치의 특성을 가리키므로 개인 차원의 언어라고 하더라도 맥락에 따라 공공성을 띌 수 있다.

탐구 2 활동 학습 본책 110~111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①

01 이 답화는 공공 기관인 ○○ 교통 공사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에게 지하철 집중 배치 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쓴 글이다. 'RH 시간대'에서 'RH'는 'rush hour(러시

아워)'의 준말로, 출퇴근 때와 같이 교통이 몹시 혼잡한 시간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영어식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답화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모두가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이 답화에 차별적인 표현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02 '덧글'에서 누리꾼 '포도'는 누리 소통망에 올라온 선행 사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덧글로 써서 선행한 사람을 비하하고 있다. 덧글과 같이 개인이 생산한 답화도 맥락에 따라 공공성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당근'의 덧글에는 두 가지 이상 해석될 만한 표현이나 문장 구조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사과'는 '포도'의 덧글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글에 동조하고 있다.

④ '딸기'는 공적 매체인 뉴스에서 '킹받다'와 같은 새말을 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⑤ '수박'은 누리 소통망에 올라온 덧글 중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을 지적하고 있다.

03 이 만화에서는 세 사람이 무인 단말기로 메뉴를 주문하려고 하지만 '어니언 링, 프렌치프라이, 콘샐러드, 시그니처, 코울슬로'처럼 외국어식 표현 그대로 나오는 용어와 메뉴를 보고 당황하여 제대로 주문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표현이 정확하더라도 적절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면 좋은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04 '리플(←reply)'은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 올라온 글이나 의견에 대해 읽는 이의 감상을 짧게 표현한 글을 이른다. 이는 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을 뜻하는 '덧글'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썩지'는 작은 종잇조각이나 어떤 내용의 글을 적은 종이쪽을 말하는 것으로 의미가 전혀 다르다.

모단원 평가 문제 본책 112~113쪽

01 ⑤ 02 ⑤ 03 ① 04 ③ 05 ④ 06 비상구 유도등은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를 표시합니다. 녹색 바탕으로 되어 있고, 바닥에서 1.5m 이상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로 유도등은 대피 방향을 표시합니다. 백색 바탕에 녹색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바닥에서 1m 이하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07 ④ 08 ④

01 답화를 구성하는 비언어적 맥락에는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다. ⑤에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상황 맥락'에 해당하고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 해당한다.

02 ㉔는 한국에서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이 나이를 먹는 것을 상징하는 문화가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고, ㉕는 한국어의 '시원하다'라는 단어에는 온도가 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뜨거운 음식이 속을 후련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익숙하지 않은 제이슨은 대화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 <보기>와 같이 반응한 것이다.

03 ㉑은 발화의 형식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는 직접 발화이다. 즉, '한국인 I'은 자기가 지금 춥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4 '그러나'는 앞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이므로 오징어를 손질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두 발화를 연결하는 접속 표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또한 앞뒤 문장의 내용이 대립될 때 혹은 내용을 전환할 때 사용하는 접속 표현이므로 ㉑에 쓰이기 적절하지 않다. ㉑에는 앞뒤 문장을 같은 내용으로 순조롭게 이어줄 때 사용하는 '그리고', '또'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언어의 공공성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 언어의 공공성은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및 공공 단체나 그에 소속된 공인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생산하는 공공 언어의 총체적인 특성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에서 언어의 공공성은 모든 발화가 갖는 공적 책임과 가치의 특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법원의 법조문이 지니고 있거나 지녀야 하는 언어적인 특징이 곧 언어의 공공성이 된다는 점은 좁은 의미의 언어의 공공성과 관련이 깊다.

| 오답 풀이 | ① 공공 도서관은 공공 기관에 해당하며, 이용 안내문은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므로 공공 언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개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언어 역시 맥락에 따라 공공성을 띌 수 있는데 이는 넓은 의미의 공공성과 관련 있다.

③ 표현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공공 언어에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면 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

⑤ 언어가 공공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문 규범에 맞게 써야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해야 하고(표현의 적절성),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표현해야 한다(표현의 정확성). 또한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표현해야 하며(표현의 공정성), 더 나아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06 **❷** **새술형**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한 문장에 너무 많은 정보(유도동 종류, 색상, 역할, 설치 높이 등)가 복잡하게 얹혀 있어 가독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비상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의 핵심 정보(역할)와 부연 정보(설치 위치 등)를 구분하여 각각 두 문장씩 총 네 문장으로 나누어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고쳐 쓰는 것이 좋다.

평가 기준	확인 ☒
표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한 문장을 네 문장으로 나누어 썼다.	☐
비상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에 대한 핵심 정보와 부연 정보를 적절하게 구분하여 썼다.	☐

07 'RH'는 'rush hour(러시아워)'의 준말로, ㉑은 출퇴근 때와 같이 교통이 몹시 혼잡한 시간대를 의미한다. '휴게 시간대'는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동안 쉬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㉑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

08 (나)에서 사람들은 (가)의 밑줄 친 'RH(알에이치)'라는 영어식 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는 'RH(알에이치)'에 대해 모르고 있고, 'B'와 'C'는 영어식 표현의 남용과 이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언어는 모두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114~117쪽

01 ㉔ 02 말소리의 길이는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준다
03 ㉔ 04 ㉔ 05 ㉔ 06 ㉔ 07 ㉔ 08 ㉔ 09 ㉔
10 ㉔ 11 [A]: 접미사, [B]: 명사, [C]: 동사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하였지만 품사가 바뀌지 않았기 12 ㉔ 13 ㉔ 14 ㉔
15 ㉔ 16 ㉔ 17 ㉔ 18 ㉔

01 • 첫소리: 윗잇몸과 혀끝에서 발음되는 소리는 잇몸소리로 'ㄷ, ㅌ, ㅌ, ㅌ, ㄴ, ㄹ'이며, 이 중 마찰음은 'ㅌ, ㅌ'이다.
• 가운데소리: 입술을 평평하게 하고 발음하는 소리는 평순 모음으로, 'ㅣ, ㅐ, ㅑ, ㅡ, ㅓ, ㅗ'이다.
• 끝소리: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비음으로, 'ㅁ, ㄴ, ㅇ'이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㉔의 'ㅍ'이다.

02 **❷** **새술형** 하늘에서 내리는 '눈[눈:]'과 감자 기관인 '눈[눈]'은 말소리의 길이에 따라 그 의미가 구별된다. 이처럼 말소리의 길이는 단어의 의미 변별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음운의 자격을 가진다.

평가 기준	확인 ☒
말소리의 길이라는 음운의 종류와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준다는 역할을 썼다.	☐
<조건>으로 제시된 형식에 맞게 썼다.	☐

03 ㉔ '흰색'의 '흰'은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ㄴ'이다. 이 경우 'ㄴ'은 []로만 발음하기 때문에 [흰색]으로만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① '의심'의 '의'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지 않은 'ㄴ'이면서 첫음절이기 때문에 [의심]으로만 발음한다.

②, ④ '회의'와 '협약'에 쓰인 '의'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지 않은 'ㄴ'이면서 첫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 [허비]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이], [허비]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⑤ '우리의'에서 '의'는 관형격 조사로 [우리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예]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04 ④ '신래[실래]'는 뒤에 있는 유음 'ㄹ'이 앞에 있는 비음 'ㄴ'에 영향을 주어 'ㄴ'이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난리'는 [날:리]로, '물놀이'는 [물로리]로 발음되므로 두 단어 모두 유음화가 일어난 예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①의 '듣는[든는]'은 'ㄷ'이 뒤의 'ㄴ'의 영향으로 'ㄴ'으로 바뀌었으므로 비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하지만 '감으니[가므니]'는 'ㄷ'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져 연음된 것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② ㉠의 '닭똥[닥똥]'은 자음군 'ㄹ'에서 'ㄱ'이 탈락한 자음군 단순화 현상의 예이다. 하지만 '꺼어서'는 [꺼져서]는 'ㄱ'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져 연음된 것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③ ㉡의 '입히고[이피고]'는 'ㅂ'과 'ㅎ'이 'ㅍ'으로 축약된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예이다. 하지만 '좋아[조아]'는 ㅎ 탈락이 일어난 것이므로 거센소리되기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의 '먹고[먹꼬]'는 'ㄱ' 뒤의 'ㄱ'이 된소리 'ㄱ'으로 바뀐 것으로 된소리되기의 예이다. 하지만 '바깥[바깹]'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된소리되기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05 ㉠은 '늦여름 → 늦여름 → 늦너름 → [느너름]'으로, 비음 'ㄴ'에 의해 비음이 아닌 'ㄷ'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에서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에서 일어나는 자음군 단순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② ㉠은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 ㉢은 거센소리되기과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은 음운 변동의 횟수가 3회, ㉡은 2회로 서로 다르다.

④ ㉠에서 일어나는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 ㉡에서 일어나는 거센소리되기는 축약 현상에 해당하므로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은 ㄴ 첨가 현상으로 인해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늘어난다. 실제로 음운의 개수를 세어 보면 ㉠ '옳다'는 7개, [옳따]는 6개이고, ㉡ '늦여름'은 7개, [느너름]은 8개, ㉢ '달하다'는 7개, [다치다]는 6개이다.

⑤ ㉠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의 구개음화는 모두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에 해당한다.

06 '우는'은 '울- + -는 → 우는'과 같이 'ㄹ'이 탈락된 것으로, 이러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오답 풀이 | ① '문법'은 [문뽵]으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③ '매향'은 [마땡]으로 발음되므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④ '색연필'은 ㄴ 첨가가 일어나 [색년필]로, 비음화가 일어나 다시 [생년필]로 발음된다.

⑤ '싫어도'는 [시러도]로 발음되므로 ㅎ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07 ㉠에 사용된 체언은 '사과', '개', '중', '하나'이다. 이 중 명사는 '사과', '개', '중'이고, 수사는 '하나'이다. '두'는 뒤의 의존 명사 '개'를 수식하는 수 관형사이다.

| 오답 풀이 | ② ㉠에서 '여기(대명사)', '곳(명사)', '것(의존 명사)'처럼 총 3개의 체언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의 '영화'와 '영수'는 특정한 하나의 개체에만 붙이는 이름인 고유 명사이고, '축구', '공놀이'는 공통된 특성을 지닌 대상에 두루 붙이는 이름인 보통 명사이다.

④ ㉢에서 '개', '중', ㉣에서 '것'은 관형어의 수식이 필요한 의존 명사이다.

⑤ ㉣의 '이다'는 서술격 조사, ㉡의 '를'은 목적격 조사로, 이들은 앞에 붙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각각 서술어와 목적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08 품사의 통용(通用)이란 하나의 단어가 문맥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고, 사전에서도 여러 품사를 지닌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벽지가 밝다.'와 '눈이 밝다.'에 쓰인 '밝다'는 모두 사물의 상태나 속성을 나타낸 형용사에 해당하므로 품사 통용의 사례로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느낀 대로'에서 쓰인 '대로'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 '원칙대로'에서 쓰인 '대로'는 체언 뒤에 결합한 조사이다.

② '동생이 형보다 발이 더 크다.'에 쓰인 '크다'는 형용사, '나무가 크지 못한다.'에 쓰인 '크다'는 동사이다.

③ '내가 열을 셀 때까지'에 쓰인 '열'은 수사, '모두 열 명이다.'에 쓰인 '열'은 관형사이다.

④ '모두 정말이다.'에 쓰인 '정말'은 명사, '그 약이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에 쓰인 '정말'은 부사이다.

09 '피'는 동사 어간 '푸-'가, '흘렀다'는 동사 어간 '흐르-'가 불규칙하게 변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피'와 '흘렀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르러서야'는 어미 '-어서'가 '-러서'로, '하여야'는 어미 '-아야'가 '-여야'로 불규칙하게 변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이르러서야'와 '하여야'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파래서'는 형용사 어간 '파랗-'과 어미 '-아서'가 모두 불규칙하게 변한 것이기에 ㉢에는 '파래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0 ㉣에는 독립언인 감탄사 '아', 수식언인 관형사 '옛'과 부사 '자꾸', 관계언인 조사 '와', '의', '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오답 풀이 | ① 수식언인 관형사 '한'과 관계언인 조사 '밖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독립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독립언인 감탄사 '그래'와 관계언인 조사 '부터', '가', '이야(이다)'는 포함되어 있으나, 수식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관계언인 조사 '에', '을'과 수식언인 관형사 '새'는 포함되어 있으나, 독립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관계언인 조사 '에는', '을'과 수식언인 부사 '꼭'은 포함되어 있으나, 독립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11 **❷** **서술형** ‘한여름’은 어근 ‘여름’ 앞에 접두사 ‘한-’이 붙은 접두 파생어로 접미사가 결합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 검증에 위한 단어로 적합하지 않다. ‘지우개’는 동사의 어근인 ‘지우-’에 접미사 ‘-개’가 결합하여 명사로 품사가 바뀐 단어이기 때문에 가설의 내용과 일치한다. ‘접히다’는 동사의 어근인 ‘접-’에 접미사 ‘-히-’가 결합하였지만 품사는 바뀌지 않았으므로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다.

평가 기준	확인 ☒
[A]는 접미사, [B]는 명사로 바르게 적었다.	☐
[C]에 ‘접히다’는 접미사가 결합하였지만 품사가 바뀌지 않았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 12 ‘여닫다’는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연결 어미 없이 연결되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며, ‘시골집’은 ‘시골’이 ‘집’을 수식하는 종속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덮밥’은 동사 어간이 체언과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앞뒤’는 두 어근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대등 합성어이다.

③ ‘새해’는 관형사가 명사를 꾸미는 우리말의 구조와 일치하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함박눈’은 ‘함박’이 ‘눈’을 수식하는 종속 합성어이다.

④ ‘뽕죽구두’는 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형식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쥐꼬리’는 매우 적다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융합 합성어이다.

⑤ ‘본받음’은 ‘목적어+서술어’의 구성에서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손가락’은 ‘손’이 ‘가락’을 수식하는 종속 합성어이다.

참고 자료

합성어의 형성 방법

대등 합성어	두 어근이 대등하게 본래 뜻을 유지함. 예) 논밭, 팔다리
종속 합성어	한 어근이 다른 어근을 수식함. 예) 산길, 들어가다
융합 합성어	합성어 전체의 의미가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가짐. 예) 밤낮, 종이호랑이

- 13 단어의 의미 관계가 상하 관계인 경우 상의어에 비해 하의어는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벗다’와 ‘입다, 쓰다, 신다’는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 범위의 비교가 성립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준하가 손으로 공을 잡았다.’의 ‘손’은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이라는 의미의 중심적 의미로 쓰였고, ‘구조 작업에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의 ‘손’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즉 ①의 ‘손’은 다의어이다.

②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유의어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대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의 ‘생각’에 유의어 ‘의향’을 대치해서 ‘만날 의향’으로 쓰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심경’을 대치해서 ‘만날 심경’으로 쓰는 것은 맥락상 어색하다.

③ ③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벗다’의 반의어는 ‘입다’(옷), ‘쓰다’(안경, 모자), ‘신다’(신발) 등으로 여러 개임을 알 수 있다.

⑤ ⑤의 ‘감정’은 ‘기쁨’을 포함하는 상의어이므로 하의어인 ‘기쁨’에 비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14 <보기>에 제시된 문장은 먼저 ‘흐르는 세월을 멈출 수 없습니다.’와 ‘흐르는 물은 멈출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결합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다. ‘흐르는 세월을 멈출 수 없습니다.’와 ‘흐르는 물은 멈출 수 있습니다.’는 각각 ‘(세월이) 흐른다.’와 ‘(물이) 흐른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 이루어진 관형사절을 안고 있으므로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15 ㉠ ‘배고프지는 않나?’는 ‘-지 않다’라는 긴 부정 표현에 의문형 종결 어미 ‘-니’를 결합하여 청자에게 질문을 하는 의문문이다. 부정 부사는 ‘안’, ‘못’으로 짧은 부정 표현이다.

| 오답 풀이 | ① ㉠은 관형사형 어미 ‘-ㄹ’과 의존 명사 ‘것’이 결합한 표현을 통해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② ㉡은 엄마가 했던 말을 인용 부사격 조사 ‘고’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③ ㉢은 ‘-고 있다’를 사용하여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 ㉤은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 ㉥은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이다. ‘할아버지’가 방에 계신 것이고, ‘손자’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다는 것이므로 ㉥과 ㉤이 높이는 대상은 모두 ‘할아버지’로 동일하다.

- 16 ‘오랜만에 교실이 잘 정리되었다.’는 명사 ‘정리’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드러낸 파생적 피동문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난롯불이 열음을 녹였다.’는 주어가 목적어에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한 일을 가리키는 문장으로, 사동사에 의한 사동 표현(파생적 사동문)에 해당한다.

② ‘웃이 반듯하게 개어졌다.’는 ‘-어지다’로 실현된 통사적 피동문에 해당한다.

④ ‘아버지께서 연주에게 짐을 지우셨다.’는 아버지가 연주에게 짐을 지게 한 행동을 하게 한 일을 가리키는 문장으로, 사동사에 의한 사동 표현(파생적 사동문)에 해당한다.

⑤ ‘어머니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하셨다.’는 어머니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 일을 가리키는 문장으로, 통사적 사동문에 해당한다.

- 17 ‘거기’, ‘그곳’과 같은 지시 표현은 앞에 나온 특정 어휘나 발화 전체를 대신하면서 담화의 응결성, 즉 형식적인 짜임새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내용적인 짜임새는 담화의 응집성에 대한 설명이다.

- 18 <보기>는 ‘요망’이라는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 ‘바람’으로 바꾸어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공공 언어는 쉽고 친숙한 표현을 사용하여 누구나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화법의 탐구와 실제

01 발표와 연설

탐구 1 다양한 표현 전략을 활용한 발표

본책 122~129쪽

* 확인 문제

- 01 ① 02 ① 03 ③ 04 ④ 05 ③ 06 ④ 07 ⑤
08 ③ 09 ② 10 ① 11 ⑤ 12 ① 13 ② 14 ⑤

01 발표는 청중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어떠한 사실을 전하는 말하기로, 주로 정보를 전달하여 청중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중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는 연설이다.

02 언어적 표현 전략은 발표 상황이나 내용에 적절한 어휘나 문장 등을 사용하는 표현 전략으로, 내용 연결 표현, 다양한 표현 방법,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성조'는 준언어적 표현, '몸짓'은 비언어적 표현에 속한다.

03 <보기>는 발표의 첫머리에서 전체 내용을 개관하는 것으로 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언어적 표현 전략은 어휘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선'은 발표자의 눈이 향하는 방향으로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인용과 문답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④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은 발표에 참신한 느낌을 더해 주는 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⑤ 앞으로의 내용을 안내하는 것은 내용 연결 표현을 활용하는 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04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 청중은 발표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발표자는 자신의 의도에 맞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해야 한다.

05 성량, 속도, 어조(ㄱ)는 말을 할 때 언어적 표현에 덧붙여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준언어적 표현이다. 시선, 표정, 몸짓(ㄴ)은 말을 할 때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외에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 표현이다.

06 '(안타까운 표정으로)'는 마음속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얼굴의 모습인 표정을 나타내므로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준언어적 표현은 성량, 속도, 어조 등을 나타내므로 준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려면 (안타까운 어조로) 혹은 (강한 목소리로) 정도가 적당하다.

07 '(청중을 향해 미소를 띠며)'라는 부분에서 비언어적 표현 중 표정을 활용하는 발표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08 <보기>는 앞으로의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 연결 표현으로 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용 연결 표현은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09 "화석 연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은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나 아주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서 플라스틱의 성능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가격은 비싸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은 문답법과 같은 표현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언어적 표현 전략, ㉡은 표정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비언어적 표현 전략, ㉢은 속도(말의 빠르기)를 조절하고 있으므로 준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11 발표자가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부분은 있어도 반대로 발표자가 청중의 질문을 받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빨대가 비슷해 보이죠?"에서 알 수 있다.

② "(왼손을 들며), (오른손을 들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등에서 알 수 있다.

③ 발표자는 기존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를 소품으로 준비하여 청중이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게 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큰 목소리로 바이오 플라스틱의 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바이오 플라스틱의 전망에 대해서는 밝은 어조로 발표하는 등 준언어적 표현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2 발표자는 전개부가 아니라 도입부에서 자신의 진로 계획을 밝히며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 소개하겠다는 발표의 목적을 말하고 있다.

13 바이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친환경 소재로, 기존 플라스틱보다 분해되는 시간이 짧다.

14 ㉠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강도가 약하다는 한계를 밝히고 있다. ㉡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밝히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은 표정을 활용한 것으로,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② ㉡은 어조(말의 분위기를)를 활용한 것으로,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③ ㉢은 바이오 플라스틱이 우리 삶 전반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는 발표자의 긍정적인 마음을 밝은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④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함께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친다.

★ 확인 문제

01 연설 02 ⑤ 03 ④ 04 ② 05 ② 06 ⑤ 07 ⑤
08 ① 09 ② 10 ③ 11 ⑤ 12 ④

01 **시술형** <보기>는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 중 연설에 대한 설명이다. 연설의 화자는 연설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 화자의 공신력을 활용한 설득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02 이성적 설득 전략은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이다. 이때 근거는 주장과의 연관성이 분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화자의 주관적 의견은 이성적 설득 전략에 적합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03 ④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이나 원칙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인 귀납 논증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연역 논증의 예이다.

04 감성적 설득 전략은 연설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작 부분에서 청중의 공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고, 끝부분에서 청중의 지지와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감성적 전략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논리적 오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감성적 설득 전략은 이성적 설득 전략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전략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③ 같은 내용의 연설이라도 화자에 따라 이성적 설득 전략이나 감성적 설득 전략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화자의 공신력은 성품이나 평판, 전문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화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④ 주장에 대한 근거는 주장과의 연관성이 분명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⑤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귀납 논증이 아니라 연역 논증에 해당한다.

05 공신력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으로, 청중이 화자에게 가지는 신뢰감과 관련된다.

06 연설은 청중을 앞에 두고 설득하는 말하기이므로, 청중을 보며 자신 있게 말해야 한다. 연설문을 끝까지 보고 읽는 것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행동으로 청중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연설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실수하더라도 끝까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07 ⑤는 화자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논증 방법으로 이는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화자의 공신력과 관련 있다.

08 공신력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으로, 연설에서는 청중이 화자에게 가지는 신뢰감과 관련된다. 이 연설에서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는 요소는 예술과 건축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상한 화자의 전문성과 평판이다. 반면, 화자와 전문가들의 갈등 경험은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

09 연설가인 마야 린은 서론 부분에서 예술 대학교를 졸업하는 청중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온 시간과 경험을 그들의 예술 작품에 반영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로 보아 연설가는 예술 작품에 예술가의 삶이 반영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이 연설의 화자는 갓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생들에게 젊음의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설득하고 있다. 자신 역시 대학을 졸업할 때쯤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젊음 덕분이었다며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근거로 들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결론에서 우리는 예술을 통해 천 년 전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 알 수 있고, 또 천 년 후 사람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술을 통해 우리를 엿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② 본문에서 예술가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④, ⑤ 본문에서 예술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청중과 같은 예술가에게 역할과 책임이 따르며, 그들의 목소리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1 화자는 유명한 예술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근거로 들어 예술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다른 시대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12 '감내하다'는 '어려움을 참고 버티어 이겨 내다.'라는 뜻이므로 ④의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④에는 '욕망을 마음껏 충족하다.'라는 뜻의 '만끽하다'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방관하다'는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다.'라는 뜻이므로 문맥에 적절하다.

② '일조하다'는 '얼마간의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므로 문맥에 적절하다.

③ '직감'은 '사물이나 현상을 접하였을 때에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아니하고 진상을 곧바로 느껴 알. 또는 그런 감각.'이라는 뜻이므로 문맥에 적절하다.

⑤ '유랑하다'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다.'라는 뜻이므로 문맥에 적절하다.

모단원 평가 문제

01 ④ 02 ③ 03 ⑤ 04 ① 05 ⑤ 06 화자의 공신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술과 건축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상한 화자의 전문성과 평판이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01 (라)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기존의 플라스틱보다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강도가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바이오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02 발표를 준비할 때에는 예상 청중의 관심사, 배경지식, 주제에 대한 태도, 지적 수준 등을 분석하여 청중에게 적합한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이 발표에서는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연구 사례를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오늘은 환경 생태 공학과 관련해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라는 부분에서 발표의 목적이 드러난다.

② 화자는 청중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바이오 플라스틱은 옥수수, 해조류와 같이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입니다.”라고 말하며 용어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④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발생한 생활계 폐기물은 약 4,682천 톤이며, 이는 2010년에 비해 약 2.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라는 부분에서 화자가 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기후 위기 극복을 도울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이 곧 우리 삶 전반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라는 부분에서 발표자의 바람이 드러난다.

03 ‘(밝은 어조로)’라는 부분에서 준언어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선,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은 (마)에서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오늘은 환경 생태 공학과 관련해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 연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맞아요. 정말 많죠.”에서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다.

③ “(큰 목소리로)”라는 부분에서 성량을 조절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안타까운 표정으로)”라는 부분에서 표정을 활용하여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보완하고 있다.

04 화자는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경험은 창의적인 발상에 도움을 주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경험이 창의적인 발상을 막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 화자는 자신이 대학교 졸업 당시 워싱턴 디시의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관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험과 그때 겪었던 갈등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청중과 비슷한 나이에 겪었던 경험을 사례로 들어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설의 설득력과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비’ 프로젝트를 맡았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직접 관련 사진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② 권위 있는 예술가들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반대로 청중에게서 질문을 받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④ 화자가 심사한 작품이 아니라 자신이 졸업 당시에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한 경험을 말하고 있다.

06 **인성형** 공신력은 화자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뜻하며, 연설에서 화자의 공신력은 성품, 평판, 전문성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이 연설의 화자는 예술과 건축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상했으므로, 청중은 화자가 전문성과 좋은 평판을 갖춘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화자의 공신력이 높다고 썼다.	☐
화자의 전문성과 평판이 화자의 공신력을 높인다고 썼다.	☐

02 토의와 토론

탐구 1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토의

본책 142~153쪽

* 확인 문제

01 ④ 02 ④ 03 ③ 04 ④ 05 ⑤ 06 ⑤ 07 ④
08 ① 09 ④ 10 해결 방안의 장단점,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 11 ② 12 ⑤ 13 ① 14 ② 15 ⑤

01 토의는 승패를 가르는 활동이 아니라 협력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참여자는 의견을 제시할 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02 토의는 공동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안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④는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이므로 토의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03 <보기>의 ㉠에 들어갈 토의의 의사 결정 단계는 ‘대안의 판단·준거 설정’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기 위해 대안의 판단 준거를 설정한다.

| 오답 풀이 | ① ‘문제의 인식과 분석’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② ‘대안의 도출’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④ ‘대안의 분석 및 평가’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⑤ ‘합리적인 대안 선택과 문제 해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04 '대안의 판단 준거 설정' 단계에서 판단 준거와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는 다수결로 빠르게 처리해서는 안 되고 토의 참여자들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05 '합리적인 대안 선택과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토의를 통해 선택한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토의는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세우는 것이지, 실제로 실행한 후의 결과를 판단하는 과정이 아니다.

06 토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대안을 분석·평가할 때에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오답 풀이 | ① "그건 말도 안 돼요."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 대신, "좋은 의견이지만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와 같이 우회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 가능성에 주목하여 칭찬하는 "좀 더 구체화하면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그 대안은 좀 별로네요."와 같은 전체적인 비판보다는, "그 대안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가 있습니다."와 같이 부분적·구체적으로 비판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④ "결국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와 같은 단정적인 비판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렇게 바꿔 보는 건 어떨까요?"처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07 자료 ④ '희망시 지역 신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이 지역 환경에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부족한 가로등 개수'라고 답한 시민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③ 자료 ③ '희망시 상시 가로등 배치 현황'에 따르면, 희망시의 가로등은 아파트 밀집 지역인 우주동에 33.98%, 지구동에 27.99%가 배치되어 있다. 즉, 아파트 밀집 지역에 전체 가로등의 61.97%가 배치되어 있어 구도심 지역의 주택가와 도시 외곽 지역에 가로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② 자료 ① '희망시 시청 누리집 게시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자료 ② '희망시 시설 교체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희망시 전체 가로등 전구 가운데 79.98%가 2022년에 교체되었다.

08 가로등의 밝기에 대한 의견은 '대안의 도출' 단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어두운 가로등의 밝기는 '문제의 인식 및 분석' 단계에서 희망시 지역 신문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기존 가로등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 오답 풀이 | ② 김 교수가 도출한 대안이다.

③, ④ 황 변호사가 도출한 대안이다.

⑤ 이 박사가 도출한 대안이다.

09 이 박사 연구 팀의 희망시 가로등 문제 관련 실태 조사에 따르면, 범죄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은 가로등이 부족한 구도심 지역 주택가(ㄷ)와 도시 외곽 지역(ㄴ)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박사는 해당 지역에 가로등을 증설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 오답 풀이 | ㄱ, ㄴ, 자료 ③ '희망시 상시 가로등 배치 현황'에 따르면 희망시의 가로등은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전체 가로등의 60퍼센트 이상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가로등이 부족한 곳이라 볼 수 없다.

10 **| 시술형 |** 사회자는 "이제는 제안해 주신 해결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이 토의의 판단 준거 두 가지를 밝혔다.

11 '대안의 분석 및 평가' 단계에서 박 국장은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로등 주변의 수목 정리 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면 곧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였다.

12 토의 참여자(황 변호사)는 청중의 질문을 듣고 "옳은 말씀입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제시한 대안인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기 전 실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청중은 황 변호사가 제안한, 신시가지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자는 대안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있다.

② 청중이 "우주동은 인구가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범죄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격등제를 실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우주동에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중은 희망시 내 지역별 인구 비율 자료를 근거로 황 변호사의 대안에 대한 비판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황 변호사는 청중의 질문을 듣고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을 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답변하고 있지는 않다.

13 사회자는 "오늘 토의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대안들이 우리 희망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토의의 의의를 밝히고 있고(ㄴ), "이상으로 희망시 가로등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ㄱ).

14 범죄나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은 가로등 설치가 시급한 지역이다. 사회자는 가로등 설치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엘이디 가로등이나 스마트 가로등을 증설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등 전구 교체와 수목 정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논의를 종합하고 있다.

15 이 토의는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후 청중과 질의응답하며 의견을 나누는 패널 토의이다. ⑤는 토의의 유형 중 심포지엄에 대한 설명이다.

★ 확인 문제

- 01 ㉠: 반대 신문, ㉡: 반론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01 **새싹형** 반대 신문식 토론의 과정은 ‘입론 - 반대 신문 - 반론’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입론’은 찬반 양측이 처음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단계이고, ‘반대 신문’은 상대측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논리적 허점이 드러나도록 질문한 후 상대측의 답변을 듣는 단계이다. ‘반론’은 찬반 양측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장을 발언하는 단계이다.

02 토론에서 쟁점을 분석하여 논증을 구성할 때는 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논리적인 허점을 무작정 감추려 하기보다는 논리적 허점이 나오지 않도록 논증을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03 ㉢는 반론 단계가 아니라 반대 신문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반대 신문은 토론에서 상대측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논리적 허점이 드러나도록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토론자는 상대측의 입론에 나타난 주장과 이유, 근거를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오류를 검증하는 질문을 제시한다.

04 반대 신문은 상대측의 주장과 근거에 나타난 논리적 허점을 검증하기 위한 단계이다. 반대 신문은 상대측 논리에 나타난 오류를 검증하는 것이므로 상대측이 발언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거나, 상대측의 발언에 반박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 참고 자료

반대 신문 시 유의할 점

반대 신문을 할 때에는 상대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자기주장을 하면 오히려 상대측 토론자가 그 주장에 대해 질문하여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유나 근거를 단순히 요구하는 질문만으로는 논증의 오류를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상대가 말한 내용에서 오류를 찾아 이를 점검해야 한다.

05 <보기>는 상대측이 근거로 제시한 공공 기관의 사례를 개인 사업장의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증하고 있다. 즉, 근거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식이 합리적인지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반대 신문에 해당한다.

06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 장황하게 말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즉흥적으로 답하면 오히려 청중의 신뢰를 잃어 토론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변명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제시하겠습니다.”라고 간략히 답변하는 것이 좋다. 또 상대의 질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07 상대측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논리적 허점이 드러나도록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단계인 반대 신문은 토론자가 상대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제를 깊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반대 신문은 토론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여 토론을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만든다(㉡). 한편, 청중은 반대 신문을 통해 토론자들이 다양한 쟁점을 제시하고 서로의 주장을 비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논제에 대해 더욱 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오답 풀이 | ㉣. 반대 신문 단계가 없다면 양측은 각자 사전에 준비한 내용만을 발언하게 되어 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 즉 ㉣은 반대 신문의 의의가 아니라 반대 신문이 없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해당한다.

08 토론은 특정한 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이 각각 자기 측의 주장이 옳고 상대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이러한 토론은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논리를 검증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므로, 상대측을 제압하거나 승패를 가르는 데에만 열중한다면 토론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09 이 토론은 세 가지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에 대한 쟁점이고, ‘문제 해결 가능성’은 ‘설탕세 도입으로 여러 질병 예방이 가능하다.’에 대한 쟁점이다. 마지막으로 ‘이익과 비용’은 ‘설탕세 도입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에 대한 쟁점이다.

10 질병 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2019년 33.8퍼센트, 2020년 38.3퍼센트, 2021년 37.1퍼센트로 나타났다. 2021년의 비만율은 2020년에 비해 1.2퍼센트포인트 감소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2019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문제의 심각성 쟁점에서 찬성 측은 질병 관리청이 제공한 우리나라의 비만을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비만과 사회 경제적 손실 관련 통계 자료는 이익과 비용 쟁점에서 제시한 근거이다.

➤ 참고 자료

필수 쟁점에 따른 찬반 주장

문제의 심각성	• 찬성: 문제가 매우 심각함. • 반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
문제 해결 가능성	• 찬성: 해결 방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함. • 반대: 해결 방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실행 불가함.
이익과 비용	• 찬성: 비용보다 이익이 큼. • 반대: 이익보다 비용이 큼.

- 12 이 토론의 반대 신문 과정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해석이 적절한지를 검증하며 “그렇다면 2021년에 설탕세를 도입하지 않고도 개인의 활동량 증가만으로 비만율이 1.2퍼센트포인트 감소한 것이 맞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다. 이에 찬성 측은 2021년의 비만을 변화에 대해서는 반대 측의 지적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찬성 측이 반대 신문에서 지적된 내용을 모두 반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② 반대 측은 “설탕세 도입으로 비만, 당뇨 등의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며, 찬성 측의 주장과 이유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검증하고 있다.

- ③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질병 관리청의 우리나라 비만을 통계 자료에 대한 해석이 적절한지를 검증하고 있다.
 ④ 반대 측은 찬성 측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 허점이 드러나도록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반대 신문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⑤ 찬성 측은 반대 측의 반대 신문에 대해 세계 보건 기구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답변하고 있다.

- 13 반대 측의 입론에 따르면 덴마크에서는 2013년에 설탕세를 도입하자 설탕이 포함된 식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② 가람대 병원 의학 정보에 따르면 비만은 설탕뿐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이나 고지방 식품 섭취를 원인으로 하며, 당노는 인슐린 부족을 원인으로 한다.

- ③ 덴마크에서는 설탕세 도입 이후 설탕이 포함된 식품의 가격이 오르자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더 싼 식품을 구매해 오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후 식품업체의 폐업이 이어지자 설탕세가 폐지되었다.
 ⑤ 질병 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5년 흡연율은 22.6퍼센트이고, 같은 해 담뱃세 도입 후 흡연율은 2016년 23.9퍼센트, 2017년 22.3퍼센트, 2018년 22.4퍼센트로 큰 차이가 없었다.

- 14 반대 측은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한 쟁점에서 설탕 섭취를 주요 질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한 근거로 가람대 병원 의학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가능성과 관련한 쟁점에서 설탕세를 도입하여 국민의 설탕 섭취량을 줄일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한 근거로 질병 관리청의 담뱃세 관련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15 반대 측은 덴마크를 제외하고 설탕세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국가가 또 있다는 찬성 측의 반대 신문에 솔직하게 “그것은 알아본 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찬성 측은 “전 세계 40여 개의 국가가 설탕세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설탕세를 폐지한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며, 반대 측이 근거로 제시한 사례가 일반적인지 검증하고 있다.

② 찬성 측은 상대방이 ‘예, 아니요’와 같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폐쇄형 질문을 하고 있다.

④ 찬성 측은 “담배와 설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반대 측이 제시한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타당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반대 측은 담뱃세 사례를 바탕으로 설탕세 도입 효과를 짐작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찬성 측의 반대 신문에 대해 “담배와 설탕의 차이와 별개로 ~”라고 답하며, 담배와 설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 16 설탕의 대체재 사용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설탕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설탕세 도입을 반대하는 측이다.

모단원 평가 문제

본책 166~169쪽

01 ② 02 ② 03 ③ 04 ① 05 ⑤ 06 ③ 07 ②
 08 ③ 09 ⑤ 10 ② 11 ②

- 01 토의의 시작 부분에서 사회자는 ‘희망시 가로등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어서 가로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의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 02 황 변호사는 “저도 이 박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며, 희망시 가로등 배치가 부적절하다는 이 박사의 의견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황 변호사가 이 박사의 의견에 반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이 토의는 전문가들이 주제와 관련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청중과 질의응답하며 의견을 나누는 패널 토의이다.

③ 박 국장은 일부 지역에서 야간에 범죄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글이 시청 누리집에 지속적으로 올라왔다고 말하며 희망시 가로등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황 변호사는 희망시 지역 신문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로등 주변의 수목으로 인해 가로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시민 의견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⑤ 김 교수는 희망시 시설 교체 사업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가로등 전구 대부분을 새로 교체해야 하는 상태임을 설명하고 있다.

03 이 박사에 따르면 희망시의 가로등은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전체 가로등의 60퍼센트 이상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희망시의 구도심 지역의 주택가와 도시 외곽 지역에는 가로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04 김 교수는 수명이 다 된 가로등 전구를 교체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가로등 주변 거미줄을 제거하자는 대안은 이 토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05 [A]는 토의의 시작 단계로 사회자는 토의의 주제와 토의 참여자들을 소개하며 토의를 시작하고 있다. [B]에서 사회자는 앞서 토의자들이 제시한 대안을 요약정리하고, 토의의 다음 단계를 안내하며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06 희망시의 가로등은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전체 가로등의 60퍼센트 이상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의 자료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이 수목에 가려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07 찬성 측은 입론에서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 가능성, 이익과 비용 쟁점에 따라 논증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설탕세 도입을 주장한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질병 관리청, 영국 공중 보건국, 한 연구 기관, 국민 건강 보험공단 등에서 제공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설탕세는 자국민의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 설탕 첨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④ 영국의 사례를 근거로 설탕세 도입이 국민의 설탕 섭취량 감소와 여러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⑤ 질병 관리청 자료를 활용하여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토론의 논제

사실 논제	사실의 진위 여부를 논하는 것. 논쟁의 핵심 쟁점은 참이냐 거짓이냐에 관한 것이다. ㉠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등
가치 논제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논하는 것.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등을 다룬다. ㉡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스마트 기기는 아동에게 해롭다.' 등
정책 논제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의 차이를 논하는 것. 주로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실행 여부를 묻는다. ㉢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등

08 토론에서 반대신문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 안에서 질문해야 한다.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입론에서 주장한 내용,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만 반대신문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이유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며 근거가 충분한지 검증하고 있다.

② ㉡에서 찬성 측은 공신력 있는 세계 보건 기구의 자료를 인용하여 답변하고 있다.

④ ㉢에서 찬성 측은 반대 측의 지적을 '네, 말씀하신대로 ~'라고 수용한 뒤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 가고 있다.

⑤ ㉢에서 반대 측은 개인의 활동량 증가만으로 비만율이 감소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09 반대 측은 덴마크를 제외하고 설탕세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국가가 또 있다는 찬성 측의 반대신문에 "그것은 알아본 바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즉, 반대 측은 덴마크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설탕세가 폐지되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사회자는 "네, 반대 측에서 ~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반대 측의 입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② 반대 측은 입론에서 담뱃세 도입이 흡연률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들어, 설탕세가 설탕 섭취량 감소에 실제로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③ 반대 측은 입론에서 설탕은 비만이나 당뇨 등 주요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찬성 측은 반대신문에서 담배와 설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담뱃세 사례를 바탕으로 설탕세 도입 효과를 짐작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증하고 있다.

10 과도한 설탕 섭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쪽은 찬성 측이다. 반대 측은 설탕이 비만이나 당뇨 등 질병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은 설탕의 과도한 섭취와 관련된 것이지 설탕 그 자체는 건강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11 반대 신문은 제한된 시간 안에 질문과 답변이 오가므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대화와 협상

탐구 1 나를 알고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

본책 172~177쪽

확인 문제

01 ① 02 ④ 03 ⑤ 04 ⑤ 05 ③ 06 ① 07 ②
08 ② 09 ③

01 대화는 단순히 정보나 정서를 주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공유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02 자아 개념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생각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의 의사소통 방식에 해당한다.

03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런 영향이 쌓이다 보면 개인이 가진 자아 개념이 고착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긍정적 자아 개념이든 부정적 자아 개념이든 한 번 형성되었다고 영원불변한 것은 아니므로, 부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되었다면 긍정적 자아 개념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04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솔직한 태도를 취한다. ⑤에서 A는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고 있으며, B는 상대방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B는 상대방의 칭찬을 부인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② B는 상대방의 처지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

③ A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말을 하고 있으며, B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④ B는 웃이 마음에 들면서도 다른 웃을 골라 보라는 점원의 말에 자신의 생각을 소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05 일방적이거나 과도한 자기표현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 대인관계 형성이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에는 자신과 상대방의 친밀도와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한 속도와 정도로 자신을 표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6 민식과 준서의 대화에서는 반 회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민식이 “우리 반 회장은 좀 차갑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반 회장은 준서가 아닌 제3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난 오늘 전학 온 김민식이야.”라는 민식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준서와 민식이 대화 중 “우리 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나 사실 요즘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거든.”이라는 민식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대화를 시작하며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준서와 민식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07 준서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지나치게 자기표현을 하는 민식의 태도에 당황해하고 있다.

08 일반적으로 관계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는 출신 지역이나 학교, 지위 등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자아를 주로 드러내고, 관계가 점차 친밀해질수록 성격이나 감정, 개인적 경험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자아를 드러낸다. 그러나 민식은 대화 초반부터 자신의 속상한 감정과 개인적인 경험을 비교적 많이 드러내고 있으므로, 사회적 차원의 자아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자아를 과도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9 처음 만난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갈 수 있는 주제가 적절하다. 오늘의 날씨와 같은 일상적이고 가벼운 주제는 상대방과의 친밀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반면 인생관이나 개인적인 고민, 비밀과 같은 주제는 친밀도가 형성된 이후에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탐구 2 모두의 만족을 이끄는 협상

본책 178~187쪽

확인 문제

- | | | | | | | |
|------|------|------|------|------|------|------|
| 01 ③ | 02 ① | 03 ③ | 04 ③ | 05 ③ | 06 ④ | 07 ② |
| 08 ③ | 09 ② | 10 ③ | 11 ② | 12 ① | 13 ② | 14 ④ |
| 15 ① | 16 ① | | | | | |

01 협상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가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이다.

02 협상은 타협과 조정을 거쳐 갈등의 해결 방법을 찾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따라서 협상의 목적은 어느 한쪽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 데 있다.

03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협상의 절차 중 조정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오답 풀이 | ① 시작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협상의 쟁점을 분명히 한다.

② 시작 단계에서는 협상 참여자들이 각자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밝히고 이를 공유한다.

④ 시작 단계에서 우리 측과 상대방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면, 이후 실현 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⑤ 협상 참여자들의 입장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협상 주제의 세부 요소에 대한 선호도는 다를 수 있다. 시작 단계에서 이를 분석하면 이후 의견 조율에 도움이 된다.

04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는 여러 개의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면 상대측에게 여러 대안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우리 측이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 또한 상대측이 양보에 대해 가지는 반감을 줄일 수 있다.

05 <보기>에서는 내일 입을 옷에 대해 ‘동생’이 ‘언니’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하려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06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 중에 협상 참여자들이 새로운 갈등을 맞이하게 된다면, 갈등 상황을 분석하여 모두의 만족을 이끄는 창의적인 대안을 탐색해야 한다.

07 협상의 해결 단계에서는 논의된 대안 중에서 협상 참여자 모두의 만족이 가장 큰 해결책을 최선의 해결책으로 선택한다. 이때 협상 없이 이룰 수 있는 결과보다 협상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해당 해결책을 수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해결책을 수락하여 얻는 이익이 협상 없이 이룰 수 있는 결과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결책을 거부할 수 있다.

08 생명과학부는 며칠 전에 열렸던 옆 학교 축제에서 비누 만들기 활동을 진행한 화학부 부스가 인기가 많았으며, 화학부가 비누 만들기 활동으로 바꾸라고 설득하고 있다.

09 합의서에는 협상 참여자들이 합의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협상을 마무리하며 생명과학부는 “생명과학부가 화학부의 남은 재료를 활용하는 대신 비누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를 사서 화학부에 주고”라며 합의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즉 ②는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10 “오늘은 축제 마지막 날 열리는 자선 공연을 어느 마을에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라는 도담 마을 대표의 말을 통해 이 협상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람 공원 홍보는 도담 마을이 자선 공연을 자기 마을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와 관련된다.

② 해당 축제는 도담 마을과 소담 마을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역 축제이다.

④, ⑤ 먹거리 장터와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번 협상의 목적이 아니다.

11 협상 과정에서 도담 마을 대표는 소담 마을에 공연을 진행할 만한 적절한 장소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에 대해 소담 마을 대표는 마을 주민 운동장이 넓게 조성되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소담 마을에는 공연을 진행할 만한 장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 “갈대밭이 아름다운 가람 공원에서 자선 공연을 진행한다면 도담 마을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도담 마을 대표의 말을 통해, 도담 마을은 자선 공연을 통해 가람 공원을

알리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저희는 이번 축제를 통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라는 소담 마을 대표의 말을 통해, 소담 마을은 자선 공연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함을 알 수 있다.

13 ㉠에서 도담 마을 대표는 자연재해를 겪은 소담 마을의 예산이 부족한지 확인하고 있다. 이는 협상의 주제와 관련하여 협상 참여자의 능력과 조건을 파악하려는 시작 단계의 전략으로, 상대측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14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소담 마을이 축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운영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주민 운동장은 자선 공연 장소로 논의되던 곳이지 체험 프로그램 장소로 논의된 장소도 아니다.

15 소담 마을 대표는 축제 캐릭터가 도담 마을의 가람 공원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역 축제의 캐릭터라는 점과 캐릭터 수익금이 전체 수익금의 20퍼센트나 된다는 점을 들어 캐릭터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16 도담 마을과 소담 마을 모두 지역 축제의 자선 공연을 자기 마을에서 진행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에서는 도담 마을이 자선 공연을 자기 마을에서 진행하는 대신 축제 예산을 더 부담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 상대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우리 측의 의견이나 제안을 조정하여 제시하는 전략에 해당한다.

오답원 평가 문제

본책 188~189쪽

01 ② 02 민식이 준서와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03 ④ 04 ③ 05 ③

01 자아 개념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능동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02 **㉠** **서술형** 오늘 전학 온 민식은 준서에게 우리 반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지 묻는 등, 아직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 개인적 차원의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민식의 대화 방식으로 인해 준서는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상대와의 친밀도를 고려하지 않은 민식의 과도한 자기 표현에 대해 썼다.	☐
<조건>의 형식에 맞게 썼다.	☐

03 이 협상의 목적은 도담 마을과 소담 마을 두 마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역 축제 마지막 날의 자선 공연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여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두 마을 모두 자신의 마을에서 자선 공연을 열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04 도담 마을의 가람 공원에서 자선 공연을 진행하는 대신 축제 캐릭터를 가람 공원과 관련된 것으로 제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담 마을이 전체 축제 홍보 비용의 70퍼센트를 부담하고 소담 마을이 30퍼센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축제 홍보 비용을 도담 마을 60퍼센트, 소담 마을 40퍼센트로 부담한다는 ③은 협상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05 ㉠은 축제 캐릭터를 도담 마을의 가람 공원과 관련된 것으로 만드되, 캐릭터 수익금을 소담 마을에도 배분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양보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190~195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③ 05 ③ 06 ④ 07 ⑤
08 ② 09 ② 10 ② 11 ④ 12 ⑤ 13 ⑤ 14 ①
15 ⑤ 16 ⑤ 17 ③

01 발표자는 전개부에서 바이오 플라스틱과 기존 플라스틱을 비교·대조하며 바이오 플라스틱의 장점을 밝히는 한편 한계도 제시하고 있다.

02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는 것(㉠)은 몸짓으로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외에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시선, 표정, 몸짓 등을 말한다.

03 감성적 설득 전략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논리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감성적 설득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04 (가)에서 화자는 자신의 졸업 당시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여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설의 설득력과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대사, 피카소의 「게르니카」, 아이웨이웨이의 다큐멘터리 영화 「유랑하는 사람들」과 같은 유명 예술 작품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여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성적 설득 전략은 유명 예술 작품의 사례를 예로 든 (나)에만 활용되었다.

② 귀납적연역적 논증은 이성적 설득 전략의 대표적인 방법이나, (가)와 (나)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가)는 청중이 공감할 만한 화자 자신의 졸업 당시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 이미 입증된 일반적 이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가)는 청중에게 감정을 느끼게 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 통계 자료를 인용한 이성적 설득 전략은 활용되지 않았다.

05 청중의 질문에 방어적이거나 장황하게 답변할 경우 오히려 청중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화자는 자신 있게 답변해야 한다. 또한 모르는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솔직하게 답변하고 청중의 비판적인 반응도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화자의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 평판과 관련된다. 청중이 화자를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할수록 화자의 공신력은 높아진다.

② 화자의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 성품과 관련된다. 청중이 화자를 믿음직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판단할수록 화자의 공신력은 높아진다.

④ 화자의 말하기 태도는 화자의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유창하게 말할 때 화자의 공신력이 높아진다.

⑤ 화자의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 전문성과 관련된다. 청중이 화자를 주제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화자의 공신력은 높아진다.

06 토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문제의 인식과 분석 - 대안의 도출 - 대안의 판단 근거 설정 - 대안의 분석 및 평가 - 합리적인 대안 선택과 문제 해결'이라는 의사 결정 단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A]에서 사회자는 다양한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기 위해 '해결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 근거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A]는 대안의 판단 근거 설정 단계에 해당한다.

07 이 박사는 범죄와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새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 외 지역은 기존 가로등 전구를 교체하는 방안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하였다(㉠). 김 교수는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엘이디 가로등 또는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오답 풀이 ㉠ 박 국장은 희망시의 시설 관리 예산 약 4억 원으로 가로등 약 150여 개를 설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박 국장은 가로등 주변 수목 정리 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08 김 교수는 노후 가로등을 엘이디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스마트 가로등을 새로 설치한 사랑시의 사례를 다룬 뉴스 보도를 인용하여, 엘이디 가로등과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는 대안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사회자는 "가로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 제안해 주셨습니다."라며, 앞서 토의 참여자가 도출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있고, 발언 순서를 정하는 등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③ 박 국장은 희망시가 확보한 약 4억 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약 150여 개를 설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④ 황 변호사는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추가 경정 예산과 국비 지원 사업 신청을 제시하고 있다.

⑤ 이 박사는 올해 내에 300여 개 가로등을 모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범죄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과 그 외 지역에 대한 대안을 나누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09 찬성 ①의 입론에서는 설탕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국 공중 보건국이 제공한 설탕세 도입 관련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설탕세를 '자국민의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 설탕이 첨가된 식품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③ "질병 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 높은 편입니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는 2019년 기준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 증가하였다고 합니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한 연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35년까지 매년 비만으로 ~ 경제적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며"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찬성 측은 "네, 말씀하신 대로 소폭 감소한 부분이 있으나"라고 말하며 2021년 비만율이 2020년에 비해 1.2퍼센트포인트 감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뒤이어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비만율 증가와 2021년 비만율이 여전히 기존 추세보다 높은 수준임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11 찬성 ①은 입론에서 설탕세 도입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①은 영국의 설탕세 도입 사례를 근거로, 설탕세 도입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시사한다. ①은 한 연구 기관과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 관련 통계 자료를 근거로, 이익과 비용 쟁점에서 설탕세 도입 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것을 제시한다.

12 (나)의 준서는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식이 개인적 차원의 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질문에 당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계 형성 초기에는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 사회적 차원의 자아를 드러내고,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성격이나 취향 등 개인적 차원의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가)의 남학생은 윤희의 발표를 듣고 부정적 평가를 하였으며, 윤희는 자신이 발표를 못한다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되었다. 이후 여학생의 칭찬에도 윤희는 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④ (나)의 민식은 처음 만난 준서에게 자신의 정보를 지나치게 드러내고 있다.

13 (나)의 민식은 대화에서 자신의 고민이나 개인적 정보를 지나치게 드러내 준서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민식에게는 상대방과의 친밀도와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과 속도

로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도담 마을 대표는 자선 공연을 가람 공원에서 진행하는 대신 축제 홍보 비용을 더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자기 측의 제안을 조정하여 제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제안을 동시에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전략은 사용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② 도담 마을 대표는 캐릭터 수익금을 반반 나누자는 소담 마을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제작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50퍼센트를 소담 마을에 지급하겠다고 상호 만족을 이끄는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도담 마을 대표는 자선 공연을 가람 공원에서 진행하는 대신 축제 홍보 비용 부담을 더 늘리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④ 소담 마을 대표는 작년 마을 축제에서 캐릭터 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캐릭터 수익금 배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⑤ 소담 마을 대표는 자선 공연 장소를 양보하는 대신 캐릭터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해 달라고 요구하며, 자기 측의 양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15 (가)는 협상의 조정 단계로 도담 마을 대표와 소담 마을 대표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며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나)는 협상의 해결 단계로 두 마을은 최선의 해결책을 서로 수락하여 합의에 이르고 있다.

16 소담 마을 대표는 도담 마을 대표에게 캐릭터 수익금을 반반 나누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도담 마을 대표는 제작 비용을 제외한 캐릭터 수익금의 50퍼센트를 소담 마을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내용이 최종 합의로 이어졌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소담 마을은 제작 비용을 제외한 캐릭터 수익금의 50퍼센트를 배분받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7 협상은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다. 따라서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협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우리 측이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오답 풀이 | ① 협상은 일반적으로 시작, 조정, 해결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

②, ⑤ 협상은 갈등 상황에서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④ 해결책을 수락하여 얻는 이익이 협상 없이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적다면 해결책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해결책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많을 경우에는 해결책을 수락할 수 있다.

4. 국어 생활의 성찰

01 국어 생활과 우리말

탐구 우리말의 변화

본책 200~209쪽

★ 확인 문제

01 ④ 02 ② 03 차자 표기 04 ③ 05 ② 06 ④
07 ③ 08 ④ 09 ① 10 ③ 11 ③ 12 • 시제: 현재 시제, • 선어말 어미: -느- 13 ② 14 ⑤ 15 ③

01 중세 국어 시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비로소 우리말을 우리 문자로 적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양반들은 한문을 계속 사용하였고 부녀자층과 서민층에서 주로 한글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훈민정음이 창제되자마자 한자 대신 한글을 중심으로 한 문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翰山의 翰(날개 한)은 한자의 음을 빌려 고유어 지명 '한'을 적은 것이고, '大山'의 '大(클 대)'는 '크다(=하다)'라는 한자의 뜻을 빌려 고유어 지명 '한'을 적은 것이다. 이를 통해 고대 국어에서는 고유어 지명을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의 한자로 표기된 문장에서 조사에 대응되는 한자는 찾을 수 없다.

③, ④ 翰山과 '大山'은 둘 다 같은 곳을 가리키는 지명이므로, 발음이 둘 다 '한산'으로 같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⑤ 翰山이 한자식 지명이고, '大山'이 고유어 지명을 한자를 이용하여 표기한 것이다.

03 **새술형**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말을 적을 마땅한 문자가 없어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기록하였다. 특히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 우리말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고자 하였는데, 이를 '차자 표기'라고 한다.

04 <보기>는 향가「처용가」의 한 구절로, 향찰로 표기한 것이다. 향찰 표기에서 실질 형태소는 주로 한자의 뜻을, 형식 형태소는 주로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는 양상을 보인다. <보기>에서도 연결 어미 '-다가'의 첫음절은 '如(다(갈)을 여)'의 뜻을 빌려 표기했으나 '-이'나 연결 어미 '-다가'의 끝음절은 각각 '伊(저 이)'나 '可(옳을 가)'의 음을 빌려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식 형태소를 주로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夜(밤 야)'와 '入(들 입)'은 모두 한자의 뜻을 빌려 '밤'과 '들'을 표기한 것이다.

② '伊(저 이)'와 '可(옳을 가)'는 모두 한자의 음을 빌려 '-이'와 '가'를 표기한 것이다.

④, ⑤ 향찰 표기는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 우리말 어순에 맞게 우리말 문장 전체를 표기하는 방법이다.

05 '바불 어더머거'에서 '바불'은 '밥'의 종성 'ㅂ'을 목적격 조사 '을'의 초성으로 내려서 쓴 것이다. 이처럼 중세 국어에서는 연결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ㄴ). 또한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의 왼쪽에 점 하나를 찍어 거성을, 두 개를 찍어 상성을 표시하였고, 평성은 점을 찍지 않음으로써 성조를 표기하였다(ㄷ).

| 오답 풀이 | ㄱ. '내아드·룰드려·가려후·시느·니'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는 원칙적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서야 글자 사이를 띄어 쓰기 시작하였다.

ㄷ. 중세 국어 시기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개 자음자만을 받침으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모든 자음자를 받침으로 적는 것은 현대 국어 시기이다.

06 '아·드·룰'은 '아·들'의 끝음절 종성 'ㄹ'을 목적격 조사 '을'의 초성으로 내려서 쓴 것으로, 연결의 방법으로 표기한 것이다. 각 형태소의 음절이나 성분 단위로 밝혀 적는 것은 분철 표기이다.

| 오답 풀이 | ① '·'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모음자이다.

② '아·들'은 현대 국어의 '아들'과 뜻이 같은 말로,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음자 '·'가 쓰여 그 형태만 다르다.

③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말을 적을 마땅한 문자가 없어 한자를 빌려 쓴 반면 <보기>는 모두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로 표기하였다.

⑤ '드려·가려'에서 '드'는 왼쪽에 점이 찍혀 있지 않으므로 평성으로, '려'는 왼쪽에 점이 하나 찍혀 있으므로 거성으로, '가'는 점이 두 개 찍혀 있으므로 상성으로 읽어야 한다.

07 '니'와 '귀'는 중세 국어 시기에 [oj], [uj]와 같은 하향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었으나, 지금은 단모음으로 발음이 변하였다. 따라서 중세 국어 시기에 '니'와 '귀'가 단모음으로 발음되었다고 한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⑥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사례이지만,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과 후의 단어 뜻은 달라지지 않았다.

09 '△(반치음)'은 '지·서(지어)'와 같이 용언에도 사용되었지만, 'ㅁ·슴(마음)'과 같이 명사에도 사용되었다. 'ㅁ·성(순경음 비읍)'도 마찬가지로 '치·벼(추위)', '더·ㅁ·면'과 같이 용언에도 사용되었고, '셔불(서울)'과 같이 명사에도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② 'ㅁ'은 입술을 거쳐 나오는 가벼운 소리로 '가벼운 비읍'이라고도 한다.

③, ⑤ '△'과 'ㅁ'은 현재 사용되지 않으나 현대 국어의 불규칙 활용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자·서'는 '△'이 소멸되어 현대 국어에서는 '지어'로 표기된다. '지어'의 기본형 '짓다'는 '짓고, 지으니, 지어서'와 같이 ㅅ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는 단어이다. 또한 '차·벼', '더·ㅁ·면'은 'ㅁ'의 소멸로 '추위', '더우면'으로 표기된다. 이들의 기본형은 각각 '춡다', '덥다'이고, '춡고, 추우니, 추워서', '덥다, 더우니, 더워서'와 같이 ㅂ 불규칙 활용이 일어난다.

④ '△'과 'ㅁ'은 소실되어 현재 그 음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유성 마찰음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10 중세 국어 시기에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로 ‘-이-’를 사용하여, 청자가 뒷사람일 때 ‘잇느(니)이다’, ‘흐느(니)이다’와 같이 표현하였다. 현대 국어에서는 상대 높임이 선어말 어미가 아닌 종결 어미로 실현된다.

11 중세 국어에서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를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었고, 현대 국어에서도 예스러운 표현으로 추측이나 의지, 의향을 나타낸다. 현대 국어에서는 미래 선어말 어미로 주로 ‘-겠-’을 사용한다.

| 오답 풀이 | ①, ④ 중세 국어 시기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확립되지 않았다. ‘-었-’은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이다.

② 중세 국어 시기의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느-’이다. ‘-는-’은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이다.

⑤ 중세 국어의 ‘-어 잇-’ 구성이 근대 국어 시기에 ‘-었-’으로 굳어졌고, 현대 국어에서는 ‘-었-’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12 **새술형** ‘도흔거·술:내느·니’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느-’를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13 중세 국어 시기에는 ‘되ㅎ, ㄱ롭, 온, 즘느’와 같은 고유어가 사용되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이런 단어들이 각각 ‘산(山), 강(江), 백(百), 천(千)’과 같은 한자어로 대체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되ㅎ’와 같이 끝에 ‘ㅎ’을 가진 단어가 존재했다.

③ 중세 국어 시기에 주격 조사는 ‘이’ 계열의 ‘이나’ ‘이’가 주로 사용되었다.

④ 중세 국어 시기에 명사절을 만들 때 주로 명사형 어미 ‘-음/움’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현대 국어의 명사형 어미 ‘-음’과 대응된다.

⑤ ‘겨레’나 ‘얼굴’은 중세 국어에서 각각 ‘친척’, ‘형상’을 의미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그 의미가 변해 각각 ‘민족’, ‘낯’을 의미한다.

14 ‘내해 ㄷ리 업도다 [개천에 다리가 없도다]’에서 ‘ㄷ리’는 모음 ‘ㅣ’로 끝나므로 주격 조사는 ‘ㄹ(영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아니라 ㉡의 예로 적절하다. ㉢에는 ‘쇠(쇼 + 1) [소가]’와 같은 예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5 ㉠ ‘도구’는 개화기에 일본식 한자어가 우리말에 대량으로 유입될 때 들어온 말로, 서양의 외래어를 우리식 한자어로 대체한 것이 아니다.

01 향찰 표기는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 우리말의 실질 형태소뿐만 아니라 형식 형태소를 표기함으로써 우리말 전체를 종합적으로 표기하던 방식이다. [A]와 현대어 풀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한자가 배열되어 있으므로, 중국어의 어순에 맞게 표기하였다고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 [A]에서 조사 ‘은’과 ‘도’는 각각 ‘隱(숨길 은)’과 ‘都(도읍 도)’의 음을 빌려 표기하였다. 따라서 조사는 주로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④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체언, 용언의 어간, 수식언 등이 해당한다. [A]에서 체언 ‘나’와 ‘말’은 각각 ‘몸(나오)’, ‘辭(말 사)’의 뜻을 빌려 표기하였고, 용언 ‘가다’와 ‘이르다’는 각각 ‘去(갈 거)’와 ‘云(이를 운)’의 뜻을 빌려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 형태소는 주로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02 중세 국어에는 ‘ㅁ, ㅂ, ㅅ’ 등과 같이 초성에서 자음이 연달아 발음되는 어두 자음군이 있었으나, 제시된 문헌에서는 어두 자음군을 찾아볼 수 없다.

03 ㉠ ‘:도:코’는 ‘좋다’를 의미하는 ‘동다’가 활용한 형태로, 어간 ‘동-’의 ‘ㅎ’이 뒤 음절 ‘ㄱ’과 합하여져 ‘ㅋ’으로 축약된 것이다. 구개음화가 발생하면서 ‘동다>좋다’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는 근대 국어 시기에 일어난 변화이다.

04 (가)는 편지글로, 송신자와 수신자가 편지를 주고받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다. 반면에 (다)는 전자 우편으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송신자와 수신자가 즉각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05 **새술형** (가)는 ‘곽주’가 자신의 부인에게 보낸 편지글이므로, ㉠이 가리키는 대상은 ‘아내’이다. (나)에서 ‘김이’ ‘최’에게 “여보게 주삼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은 친구 사이에서 상대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다)에서 상사인 ‘박부장’이 부하 직원을 가리켜 ‘자네’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은 아랫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212~213쪽

01 ② 02 ④ 03 ② 04 ㉠: 거성, 높은 소리, ㉡: 평성, 낮은 소리 05 ③ 06 ③ 07 명사절을 만드는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었다. 08 ④ 09 ⑤

01 훈민정음은 부녀자층이나 서민층을 중심으로 점차 사용 범위가 늘어나다가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서야 문자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02 ‘毛(털 모)’는 ‘뭇’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했지만, ‘云(이를 운)’은 ‘이르다’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하였다.

탐구 활동 학습

본책 210~211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② 05 ㉠: 아내, ㉡ 친구, ㉢: 아랫사람(부하 직원)

| 오답 풀이 | ① '폼(나 오)'는 한자의 뜻을 빌려 '나'를 표기한 것이고, '辭(말 사)'는 한자의 뜻을 빌려 '말'을 표기한 것이다.

②, ③ '隱(숨길 은)'은 한자의 음을 빌려 조사 '은'을 표기한 것이고, '都(도읍 도)'는 한자의 음을 빌려 조사 '도'를 표기한 것이다. 조사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⑤ '去(갈 거)'는 한자의 뜻을 빌려 실질 형태소인 '가다'를 표기한 것이고, '古(옛 고)'는 한자의 음을 빌려 형식 형태소인 '고'를 표기한 것이다.

03 현대어 풀이를 참고하면 '어-렛다-가'는 '얼어 있다가'를 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렛다-가'는 어간 '얼-'에 '-어 잇-' 구성의 축약형인 '-엿-'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중세 국어 시기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차벼'와 같이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 즉 성조를 표기하였다.

③ '차벼'의 '벼(순경음 비읍)'은 순음 '벼' 아래에 'ㅇ'을 이어 쓰는 연서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④ '므리', '어렛다가' 등에서 연철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은 근대 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음가를 상실한 후, 현재는 'ㅏ'나 'ㅑ'로 대체되었다.

04 **서술형** ㉠은 'ㄷ'의 왼쪽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높은 소리인 거성으로 읽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은 'ㄷ'의 왼쪽에 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낮은 소리인 평성으로 읽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과 ㉡의 성조를 밝혀 썼다.	☐
㉠과 ㉡의 성조가 어떤 소리를 가리키는지 밝혀 썼다.	☐

05 '티다'와 '고티다'는 어간 '티-'의 첫소리가 구개음 'ㄷ'으로 바뀌었고, '턴지'는 첫 음절의 첫소리가 구개음 'ㄷ'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보기>와 관련 있는 음운 현상은 구개음화임을 알 수 있다.

06 ㉢에는 중세 국어 시기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의 '께서'에 해당하는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중세 국어에서 '-습(술)'은 문장의 객체를 높일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이므로, 높임의 대상은 '하늘'이다.

② 중세 국어에서 '-아-'는 청자를 높일 때 사용하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따라서 높임의 대상은 '王薦'이 말을 하는 대상, 즉 청자인 '하늘'이다.

④, ⑤ 중세 국어에서 '-사-'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주체를 높일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이다. 따라서 '주시누다'의 주체인 '하느님'이 높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07 **서술형** 중세 국어 시기에 명사절을 만드는 명사형 어미는 주로

'-음/옴'이 사용되었다. <보기>의 밑줄 친 '뿌메'는 '쁘- + -음 + 예'로 분석되며, 어간 '쁘-'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밑줄 친 부분의 명사형 어미 '-음'과 그 역할을 정확히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8 '모·러리·니'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로 '-리-'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 선어말 어미 '-리-'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이나, 주어가 어떤 일을 할 의향이나 의지가 있음을 예스럽게 나타낼 때 사용되며,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① 현대 국어는 분철 표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거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는 연철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구개음화는 근대 국어 시기에 발생한 음운 변동 현상이다. 'ㄷ'이 'ㄴ' 모음 앞에서 'ㄷ'으로 변하지 않고 '모단'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내누·니'에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누-'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거술'에서 목적격 조사로 '을'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아두·를'에서 목적격 조사 '을'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9 사회 제도와 문화가 변하면 과거에 존재하던 기구나 도구, 교통수단 등이 사라져 그것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사라지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게 된다. 반면에 그러한 변화로 새로운 기구나 도구, 교통수단 등이 새롭게 생기면 그것들을 가리키는 새말이 생겨나기도 한다. '포도청, 인력거, 짜편, 안내양' 등은 전자와, '땃글, 반려동물, 혼밥' 등은 후자와 관련 있는 단어들이다.

02 국어 생활과 공동체

탐구 사회적 행위로서의 국어 생활

본책 215~217쪽

확인 문제

01 ② 02 ① 03 ④ 04 ④

01 이 글의 만화를 보면 '떠나고파'와 '비행기'는 '여행최고'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게시글에 댓글을 달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의사소통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02 이 글에서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생산하고 수용하다 보니, 의식적으로 자신의 언어생활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일이 드물다고 말하며, 언어생활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01 ⑤ 02 ⑤ 03 ④ 04 ②

- 01 ① ‘웬일인지’는 ‘어찌 된 일인지’를 뜻하는 ‘웬일인지’로 고쳐 써야 한다. ‘웬지’는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를 뜻하는 말이므로 ‘웬지’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어문 규범에 어긋난 표현의 사례와 올바른 표현

- 웬지 → 웬일
- 웬만하면 → 웬만하면
- 어의없다 → 어이없다
- 짓궂다 → 짓궂다
- 설레임 → 설렘
- 내노라하는 → 내로라하는
- 문안하다 → 무난하다

- 02 (가)의 글쓴이는 외국어 관광 안내 표지판의 오류가 많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나)의 직원들은 (가)의 글쓴이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사회적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냄으로써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는 누리집 게시판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글을 쓰고 표기 오류를 첨부하였으나 음성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 03 (가)의 글쓴이는 □□동은 외국인이 찾는 관광 명소가 많은데, 이를 소개하는 외국어 관광 안내 표지판의 표기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04 준말이나 새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세대 간의 소통을 단절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준말과 새말은 사회의 변화를 담고 있으므로 무조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준말과 새말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저해하지 않고 의사소통의 윤리를 준수하는 선에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대단원 평가 문제

01 ① 02 ③ 03 ④ 04 ⑤ 05 ⑤ 06 ③ 07 ⑤
08 ‘갯생살기’, ‘현타’와 같은 준말과 새말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 01 (가)의 현대어 풀이에서 翰山縣은 ‘한산현’, ‘本’은 ‘원래’, ‘百濟’는 ‘백제’, ‘大山縣’은 ‘대산현’에 대응한다. 즉, 우리말의 ‘은’, ‘의’와 같은 조사를 나타내는 한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가)가

- 03 우리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이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려면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점검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의 측면만 강조할 뿐 사회적 소통 윤리 준수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 04 광고 속 여성은 ‘킹리직’, ‘갯심’, ‘갈비’와 같은 새말이나 준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말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성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준말이나 새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새말

새말은 사회·문화·기술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새롭게 쓰이기 시작한 말을 뜻한다. 이는 기존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새로운 개념이나 현상을 담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언어적 변화이다. 새말은 시대의 흐름과 대중의 관심이 반영되어 빠르게 퍼지기도 하고 유행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런 새말들은 한 시대의 분위기와 문화를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

탐구 활동 학습

01 ④ 02 ③

- 01 ‘은영’은 ‘승찬’에게 마을 사람들이 말 무덤을 만들었는지, 마을의 갈등이 해결되었는지 등을 질문하고 있다. 이는 ‘승찬’의 말을 듣다가 생긴 궁금한 점을 질문한 것일 뿐 ‘승찬’이 제공하는 정보가 객관적인지 검증하려고 질문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② ‘은영’은 신문에 실을 글에 대해 ‘승찬’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으며, ‘승찬’은 ‘은영’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거나 ‘은영’의 질문에 답해 주며 협력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있다.

③ ‘승찬’과 ‘은영’은 문자뿐만 아니라 이모티콘, 사진, 그림 등이 어우러진 복합 언어를 활용하고 있다.

⑤ ‘승찬’은 ‘말 무덤’과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은영’에게 전달해 주면서 ‘은영’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02 ‘승찬’이 소개한 ‘말 무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되짚어 보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승찬’이 ‘말 무덤’ 이야기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생활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을 제안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자의 음을 빌려 우리말 조사를 표기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현대어 풀이를 참고할 때 밑줄 친 ‘隱’은 한자의 음을 빌려서 형식 형태소 ‘느’를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伊(저 이)’는 한자의 음을 빌려서 형식 형태소 ‘-이’를 표기한 것이므로 ‘隱’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 ㉢, ㉣, ㉤은 모두 한자의 뜻을 빌려서 실질 형태소인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을 표기한 것이다.

➤ 참고 자료

향찰 표기 방식

향찰은 신라 시대 향가를 적기 위해 사용된 표기 체계로, 한자의 음(소리)과 훈(뜻)을 빌려 한국어 문장을 온전히 기록한 방식이다. 실질적 의미를 지닌 요소는 주로 훈차, 조사·어미 같은 문법 요소는 음차로 적었으며, 한 문장 안에서도 두 방식이 자연스럽게 혼용되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향찰은 한국어 문장을 완전하게 표기할 수 있었고, 구결이나 이두와 구별되는 독자적 문자 체계로 인정된다.

- 03 ㉠ ‘주어·지어·다’는 청자인 ‘하·눌’을 높이기 위해,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인 ‘-이-’를 사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王蔭’에서 ‘이’는 주격 조사이다.

②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습)’을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하·눌’을 높이고 있다. ‘-습-’은 모음 어미 앞에서 ‘-술-’으로 교체된다.

③ ‘아바·룰’에서 ‘룰’은 목적격 조사이다.

⑤ ‘주시·느·다’에서 ‘-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 참고 자료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

중세 국어에서 주격 조사는 ‘이’, ‘ㅣ’, 그리고 ‘φ(영형태)’가 사용되었다.

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예 노미(놈+이)
ㅣ	앞말이 반모음 ㄹ 나 모음 ㅣ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예 부테(부터+ㅣ)
φ (영형태)	앞말이 반모음 ㄹ 나 모음 ㅣ로 끝나는 경우	예 불휘(불휘+φ)

- 04 ㉠의 ‘어·렛다·가’에서 ‘어·렛’은 용언의 어간 ‘얼-’에 ‘-어 잇-’ 구성의 축약형인 ‘-엿-’이 붙은 형태이다. 중세 국어 시기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선어말 어미로 ‘-엿-’이 사용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은 모두 글자 왼쪽에 점이 찍혀 있는데, 한 개가 찍힌 것은 거성, 두 개가 찍힌 것은 상성, 점이 없는 것은 평성을 표기한 것이다. 한편 현대어 풀이에서는 이러한 방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후·시·느·니’의 ‘-사-’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사-’와 형태나 기능이 동일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아·두·룰’에 쓰인 모음 ‘·’는 현대 국어에서 ‘ㅡ’로 ‘후·시·느·니’에 쓰인 모음 ‘·’는 현대 국어에서 ‘ㅜ’로 바뀐 것에서, 모음 ‘·’가 현대 국어에서 ‘ㅜ’나 ‘ㅡ’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에서 ‘차·벼’와 ‘더·분·면’은 ‘ㅁ’이 사라지면서 현대 국어에서 각각 ‘추워’, ‘더우면’으로 바뀌었다. ‘추워’, ‘더우면’의 기본형인 ‘춡다’와 ‘덥다’가 각각 ‘춡고, 추워, 추우니’, ‘덥고, 더우니, 더워서’처럼 활용되는 데에서, ‘ㅁ’이 단순히 모음 ‘ㅜ’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5 <보기>에서 ‘여행최고’는 여행을 떠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마음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표현하였고, 이를 본 ‘떠나고파’와 ‘비행기’는 댓글을 달아 응원과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보기>는 언어라는 기호(문자, 이모티콘, 해시태그 등)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반응을 주고받으며 상호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보기>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의미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 06 사회적 의사소통은 개인 간의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이므로, 듣는 사람의 요구나 기대를 적절히 반영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ㄱ). 또한 어문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고, 사회적 소통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문 규범과 사회적 소통 윤리를 지켜야 한다(ㄴ). 또한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해야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에 부합하는 성숙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ㄷ).

- 07 <보기>에서는 일반적인 종결 어미가 아닌 ‘-용’, ‘-염’처럼 끝에 ‘ㅇ’이나 ‘ㅁ’을 붙인 표현, ‘저름’과 같이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종결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해라 절해라’, ‘곰셈추위’와 같이 어문 규범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③ <보기>에서 비속어나 욕설, 외래어는 확인할 수 없다.

②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무례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대를 차별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보기>에서 고정 관념이 담긴 관용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

- 08 <시상형> <보기>의 대화에서 ‘선아’는 ‘갓생살기’, ‘현타’와 같은 새말과 준말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지만, 아빠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새말이나 준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그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과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새말이나 준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에서 ‘갓생살기’, ‘현타’와 같은 예를 찾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1. 언어와 의사소통

본책 224~225쪽

언어와 의사소통

- ① 오늘날 ② 지역 ③ 사회 ④ 언어 ⑤ 관습적
⑥ 우회적

- 01 ⑤ 02 (1)㉠ (2)㉡ (3)㉢ 03 ④ 04 ③ 05 ④
06 ③ 07 ④ 08 ③

01 언어는 인간의 사고·사회·문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나, 이 중에서 어느 요인이 영향을 더 미치고 덜 미친다고 가늠하기는 어렵다.

02 ㉠은 '옥수수'의 지역 방언들을 제시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이라도 지역 사회에 따라 언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은 우리말에는 농기구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가 있다는 내용으로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가 담겨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은 언어와 사고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다.

03 <보기>는 '미역국을 먹다'라는 관용 표현이다. 이러한 관용 표현은 대개 그 나라의 전통적 관습이나 역사적 유래와 관련을 맺는다. 또한 관용 표현은 결합 형식이 고정되어 있어 '미역국을 먹다'로 쓰일 때만 제3의 뜻을 나타낸다. '미역국'을 '떡국'으로 바꾸거나 '먹다'를 '만들다'로 바꾸면 관용 표현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 오답 풀이 | ① '미역국을 먹다'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삶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관용 표현이다.

② 관용 표현은 그 나라의 전통적 관습이나 역사적 유래와 관련을 맺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③ 을사늑약 이후 일제가 조선 군대를 강제로 해산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두려움에 '해산(解散)'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못했다. 이때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해산(解産: 아이를 낳음)'을 떠올려 이와 밀접한 행위인 '미역국을 먹다'라는 표현으로 그 의미를 대신했다는 유래가 있다.

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미역국(을) 먹다'의 의미이다. 이처럼 지금은 '미역국을 먹다'가 단체가 해산된다는 의미로는 쓰이지 않고, '떨려 남'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다.

04 우리 문화는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영어에서 'rice'라고 부르는 대상을 '모', '벼', '쌀', '밥'이라는 단어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농경 문화가 발달하여, 벼를 키우는 과정과 밥을 짓는 과정에 따라 명칭이 분화하여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는 우리말이 영어보다 사물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다. '모'는 논에 옮겨 심기 위해 기른 벼의 싹을, '벼'는 모가 자란 것이나 쌀의 껍질을 벗기기 전의 낱알을, '쌀'은 벼에서 껍질을 벗겨낸 알맹이를, '밥'은 쌀에 물을 붓고 알맞게 끓여 익힌 먹을거리를 각각 의미한다.

② 언어의 역사성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④ 우리나라와 달리 농경 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않은 외국에서는 '모', '벼', '쌀', '밥'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물은 존재할 것이다.

⑤ 말에는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라면 '모', '벼', '쌀', '밥'의 뜻을 구별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면 그 뜻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05 '후진국'은 '산업, 경제, 문화 따위의 발전 수준이 기준보다 뒤떨어진 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선진국'과 반의 관계에 있는 말이다. '중진국'은 '국민 소득이나 사회 보장 제도, 경제 발전 따위의 면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에 속하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후진국과 그 의미가 다르다. 금기어 '후진국'을 완곡하게 표현한 단어는 '개발 도상국'이다.

06 교사는 학생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하며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다. 이에 학생은 '아닙니다', '부족한 저'와 같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겸손하게 말하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담화 관습이다.

07 지원자 A와 B는 최종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면접관에게 자신을 뽑아 달라는 뜻을 담아 대답하고 있다. 이때 지원자 B는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저를 뽑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자신을 채용해 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08 우리말에서 '고모, 이모, 큰어머니(백모), 작은어머니(숙모)'와 '친삼촌, 외삼촌, 큰아버지(백부), 작은아버지(숙부)'는 각각 지시하는 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우리말이 영어에 비해 동일한 대상을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게 분화하여 발달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반영되기 때문에 문화의 특성에 따라 언어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②, ⑤ <보기>를 통해 우리말에는 영어보다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세분화되어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족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족 중심의 생활 문화를 지녔으며, 이와 같은 문화가 우리말에 반영되었음을 보여 준다.

④ '큰아버지(백부)'는 둘 이상의 아버지의 형 가운데 맏이가 되는 형을 이르는 말로 이를 영어인 'uncle'로 직역한다면 그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백부'의 뜻을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언어의 탐구와 실제

(1) 발음

본책 226~227쪽

표준 발음과 음운 체계

- ① 뜻 ② 비분절 ③ ㅎ ④ 비음 ⑤ 유음 ⑥ 전설
⑦ 후설 ⑧ 의미

- 01 ④ 02 ④ 03 ⑤ 04 ⑤ 05 ⑤ 06 ① 07 ③
08 ④

0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자음과 모음은 분절 음운으로, 소리의 길이나 억양 및 세기는 비분절 음운으로 분류된다. 이때 발음 기관에 의해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으며 나는 자음은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만 소리를 낼 수 있고, 모음은 모음만으로 소리 낼 수 있다.

02 '해'의 'ㅎ'은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인 마찰음이다.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즉각적으로 터뜨려 내는 소리는 파열음으로, 이에 해당하는 자음은 'ㅂ, ㅃ, ㅍ, ㅌ, ㅊ, ㅋ, ㆁ'이다.

| 오답 풀이 | ① '강'의 'ㅇ'은 비음으로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② '말'의 'ㄹ'은 유음으로 혀끝을 윗잇몸에 살짝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③ '새'의 'ㅅ'은 마찰음으로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이다.

⑤ '재'의 'ㄷ'은 파찰음으로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릴 때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이다.

03 <보기>의 왼쪽에 제시된 'ㅏ, ㅑ, ㅓ, ㅕ, ㅗ'는 단모음이고, 오른쪽에 제시된 'ㅜ, ㅠ, ㅡ, ㅚ, ㅜ', 'ㅛ, ㅜ, ㅜ, ㅛ'는 이중 모음이다. 단모음과 이중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발음할 때의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의 변화 여부이다.

04 첫째 조건인 소리 낼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는 모음은 후설 모음이다. 후설 모음에는 'ㅡ, ㅓ, ㅕ, ㅗ'가 있다. 둘째 조건인 입술 모양이 둥그랗지 않은 모음은 평순 모음이다. 평순 모음에는 'ㅏ, ㅑ, ㅓ, ㅕ, ㅗ, ㅛ'가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조건인 저모음에는 'ㅓ, ㅕ'가 있다. 그러므로 질문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모음은 'ㅓ'이다.

05 '장수'의 'ㅈ'은 센입천장소리이므로 혀가 센입천장에 닿으면서 소리가 시작되며, 마지막 음운인 'ㅊ'이 원순 모음이므로 입술의 모양이 둥그랗게 되면서 소리가 마무리된다.

| 오답 풀이 | ① '장'에는 자음 'ㅈ, ㅇ'이, '수'에는 자음 'ㅅ'이 쓰였다. 또한, '장'에는 모음 'ㅏ'가, '수'에는 모음 'ㅜ'가 쓰였다.

② 파열음은 'ㅂ, ㅃ, ㅍ, ㅌ, ㅊ, ㅋ, ㆁ'이며, 유음은 'ㄹ'이다. 그러므로 '장수'에는 파열음과 유음이 사용되지 않았다. 'ㅈ'은 파찰음, 'ㅇ'은 비음, 'ㅅ'은 마찰음이다.

③ 중모음은 'ㅓ, ㅕ, ㅗ, ㅛ'이며, 전설 모음은 'ㅣ, ㅑ, ㅓ, ㅕ, ㅗ'이다. 그러므로 '장수'에는 중모음과 전설 모음이 사용되지 않았다. 'ㅏ'는 저모음이면서 후설 모음, 'ㅜ'는 고모음이면서 후설 모음이다.

④ '장수'의 '장'을 길게 소리 내어 [장수]로 발음하면 '군사를 거느리는 우두머리' 등의 뜻이고, '장'을 짧게 소리 내어 [장수]로 발음하면 '장사하는 사람' 등의 뜻이 된다.

06 '굴'의 연체동물물 통틀어 이르는 말'인 '굴'과 '자연적으로 땅이나 바위가 안으로 깊숙이 패어 들어간 곳'을 의미하는 '굴'은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먹는 '굴'은 짧게, '동굴'을 의미하는 '굴'은 길게 발음하여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

07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지 않은 이중 모음 'ㄹ'은 첫음절에서는 항상 [ㄹ]로 발음해야 하지만, 첫음절이 아닌 경우에는 [l]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므로 '의의'는 [의:의]가 아닌 [의:의/의:이]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계]와 [개]는 음운 'ㄱ'과 'ㅐ'의 발음으로 뜻을 구별해야 하므로 [개]로 발음한다.

② '진한'의 첫 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④ '주꾸미'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혼동하는 발음 중에 하나로 [쭈꾸미]는 표준 발음이 아니므로 [주꾸미]라고 발음해야 한다.

⑤ [마딘띵지]는 중모음 'ㅓ'를 고모음 'ㅜ'로 잘못 발음한 것으로, [마딘띵지]로 발음해야 한다.

08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로, 자음과 모음뿐만 아니라 문말의 억양이나 말소리의 길이, 높이, 세기 등도 포함된다. ㄱ처럼 자음과 모음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지만, ㄴ과 ㄷ에서 탐구한 억양이나 소리의 길이는 문자 표기로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ㄱ으로 보아 초성, 중성, 종성 중 하나만 바꾸었을 때 예도 단어가 달라지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ㄴ으로 보아 의문문은 문장 끝을 올리고, 감탄문일 경우에는 문장 끝을 그대로 유지하며, 평서문의 경우에는 문장의 끝을 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ㄷ으로 보아 '눈'을 길게 발음할 때에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를 뜻하고, '눈'을 짧게 발음할 때에는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ㄱ으로 보아 분절 음운인 자음이나 모음이 바뀔 때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사실을, ㄷ으로 보아 비분절 음운인 소리의 길이가 바뀔 때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준 발음과 음운 변동

- ① 자음 ② 접미사 ③ 비음 ④ 된소리 ⑤ 종성
⑥ 용언 ⑦ 거센소리 ⑧ 합성어

- 01 ④ 02 ③ 03 ① 04 ② 05 ② 06 ① 07 ⑤
08 ③ 09 ②

01 ‘한 일[한닐]’에서는 앞말의 ㄴ이 ‘ㅣ’로 시작하는 모음과 만나 ‘ㄴ’이 덧붙는 음운의 첨가 현상이 나타난다.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ㄴ 첨가 현상이 나타난다.

| 오답 풀이 | ① ‘빛[빔]’에서는 교체 현상 중 하나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② ‘얼음[어름]’에서는 음운 변동이 아닌 연음 현상이 나타난다.

③ ‘좋은[조은]’에서는 어간의 끝소리 ‘ㅎ’이 탈락하는 탈락 현상이 나타난다.

⑤ ‘좋다[조타]’에서는 ‘ㅎ’과 ‘ㄷ’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줄어드는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02 구개음화는 음절 말의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발이랑[반니랑]’은 실질 형태소인 ‘발’과 ‘이랑’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03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음이 탈락하기도 한다. ‘뺏다’는 ‘푸다’의 어간 ‘푸-’에서 ‘ㅜ’가 탈락한 것이고, 나머지는 ‘-가’가 탈락한 것이다. 용언 어간의 끝모음 ‘-’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 오답 풀이 | ② ‘담가’는 ‘담그다’의 어간 ‘담그-’에서 ‘-’가 탈락한 것이다.

③ ‘썼다’는 ‘쓰다’의 어간 ‘쓰-’에서 ‘-’가 탈락한 것이다.

④ ‘꺼’는 ‘끄다’의 어간 ‘끄-’에서 ‘-’가 탈락한 것이다.

⑤ ‘고파서’는 ‘고프다’의 어간 ‘고프-’에서 ‘-’가 탈락한 것이다.

04 ‘받는다’는 비음이 아닌 자음 ‘ㄷ’이 비음 ‘ㄴ’을 만나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반는다]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나타나므로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나머지는 탈락 현상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아는’에서는 용언의 어간 ‘알-’의 끝소리 ‘ㄹ’이 어미 ‘-는’과 결합하여 탈락하였다.

③ ‘날은[나은]’에서는 용언의 어간 ‘날-’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은’ 앞에서 탈락하였다.

④ ‘삶[삼]’에서는 음절 말의 ‘ㅁ’에서 두 자음 중 ‘ㄹ’이 탈락하고 ‘ㅁ’만 소리 나는 자음군 단순화가 나타난다.

⑤ ‘거친’에서는 용언 어간 ‘거칠-’의 끝소리 ‘ㄹ’이 어미 ‘-ㄴ’과 결합하여 탈락하였다.

05 ‘막일’은 앞말이 자음 ‘ㄱ’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로 시작하므로 ‘ㄴ’이 첨가되어 ‘막닐’로 바뀌는 ㄴ 첨가(㉠)가 나타난다. 그 후, 비음 ‘ㄴ’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어 [망닐]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나타난다. ㄴ 첨가는 두 음운이 만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첨가 현상이고,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교체 현상이다.

06 ‘말형[마형], ‘먹힌다[머킨다], ‘웁고[울코], ‘잡혔다[자편따]’에서는 ‘ㄱ, ㄷ, ㅂ’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으로 축약되어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그러나 ①의 ‘낮선[날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받침 ‘ㄷ’의 영향으로 뒤에 연결되는 ‘ㅅ’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07 ‘숙제[숙제]’와 ‘입술[입술]’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된소리되기는 음운의 교체 현상에 속하므로,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08 ‘눈요기’는 ‘ㄴ’ 소리가 첨가되어 [눈뇨기]로 발음되므로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즉 첨가(㉢)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뉘개[뉘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뉘개’로 바뀌고, 다시 된소리되기에 의해 [뉘개]로 발음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는 모두 교체(㉣)에 해당한다.

② ‘없는[언는]’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으로 탈락(㉤)에 해당한다.

④ ‘높히다[누피다]’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으로 축약(㉥)에 해당한다.

⑤ ‘맛없다[마답따]’는 ‘맛’의 받침 ‘ㅅ’이 ‘ㄷ’으로 교체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또한 ‘없-’의 받침 ‘ㅃ’중 ‘ㅅ’이 탈락되고 ‘ㅂ’이 남는 자음군 단순화, ‘-다’의 첫소리 ‘ㄷ’이 ‘ㄸ’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는 교체(㉣)에,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해당한다.

09 ‘맑다[막따]’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음절 끝의 자음군 ‘ㄹ’ 중 ‘ㄱ’만 발음되고 ‘ㄹ’은 탈락된다. 반면 ‘맑음[말금]’은 탈락(㉤)이 일어나지 않아 자음군 ‘ㄹ’의 ‘ㄹ’과 ‘ㄱ’이 모두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① ‘꽃’이 [꼇]으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것이므로 교체(㉣)에 해당한다.

③ ‘숨이불’이 [숨:니불]로 발음되는 것은 ㄴ 첨가가 일어난 것이므로 첨가(㉠)에 해당한다.

④ ‘좁히다’가 [조피다]로 발음되는 것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므로 축약(㉥)에 해당한다.

⑤ ‘입에’가 [이베]로 발음되는 것은 연음 현상에 해당한다. 이는 앞 음절의 종성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발음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연음 현상은 음운 자체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음운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

(2) 단어

본책 230~231쪽

단어의 분류와 특성

① 불변어	② 이름	③ 지시	④ 인칭	⑤ 수량
⑥ 보조사	⑦ 주어	⑧ 체언	⑨ 용언	
01 ③	02 ④	03 ⑤	04 ③	05 ⑤
06 ③	07 ②	08 ②	09 ③	10 ①

01 단어들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02 불변어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형용사 ‘곱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고운’, ‘고와’ 등으로 형태가 변하므로 가변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그’는 관형사로서 불변어에 해당한다.

② ‘다’는 부사로서 불변어에 해당한다.

③ ‘돌다리’는 명사로서 불변어에 해당한다.

⑤ ‘부터’는 조사로서 불변어에 해당한다.

03 체언은 ‘꽃이’, ‘꽃은’, ‘꽃도’와 같이 일반적으로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또한 체언은 문장 안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체언은 ‘동생이 웃는다.’와 같이 주로 주어 자리에 온다. 하지만 ‘동생이 숙제를 한다.’, ‘동생이 학생이 되었다.’ 등과 같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 보어 등 다른 자리에도 올 수 있다.

② 체언은 단어의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뉜다.

③ 체언 중 ‘것’, ‘만’ 등의 의존 명사는 혼자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며, 그 앞에 꾸며 주는 말(관형어)이 있어야만 쓰일 수 있다.

④ 체언 중 어떤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은 대명사이다.

04 ‘그는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아 헤맸다.’에서 ‘찾다’와 ‘헤맸다’는 모두 홀로 쓰일 수 있는 본용언이다. ‘찾아’는 동사 ‘찾다’의 어간 ‘찾-’에 연결 어미 ‘-아’가 붙은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있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② ‘본다(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④ ‘없다’는 앞말이 뜻하는 상태를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이다.

⑤ ‘싶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이다.

05 동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니’와 결합하지만, 형용사는 결합하지 않는다.

06 ‘커’는 형용사 ‘크다’의 어간 ‘크-’에 연결 어미 ‘-어’가 붙은 활용형이다. ‘천천히, 매우, 빨리, 일찍’은 모두 부사이므로, 형용사인 ‘커’의 품사만 나머지와 다르다.

07 ‘먼저, 밥부터 먹어라.’에서 ‘먼저’는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아니’는 감탄사로, 아랫사람이나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이다.

③ ‘글쎄’는 감탄사로,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④ ‘아이고’는 감탄사로, 놀랐을 때 내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⑤ ‘아차’는 감탄사로,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하는 말이다.

08 명사는 ‘비, 오늘, 날씨, 하늘’로 네 개이다. ‘오늘’은 명사 또는 부사로 쓰일 수 있는데, <보기>의 문장에서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을 뜻하는 명사로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부사는 ‘어제, 참’으로 두 개이다. ‘어제’는 동사 ‘그쳤고’를, ‘참’은 형용사 ‘파랗다’를 각각 수식하고 있다.

③ 동사는 ‘그쳤고’로 한 개이다. 기본형은 ‘그치다’이다.

④ 조사는 ‘는, 은, 가, 이’로 네 개이다.

⑤ 형용사는 ‘맑아서, 파랗다’로 두 개이다.

09 ‘푸르다’는 활용할 때, ‘푸르- + -어 → 푸르러’와 같이 어미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단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듣다’는 활용할 때, ‘듣- + -어 → 들어’와 같이 어간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단어이다.

② ‘있다’는 활용할 때, ‘있- + -어 → 이어’와 같이 어간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단어이다.

④ ‘하얗다’는 활용할 때, ‘하얗- + -아 → 하얘’와 같이 어간과 어미 모두 불규칙하게 변하는 단어이다.

⑤ ‘눅다’는 활용할 때, ‘눅- + -어 → 누워’와 같이 어간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단어이다.

10 ‘군데’는 ‘날날의 곳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는 의존 명사로, 자립 명사와 달리 관형어 없이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② ‘그릇’은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자립 명사이지만, 여기에서는 음식이나 물건을 그릇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로 쓰였다.

③ ‘덩어리’는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자립 명사이지만, 여기에서는 부피가 큰 것이나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세는 단위로 쓰였다.

④ ‘숟가락’은 ‘밥이나 국물 따위를 떠먹는 기구.’를 의미하는 자립 명사이지만, 여기에서는 밥 따위의 음식물을 숟가락으로 떠 그 분량을 세는 단위로 쓰였다.

⑤ ‘발자국’은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을 의미하는 자립 명사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을 한 번 떼어 놓는 걸음을 세는 단위로 쓰였다.

단어의 파임과 의미

- ① 어근 ② 합성어 ③ 기본적 ④ 대립 ⑤ 포함
⑥ 합성

- 01 ② 02 ③ 03 ② 04 ⑤ 05 ③ 06 ① 07 ④
08 ④ 09 ③ 10 ③

01 <보기>의 문장은 형태소 ‘비누’, ‘로’, ‘거품’, ‘을’, ‘내-’, ‘-었-’, ‘-다’로 나뉜다. 그중에서 ‘비누’, ‘거품’, ‘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이다. 반면 ‘로’, ‘을’, ‘-었-’, ‘-다’는 문법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02 밑줄 친 ‘은/는’, ‘들/들-’, ‘-았/었-’은 모두 의존 형태소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쓰인다. 또한 이들은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먼저 조사 ‘은/는’은 받침 있는 체언에는 ‘은’의 형태로, 받침 없는 체언에는 ‘는’의 형태로 결합한다. 또한 ‘들다’의 어간 ‘들-’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들-’의 형태로 바뀌어 결합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은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ㅓ’인 용언의 어간 뒤에서는 ‘-았-’의 형태로, ‘ㅏ, ㅓ’가 아닌 모음인 경우에는 ‘-었-’의 형태로 결합한다.

| 오답 풀이 | ①, ⑤ ‘은/는’, ‘들/들-’, ‘-았/었-’은 모두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들이므로 단어의 자격을 가질 수 없지만, ‘은/는’과 같은 조사에는 예외적으로 단어의 자격이 부여된다.

②, ④ ‘은/는’, ‘-았/었-’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지만, ‘들/들-’은 동사 어간으로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다.

03 ‘치솟다’는 접사 ‘치-’와 어근 ‘솟-’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나머지는 모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04 ‘심었다’는 동사 ‘심다’의 어간 ‘심-’에 선어말 어미 ‘-었-’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활용형이다. 이때 ‘심었다’의 어근은 ‘심-’ 하나뿐이므로, ‘심었다’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동사의 활용형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어제’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② ‘텃밭’은 어근 ‘터’와 어근 ‘밭’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 ‘한가운데’는 접사 ‘한-’과 어근 ‘가운데’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④ ‘꽃씨’는 어근 ‘꽃’과 어근 ‘씨’가 결합한 합성어로 복합어에 해당한다.

05 ‘새하얗다’는 ‘매우 하얗다.’를 뜻하는 말로 ‘매우 짙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새-’와 어근 ‘하얗-’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돌부리’는 어근 ‘돌’과 어근 ‘부리’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부리’는 ‘어떤 물건의 끝이 뾰족한 부분.’을 뜻한다.

② ‘빗방울’은 어근 ‘비’와 어근 ‘방울’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방울’은 ‘작고 둥글게 맺힌 액체 덩어리.’를 뜻한다.

④ ‘뛰놀다’는 ‘뛰다’의 어간 ‘뛰-’와 ‘놀다’의 어간 ‘놀-’이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굴러가다’는 용언 ‘구르다’의 활용형인 ‘굴러(구르-+-어)’와 용언 ‘가다’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06 ‘열다’는 ‘닫히거나 잠긴 것을 트거나 벗기다.’라는 의미이다. ‘서랍을 열다. ↔ 서랍을 닫다.’, ‘뚜껑을 열다. ↔ 뚜껑을 덮다.’, ‘자물쇠를 열다. ↔ 자물쇠를 잠그다.’와 같이 ‘열다’는 ‘닫다, 덮다, 잠그다’와 의미가 대립하는 반의 관계가 나타난다.

07 ‘배우다 - 익히다’는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나머지는 모두 의미가 대립하는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08 ‘동물 - 척추동물 - 포유류’에서 ‘척추동물’은 ‘동물’의 하의어이지만 ‘포유류’의 상의어이기도 하다.

09 ‘뭉치’는 어근 ‘뭉’과 접미사 ‘-치’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이다. 다른 말들은 모두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 오답 풀이 | ① ‘강추’는 ‘강(력) 추(천)’의 준말이다.

② ‘심쿵’은 ‘심(장이) 쿵(하다)’의 준말이다.

④ ‘깜놀’은 ‘깜(짝) 놀(라다)’의 준말이다.

⑤ ‘훈밥’은 ‘훈(자) 밥(을 먹음.)’의 준말이다.

10 ‘겹겹이’는 명사 어근 ‘겹’이 결합한 합성어 ‘겹겹’에 접사 ‘-이’가 붙어 ‘겹겹이’로 파생된 것이므로 ㉠의 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이때 합성 명사 ‘겹겹’에 접사가 결합하면서 품사가 부사로 변하므로 ㉠의 조건도 충족한다.

| 오답 풀이 | ① ‘군것질’은 접사 ‘군-’에 어근 ‘것’이 결합한 파생어인 ‘군것’에 접사 ‘-질’이 다시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군것’과 ‘군것질’은 모두 명사로, 품사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바느질’은 어근 ‘바늘’에 접사 ‘-질’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바늘’과 ‘바느질’은 모두 명사로, 품사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 ‘다듬이’는 동사 어근 ‘다듬-’에 접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때 동사 ‘다듬-’은 접사가 결합하면서 명사로 품사가 변하므로 ㉠의 조건을 충족한다.

⑤ ‘헛웃음’은 동사 어근 ‘웃-’에 접사 ‘-음’이 결합한 파생어 ‘웃음’에 다시 접사 ‘헛-’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동사 어근 ‘웃-’에 접사가 결합하면서 명사로 품사가 변하지만, 품사가 바뀐 후에 접사가 결합하므로 ㉠의 조건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

㉠ 문장

본책 234~235쪽

문장의 구조

- ① 절 ② 안은문장 ③ 연결 어미 ④ 종속적 ⑤ 목적어
⑥ 부사어 ⑦ 조사

- 01 ④ 02 ① 03 ① 04 ② 05 ③ 06 ⑤ 07 ②
08 ④ 09 ④

01 '서울시에서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에 쓰인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이 문장에서 '서울시에서'는 일반적 주격 조사 '가'로 대체되어 쓰일 수 있다. 즉 '서울시에서는' 부사어가 아니라 체언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어서 만들어진 주어이자 공연을 기획한 주체이다.

02 '나는 아주 큰 별을 보았다.'에는 안은문장의 주어 '나는'과 서술어 '보았다'의 주술 관계가 나타난다. 또한 안겨 있는 절의 원래 홀문장 형태인 '별이 아주 크다.'에서도 주어 '별이'와 서술어 '크다'의 주술 관계가 나타난다. 즉 '아주 큰'은 '(별이) 아주 크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관형사절로 안겨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①의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② 주어(우리)와 서술어(검자)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홀문장이다.

③ 주어(그는)와 서술어(하지 않았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홀문장이다.

④ 주어(현주가)와 서술어(연주한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홀문장이다.

⑤ 주어(그의 말 한마디가)와 서술어(무너뜨렸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홀문장이다.

03 ①은 앞 절과 뒤 절이 나열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고'로 이어져 있다.

| 오답 풀이 | ②는 연결 어미 '-으면', ③은 연결 어미 '-더라도', ④는 연결 어미 '-려고', ⑤는 연결 어미 '-어서'가 사용되어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04 ㉠에서 '그 일을 하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절로, 전체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05 '나는 이제 아이가 아니다.'는 '주어 + 부사어 + 보어 + 서술어'로 구성된 홀문장이다. 서술어 '아니다' 앞에 오는 '아이가'는 서술절의 주어가 아니라 보어이다.

06 ㉠은 부사형 어미 '-도록'이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절로, 뒤에 오는 '돌이와'가 아니라 서술어 '놀았습니다'를 수식하고 있다.

07 <보기>의 '숨이 차게'는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절이다. ②의 '땀이 나서'는 부사형 어미 '-아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절이다.

| 오답 풀이 | ① '마음이 넓다'는 서술절이다.

③ '정말 미안하다고'는 인용절이다.

④ '가사가 아름다운'은 관형사절이다.

⑤ '내가 여행을 가기'는 명사절이다.

08 '저것은 내가 내일 아침에 먹을 음식이다.'는 '내가 내일 아침에 먹을'이라는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① 서술절 '산이 많다'를 가진 안은문장이다.

② 인용절 '바로 돌아온다'를 가진 안은문장이다.

③ 관형사절 '형사에게 붙잡힌'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⑤ 부사절 '손바닥에 땀이 나도록'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9 ㉠은 관형사절 '내가 늘 쉬던'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이때 '내가 늘 쉬던'은 홀문장 '내가 공원에서 늘 쉬다.'에 관형사형 어미 '-던'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안은문장과 중복되는 부사어 '공원에서'가 생략되어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은 명사절 '자식이 건강하기'를 가진 안은문장이다. 이때 '자식이 건강하기'는 홀문장 '자식이 건강하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것으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② ㉠은 부사절 '연락도 없이'를 가진 안은문장이다. 이때 '연락도 없이'는 홀문장 '연락도 없다.'에 부사형 어미 '-이'가 결합한 것으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③ ㉠은 명사절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이때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은 홀문장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것으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⑤ ㉠은 관형사절 '아주 어려운'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이때 '아주 어려운'은 홀문장 '과제가 아주 어렵다.'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것으로, 안은문장과 중복되는 주어 '과제가'가 생략되어 있다.

➤ 참고 자료

관형사절에서의 문장 성분의 생략

관형사절은 안은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는데, 이때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만든 된장찌개는 세계 최고이다.'라는 문장에는 홀문장 '엄마가 된장찌개를 만들었다.'가 '엄마가 만든'이라는 관형사절의 형태로 안겨 있다. 즉 관형사절에서 목적어로 쓰여야 할 '된장찌개'가 생략되어 나타났다.

문법 요소

- ① 종결 어미 ② 청자 ③ 간접 높임 ④ 대상 ⑤ 현재
⑥ 완료상 ⑦ 접미사 ⑧ 능력

- 01 ② 02 ② 03 ③ 04 ③ 05 ③ 06 ③ 07 ③
08 ③ 09 ①

01 ②는 화자가 특별한 의도 없이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문장이므로 평서문에 해당한다. 감탄문은 화자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문장으로 ‘-구나’, ‘-구려’, ‘-로다’ 등의 종결 어미로 끝난다.

02 ‘계시다’는 주체를 직접 높일 때 사용하고, ‘있으시다’는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통하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일 때 사용한다. 따라서 ‘선생님, 지금 시간이 있으세요?’가 적절한 표현이다.

03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객체, 곧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다.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신다.’는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법이 쓰인 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①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조사인 ‘께’와 특수 어휘인 ‘드리다’를 사용하였다.

②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인 ‘모시다’를 사용하였다.

④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조사인 ‘께’와 특수 어휘인 ‘여쭙다’를 사용하였다.

⑤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인 ‘뵈다’를 사용하였다.

04 ‘오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는 선언어미 ‘-겠-’을 통해 미래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05 ‘바람에 나뭇가지가 꺾어졌다.’는 동사 ‘꺾다’에 ‘-어지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통사적 피동문이다. 따라서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꺾기다’는 동사 ‘꺾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② ‘잡히다’는 동사 ‘잡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④ ‘들리다’는 동사 ‘들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⑤ ‘보이다’는 동사 ‘보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06 주동사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로 실현되는 사동문을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하고, 어미 ‘-게’에 보조 용언 ‘하다’가 결합한 ‘-게 하다’로 실현되는 사동문을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한다. ③은 ‘차다’에 ‘-게 하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통사적 사동문이다.

| 오답 풀이 | ① ‘먹다’에 사동 접미사 ‘-아-’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로 실현되는 파생적 사동문이다.

② ‘올다’에 사동 접미사 ‘-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로 실현되는 파생적 사동문이다.

④ ‘깨다’에 사동 접미사 ‘-우-’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로 실현되는 파생적 사동문이다.

⑤ 명사 ‘화해’에 사동 접미사 ‘-시키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로 실현되는 파생적 사동문이다.

07 “꽃이 아름답지 않다.”와 같은 예처럼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가 쓰인 문장도 부정문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능력이나 의지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할 수 없고, 상태를 부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 오답 풀이 | ①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이나 상태 부정을 의미하고,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을 의미한다.

②, ④ 부정 부사 ‘안’, ‘못’을 사용하여 짧은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부정 용언 ‘아니하다’, ‘못하다’ 등을 사용하여 긴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⑤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문을 만들 때에는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 대신에 ‘복도에서 뛰지 마라/말자.’와 같이 ‘-지 마/마라’, ‘-지 말자’를 사용한다.

08 간접 인용 표현을 직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인용격 조사, 인칭 표현, 지시 표현,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종결 표현 등을 상황이나 화자의 관점에 맞게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09 ㉠에서는 ‘언제, 어디에서’와 같은 의문사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이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에서 ‘어머니’는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우기 위해 일어난다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수사 의문문) 가운데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 ‘학생 B’는 ‘학생 A’의 질문에 우회적으로 같이 갈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판정 의문문)이다.

㉣ ‘어쩔 이럴 수 있니?’는 ‘이럴 수 없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언니’는 ‘동생’에게 어떤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수사 의문문) 가운데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답화

본책 238~239쪽

답화

- ① 발화 ② 상황 맥락 ③ 통일성 ④ 공공 ⑤ 어문 규범
⑥ 의사소통

- 01 ⑤ 02 ③ 03 ② 04 ① 05 ④ 06 ④ 07 ③
08 ②

01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상황 맥락에 포함되는 것이고,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 포함되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답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화자, 청자, 맥락, 그리고 그 속에서 문장 단위로 실현된 말인 발화가 있어야 한다.

② 언어적·비언어적 맥락은 답화의 흐름 및 의미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③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화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의미를 잘못 파악할 수 있다.

④ 여러 발화를 단순히 모아 놓은 것이 곧 답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답화가 완결된 구조를 이루려면 응집성과 응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02 친구가 손목시계를 차고 있다는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은 자신에게 현재 시각을 알려 달라는 의미이며,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은 약속 시간에 늦었음을 질책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03 밑줄 친 발화의 앞에 놓인 ‘집을 이렇게 어지럽히다니’라는 발화를 고려할 때, ‘너 몇 살이니?’라는 발화는 집을 어지럽히는 행동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질책의 의미를 담은 간접 발화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집을 이렇게 어지럽히다니’라는 말을 고려할 때 정확한 나이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집을 어지럽히기 위해 갖추어야 할 나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안 맞게 집을 어지럽히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④ 집을 어지럽히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질책하는 것이지만, 나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음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다.

⑤ 주어진 발화만으로는 화자와 청자의 나이를 알 수 없으며, 집을 어지럽힌 것을 꾸짖는 내용이지 청자의 예의 없는 행동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다.

04 ㉠에는 ‘탁자 아래’를 의미하는 지시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인 ‘거기’나 ‘그곳’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에는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이 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인 ‘그리하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5 ‘남학생’은 ‘여학생’에게 자신이 도서관에 잘 찾아갈 수 있을지를 물었는데, ‘여학생’은 엉뚱하게 “너 신발 멋지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답화의 통일성을 해치는 발화이다.

| 오답 풀이 | ① ‘여학생’은 ‘남학생’의 질문에 어울리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을 뿐이지 언급한 말을 반복하지는 않았다.

② ‘여학생’은 주제의 일관성에서 벗어난 발화를 하여 답화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을 뿐, 장소에 맞지 않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③ ‘여학생’의 발화 중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에 어긋나는 표현은 없다.

⑤ ‘여학생’은 앞의 발화인 ‘너 신발 멋지다.’와 뒤의 발화인 ‘잘 찾아가겠지.’를 연결하는 접속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06 <보기>는 ○○ 교통 공사라는 공공 기관의 안내문으로 좁은 의미의 공공 언어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RH 시간대’라는 영어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rush hour(러시아워)’를 나타내는 준말인 ‘RH 시간대’를 ‘붐빌 때’나 ‘혼잡 시간대’ 정도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07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당근’이 누리 소통망에 쓴 댓글이 뉴스로 보도되어 사회적 공공성을 띠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사회적 파급력을 지닌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SNS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SNS를 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이다.

② SNS 댓글에서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나타낼 수 있으나, <보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④ 뉴스에서는 어문 규범에 맞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보기>에 제시된 사람들의 반응만으로 해당 뉴스가 가짜 뉴스인지 판별할 수는 없다.

08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는 말은, 실제로 차린 음식이 적다는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겸손이나 겸양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이는 요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겸손함을 나타내는 관습적 의미로 보아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형식상으로는 내일도 늦을 것이냐고 묻고 있는 의문문이지만, 내일부터는 지각하지 말라는 화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③ 한국어의 ‘시원하다’에는 온도가 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뜨거운 음식이 속을 후련하게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④ 형식상으로는 ○○ 중학교의 위치를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질문이지만, 실제로는 ○○ 중학교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⑤ 친구가 잘했다고 한 말은 칭찬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는 짓이 못마땅하다는 뜻을 반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3. 화법의 탐구와 실제

(1) 발표와 연설

본책 240~241쪽

다양한 표현 전략을 활용한 발표

- ① 청중 ② 어조 ③ 시선 ④ 주제 ⑤ 플라스틱
⑥ 비용

01 ③ 02 ② 03 ③ 04 ④ 05 ④

01 발표자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설명하기 위해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기존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를 직접 청중에게 보여 주고 있다.

02 바이오 플라스틱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나 활용도가 높다.

| 오답 풀이 | ① 도입부에서 자신의 꿈이 환경 생태 공학자임을 밝히고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을 소개할 것임을 안내하고 있다.

③ 전개부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옥수수, 해조류와 같이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임을 밝히고 있다.

④ 전개부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기존의 플라스틱보다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강도가 약하다는 한계점을 밝히고 있다.

⑤ 정리부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고, 바이오 플라스틱이 우리 삶 전반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히고 있다.

03 '큰 목소리(㉠)'는 성량으로 준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표정(㉡, ㉢)과 몸짓(㉣, ㉤)으로 모두 비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04 발표자는 도입부에서 발표의 목적은 환경 생태 공학과 관련해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을 소개하는 것이나, 그 전에 플라스틱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다며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05 발표자는 ㉠에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여 청중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③ 플라스틱이 화석 연료로 만들어진다는 사실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생활용품에 대한 내용은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보기>와는 관련이 없다.

② 발표에서 바이오 플라스틱과 기존 플라스틱의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보기>에서 이러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없다.

⑤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어 이러한 배경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을 뿐,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설

- ① 주장 ② 근거 ③ 역사적 ④ 표현 ⑤ 평판
⑥ 피카소 ⑦ 공감대

01 ② 02 ⑤ 03 ③

01 화자는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경험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예술이 나이에 상관없는 자 신감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③ 화자는 1문단에서 예술이 우리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④ 화자는 세익스피어의 희곡 대사, 피카소의 '게르니카', 아이웨이웨이의 다큐멘터리 '유랑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며 예술을 통해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⑤ 화자는 예술을 만드는 과정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관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한 뒤, 개발 지휘권을 두고 주변 전문가들과 갈등을 겪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02 이 연설은 대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이 앞으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 나아가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3 <보기>의 연설 맥락으로 보아 화자는 조각가이자 건축가로서 대통령 훈장을 수상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공신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중은 예술 대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이므로 화자의 연설 내용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화자가 건축가이자 조각가인 것은 맞지만 청중과 같은 예술 대학교를 졸업했는지는 알 수 없다.

② 화자의 전문성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는 제시되어 있으나, 화자의 성품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화자 역시 청중과 같은 예술가로서 자신이 졸업할 당시에 경험했던 일을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⑤ 연설 장소는 졸업식이 열리는 대학교이며, 청중은 20대의 청년들이다. 이들에게 젊음의 힘을 이용해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라는 화자의 조언은 호소력 있게 다가갈 것이다.

참고 자료

마야 린의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비를 둘러싼 논쟁

마야 린이 설계한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비'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전쟁 기념비처럼 영웅적이거나 희생을 강조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원의 대지를 칼로 잘라내 상처를 드러낸 듯한 형태로 두 개의 긴 검은 화강암 벽을 세워 두 벽이 만나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마야 린은 자신의 주관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② 토의와 토론

본책 244~245쪽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토의

- ① 대안 ② 근거 ③ 판단 근거 ④ 합리적 ⑤ 가로등
⑥ 수목

01 ⑤ 02 ② 03 ④ 04 ④

01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패널로 참여한 토의 참여자들의 역할이다. 사회자는 토의가 이러한 방향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02 토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따라서 ②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토의에서는 분명하고 조리 있게 표현하되 예의 바른 태도로 이야기해야 한다. 나머지는 토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능성에 주목하여 칭찬하는 표현이다.

③ 전체적인 비판 대신 부분적구체적으로 비판하는 표현이다.

④ 직접적인 표현 대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⑤ 비판보다 개선 방안을 말하는 표현이다.

03 황 변호사는 희망시 내 지역 간 가로등 배치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을 뿐, 다른 지역과 희망시의 가로등 개수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황 변호사는 가로등 주변 수목 문제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김 교수가 가로등 전구의 교체 주기와 희망시 시설 교체 사업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② 박 국장이 희망시 시청 누리집 게시 글과 민원을 바탕으로 인식한 내용이다.

③ 이 박사가 희망시 가로등 배치 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⑤ 황 변호사가 희망시 지역 신문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04 황 변호사의 첫 번째 말을 통해 우주동과 지구동이 신시가짐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이미 가로등의 수가 과잉 배치되어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으므로 가로등을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

| 오답 풀이 | ① 김 교수는 수명이 다 된 가로등 전구를 교체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②, ⑤ 황 교수는 가로등 주변 수목 정리 사업 실시와 가로등 격등제 실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③ 이 박사는 구도심 지역의 주택가와 도시 외곽 지역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본책 246~247쪽

논리를 주고받는 토론

- ① 논제 ② 반대 신문 ③ 쟁점 ④ 청중 ⑤ 질문
⑥ 비용

01 ④ 02 ① 03 ④

01 반대 측은 (나)에서 설탕뿐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이나 고지방 식품의 섭취가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가람대 병원의 의학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근거의 출처를 이미 밝히고 있으므로 ④의 반대 신문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찬성 측은 (가)에서 제시한 질병 관리청 자료에서는 2021년의 비만율이 2020년에 비해 1.2퍼센트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설탕세를 도입하지 않고도 비만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반대 측은 반대 신문 단계에서 찬성 측의 통계 자료 해석이 적절한지 검증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찬성 측은 (가)에서 설탕세를 도입하면 설탕 섭취량을 줄여 비만, 당뇨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반대 측은 반대 신문 단계에서 설탕세 도입이 해당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검증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반대 측은 (나)에서 덴마크의 설탕세 폐지 사례를 근거로 설탕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찬성 측은 반대 신문 단계에서 반대 측이 제시한 사례가 일반적인지를 검증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⑤ 반대 측은 (나)에서 담뱃세가 흡연을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례를 들어 설탕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찬성 측은 반대 신문 단계에서 담뱃세 사례를 근거로 설탕세의 효과를 추론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02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는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의 차이를 논하는 정책 논제이다.

03 [B]에서 '반대 ①'은 '찬성 ①'이 정의한 '설탕세'라는 용어를 재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를 언급한 찬성 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있다고 하지도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A]에서 '찬성 ①'은 '문제의 심각성'으로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를 들고 있으며, 질병 관리청의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② [A]에서 '찬성 ①'은 설탕세 도입으로 국민의 비만, 당뇨 등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영국의 설탕세 도입 사례를 들어 '제시된 방안'의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③, ⑤ [A]에서 '찬성 ①'은 설탕세 도입으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으로 제시하고 있고, [B]에서 '반대 ①'은 설탕세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찬성 ①'의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에 대한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03 대화와 협상

본책 248~249쪽

나를 알고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

- ① 생각 ② 능력 ③ 긍정적 ④ 부정적 ⑤ 메시지
⑥ 친밀도

01 ① 02 ① 03 ③ 04 ④ 05 ⑤ 06 ⑤

01 (가)는 친구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은 윤희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을, (나)는 친구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은 소미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02 (가)의 상황에서 창렬이는 발표를 끝낸 윤희에게 '발표에 소질이 없다, 목소리가 안 들린다, 엄청 지루했다' 등 부정적인 말만 꺼 내고 있다. 이처럼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표현들은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게 된다.

03 대화는 정서나 정보 교환은 물론 상대방과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공유하며 관계를 맺는 행위이다.

| 오답 풀이 | ① 협상의 개념이다.

② 연설의 개념이다.

④ 토의의 개념이다.

⑤ 토론의 개념이다.

04 자아 개념은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성격, 태도 등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개인의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아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05 아영이는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이 말을 잘 안 걸어서 고민하고 있는 수아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하라고 조언해 줄 수 있다.

06 민식은 준서에게 우리 반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지 물으며, 반 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민식은 오늘 막 전학을 왔고 준서는 전학 온 반의 학생이므로, 준서가 반 학생이나 회장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③ 준서에게 갑자기 우리 반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는 질문을 던져 준서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② 반 회장이 차갑고 자기를 잘 챙겨 주지 않는다며, 회장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④ 오늘 막 전학을 왔음에도 준서에게 자신이 다정한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속상한 일이 많아 위로를 받고 싶거나 하는 등 자신의 정보를 너무 많이 노출하고 있다. 이에 준서는 그만큼 자신도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본책 250~251쪽

모두의 만족을 이끄는 협상

- ① 조정 ② 입장 ③ 선호도 ④ 대안 ⑤ 수락 ⑥ 공연
⑦ 가람 ⑧ 수익금

01 ⑤ 02 ① 03 ⑤ 04 ④ 05 ②

01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도담 마을 대표가 '오늘은 축제 마지막 날 열리는 자선 공연을 어느 마을에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02 협상의 시작 단계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협상 참여자들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공유하는 단계이다. 이때 협상 주제와 관련한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고, 협상 참여자들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②, ④, ⑤는 조정 단계에서, ③은 해결 단계에서 할 일이다.

03 작년에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어 마을 예산이 부족해진 마을은 소담 마을이다. 이런 이유로 소담 마을에서는 이번 축제를 통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04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의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하여 문서로 남길 수 있다. 협상 내용으로 보아 '도담 마을은 축제 캐릭터의 제작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50퍼센트를 소담 마을에 지급한다.' 정도가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② 도담 마을과 소담 마을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역 축제에서 도담 마을은 먹거리 장터를, 소담 마을은 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③ 축제 캐릭터는 가람 공원과 관련된 것으로 도담 마을에서 제작하며, 제작 비용은 도담 마을이 부담한다.

⑤ 축제 홍보 비용의 70퍼센트는 도담 마을이, 30퍼센트는 소담 마을이 부담한다.

05 [A]에서 소담 마을 대표는 주민 운동장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하며, 도담 마을 대표가 우려하는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A]에서 도담 마을 대표는 적은 예산으로 마을 축제를 준비하다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③ [A]에서 소담 마을 대표는 도담 마을 대표가 지적인 부족한 예산 문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축제 예산을 더 부담하겠다는 도담 마을의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④ [B]에서 도담 마을 대표는 소담 마을 대표가 요구하는 캐릭터 수익금을 소담 마을에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대신, 수익금에서 캐릭터 제작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하였다.

⑤ [B]에서 소담 마을 대표는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역 축제의 캐릭터인 만큼 캐릭터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눠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4. 국어 생활의 성찰

본책 252~253쪽

국어 생활의 성찰

- ① 차자 ② 분철 ③ 음가 ④ 어두 자음군 ⑤ 상대
⑥ 끝소리 ⑦ 명사절 ⑧ 한자어

01 ③ 02 ③ 03 ⑤ 04 ④ 05 ③ 06 ③ 07 ③

01 차자 표기는 한자의 음만이 아니라 한자의 뜻이나 음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한 것으로, 이두, 구결, 향찰 등이 있다.

| 오답 풀이 | ① 국어는 고대, 중세, 근대 시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변화해 왔다.

② 고대 국어 시기에는 인명, 지명 등의 고유 명사를 한자의 뜻이나 음을 이용하여 표기하였다.

④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는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적었다.

⑤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 부녀자층과 서민층은 주로 한글을 사용하였으며, 양반층은 한문을 계속 사용하였다.

참고 자료

우리말의 차자 표기

이두	우리말의 문장 구조에 맞게 한자를 재배열하고 형식 형태소를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적은 표기법
구결	한문 구절 아래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를 덧붙여 한문을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한 표기법
향찰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표기하는 표기법. 특히 향가 표기에 사용된 것을 일컬음.

02 현대어 풀이에서 隱(숨길 은)은 조사 '는'에, 都(도읍 도)는 조사 '도'에 대응한다. 즉, 隱과 都는 한자의 음을 빌려 우리말의 형식 형태소를 표기하였다. 반면 辭(말 사)는 현대어 풀이에서 명사 '말'에, 去(갈 거)는 용언 '갑니까'의 어간에 대응하며, 한자의 뜻을 빌려 우리말의 실질 형태소를 표기하고 있다.

03 ⑥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사용하여 문장의 목적어인 '스승님'을 높이고 있다. '보습고져'에서와 같이 '-습-'은 어간의 끝소리가 모음이거나 'ㄴ, ㄹ'일 때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은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아-'를 통해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③ 현대 국어에서 상대방에게 공손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옵-'이나 '-사옵-'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⑥에 사용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이다.

④ ⑥에는 객체인 '스승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이 사용되었다.

04 선행 체인의 끝소리가 자음인지 모음인지에 따라 주격 조사 '이'와 '가'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대 국어의 특징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사루미(사름+이)', '쇠(쇼+ㅣ)'와 같이 주격 조사로 '이' 계열만 사용되었으며, 근대 국어 시기에 주격 조사 '가'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05 '-ㄴ다'는 중세 국어에서 평서형이 아니라 2인칭을 주어로 하는 의문형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다. '-ㄴ다'가 평서형 종결 어미로 사용되는 것은 현대 국어에서이다. 또한 제시된 글에서는 '-ㄴ다'의 용례를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나홀', '아바를'을 통해 현대 국어에 없는 모음자 '·(아래아)'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王薦이', '神人이'를 통해 주격 조사 '이'가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바수보디'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주어지이다'에서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아-'를, '주시-다'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⑤ '病이', '되어-늘'과 같이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였다.

06 'ㅎ 중성 체인'은 중세 국어에서 'ㅎ'을 말음으로 가지는 체인을 말한다. 어간 말음 'ㅎ'은 '나홀(나ㅎ+을)'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ㅎ'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ㄱ, ㄷ, ㅂ' 앞에서는 그것과 결합하여 'ㅋ, ㅌ, ㅍ'을 만들었는데, 현대 국어의 몇몇 합성어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암ㅎ+답 → 암탉', '안ㅎ+밖 → 안팎', '살ㅎ+고기 → 살코기', '머리ㅎ+가락 → 머리카락'이 그 예이다. 이와 달리 '요컨대'는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의 뜻을 지닌 부사로 ㅎ 중성 체인의 흔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07 '王(왕)이 부텨고 더욱 敬信(경신)한 ㅁㅁㅁ물 내습바'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객체인 '부텨(부처)'이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은 '부텨'이다. 한편 어간 말음이 'ㄷ'일 때 결합되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는 '-줍-'이지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줍-'으로 실현된다. 즉 어간 '듣-'과 어미 '-ㅁ며'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할 때는 어간 말음이 'ㄷ'이므로 '줍'이 붙어야 하지만, 뒤에 오는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줍-'이 붙는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은 '듣조북며(듣-+ㅁ-줍-+ㅁ-ㅁ며)'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王(왕)'은 문장의 주어에 해당한다.

④ 어간의 말음이 'ㄷ'이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이 오는 조건이므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줍-'이 아니라 '-줄-'이 와야 한다.

⑤ '무숨'은 현대어로 '마음'이고 문장의 객체에 해당하지만 높임의 대상은 아니다.

MEMO